



하나나도이에



성바오로팔수도회
시청각통신성서교육원

44호

■ 인사말_ 2	보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든다	오경은(헬레나) 수녀
■ 말씀살이 “빛”_ 4	원망하지 않는 요셉처럼 나의 이집트 탈출기 내가 선택한 이, 내 마음에 드는 이 축복을 주시려고 시련을 주시는 것이니 고통 속에서 만난 하느님 그분께서는 나에게 직무를 맡기셨습니다	강현선(제네로사) 박정실(벨라뎃다) 박송화(올리아나) 조영희(스텔라) 이명진(연히마리아) 양마리아
■ 통신성서 가족 이야기_ 21	통서가족, 2017년 이런 일을 했어요	
■ 신입생 오리엔테이션_ 27	구약입문 신입생들의 기도와 결심	구약입문 1학년 학생들
■ 말씀을 더욱 깊게_ 31	하느님 나라를 희망하는 이들의 성찬례 -성찬례의 종말론적 접근- 말씀을 사는 우리들의 시선	이빛나라(세쿤디나) 수녀 영성 2학년 학생들
■ 말씀살이 “사랑”_ 79	‘주님의 종의 길을 걸어오신 어머니 고슴도치 같았던 나를 바꿔준 기도 우리는 이미 사랑받는 자녀 뒤늦게 깨달은 주님의 은총 되돌아보면 은총이었네	민경자(마리요셉) 수녀 이선이(제노베파) 김영주(로사) 김현실(도로테아) 이재종(베다)
■ 새로나는 성경공부 이야기_ 92	새로나는 성경공부 봉사를 하면서 말씀 안에서 하느님 자녀답게	김덕순(로사) 엄명자(테오도라)
■ 2017년 졸업식 이야기_ 100	주님께 다다른 그날까지 생활 속에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이끄는 희망	김인옥(가브리엘라) 이영미(소화 데레사)
■ 교육원 제공, 공부 팁팁_ 108		
■ 책으로 만나는 말씀 이야기_ 113	야곱에게서 배운 삶의 지혜 「까칠한 윤리 숨통 트다」를 읽고 신앙과 평화의 소중함을 이야기하는 「묵주알」	윤혜리(멜라니아) 이상희(글라리아) 이난희(바울리나)
■ 평가자 이야기_ 121		
■ 교육원 소식_ 138		
■ 연수회 이야기_ 130		
■ 다 함께 읽어요_ 141		

“보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든다”

“보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든다. ... 이 말은 확실하고 참된 말이다.”(묵시 21,5)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2017년 이 말씀을 들어 ‘그리스도인은 가을이 아니라 봄을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노랗게 물들어 가는 나뭇잎이 아니라 새로운 세상의 새싹들을 봅니다. 우리는 향수나 후회, 한탄 같은 데에 현혹되지 않습니다.” 교황님은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든다’고 하신 주님 말씀을 추상적으로 듣지 말라고 당부하시면서 인간을 당신 모습대로 지어내신 주님은 우리가 항상 새로워지길 바라시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를 새롭게 해주실 수 있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오경은(헬레나) 수녀

2018년은 통신성서교육원이 설립된 지 4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성경의 불모지 같던 한국 교회 안에서 초창기 선배 수녀님들의 수고와 기도와 희생, 많은 사제와 은인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통신성서교육원을 시작한 이후 어느덧 40년이 흘렀습니다. 1978년 6월 5일 서울 가톨릭교리신학원 병설 시청각통신성서교육부로 발걸음을 내딛어 한국 교회에 말씀의 씨앗을 뿌려왔습니다. 2004년부터는 가톨릭교리신학원에서 독립하여, 현재까지 저희 성바오로말수도회가 자체적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2007년에는 어르신들을 위한 성경공부를 위해 ‘새로나는 성경공부’ 전문 봉사자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또한 우편으로만 할 수 있던 성경공부가 시공을 초월하여 언제 어디서나 쉽게 하느님 말씀을 접하고 공부할 수 있도록, 2011년에는 온라인으로 하는 ‘이러닝 성경공부’를 개설하였습니다. 아울러 바쁜 현대인들의 상황을 고려하여, 2017년에는 이러닝 수업을 모바일로도 공부할

수 있도록 마련했습니다. 이러한 여정 안에는 수녀님들의 숨은 노력과 희생, 기도가 있었습니다. 또한 6년, 또는 8년이라는 긴 여정의 성경공부를 꾸준히 하시며 연수회에도 매년 꼬박꼬박 참석하시는 학생들의 말씀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갈망이 있었기에, 저희 통신성서교육원이 지금까지 계속 발전해 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40주년을 맞으면서 앞으로 어떻게 교육원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할지 고민하며, 다시금 현재를 짚어보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하늘의 제왕인 독수리도 40년이 되면 신체적 기능이 저하되고 먹이도 쉽게 잡을 수 없게 된다고 합니다. 이때 죽든지 아니면 고통스런 혁신의 과정을 거쳐서 새로이 태어나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래서 독수리는 먼 광야로 나가 150여 일 동안 뼈를 깎는 단련의 시간을 보냅니다. 이 고통을 이겨낸 독수리는 비로소 30년 이상을 더 살게 된다고 합니다. 이제 40살이 된 저희 교육원도 새롭게 태어나야 하는 시점에 와있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어떻게 하느님 말씀을 맛 들이고, 깊이며, 삶으로 살아나가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인지를 더욱더 고민하고 그 방법을 연구하여 더 많은 이들이 주님의 말씀을 공부할 수 있도록 말씀의 텃밭으로서의 소명에 최선을 다하려 합니다. 아울러 창립자 알베리오네 신부님께서 설립하신 목적이자 교육원의 모토인 “하나 되게 하소서”(요한 17,21)라는 말씀처럼, 교육원 학생들은 물론 이 땅의 모든 비그리스도인들과도 연대하며 나아가는 길을 계속 모색해 가겠습니다.

말씀 공부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안에서도 “언제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실 수 있는” 길, 진리, 생명이며 말씀이신 주님께만 신뢰를 두지고 초대하고 싶습니다. 교황님 말씀처럼 우리는 ‘봄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주님 말씀 안에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봄날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 청합시다. 새로운 한 해 2018년, 통신성서교육원 모든 재학생들, 특히 올해 새로 입학하신 모든 분께 환영 인사 드리며, 저희의 기도와 봉사로 계속 함께하겠습니다.

원망하지 않는 요셉처럼



강현선(제네로사)
우편 1학년

수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아버지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요셉은 결국 다른 형제들의 질투와 모함으로 사랑하는 아버지의 곁을 떠나 낯선 땅 이집트에서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을 버텨가며 하느님께서 인도해 주실 그날을 위해 살아갔다. 그런 이유로 아브라함, 야곱, 요셉 세 성조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을 때 깊은 생각 하지 않고 바로 선택한 성조가 요셉이다. 그가 아버지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음에도 아버지 곁에서 그 사랑을 마음껏 누리지 못하고 민족의 목숨을 살리기 위한 하느님의 섭리로 이집트에 미리 보내지게 된 부분이 나에게 크게 와닿았기 때문이다.

부모님께서는 잔소리 없이도 혼자서 할 일을 해내기 위해 노력하는 나를 무척 자랑스러워하셨다. 하지만 그만큼 나에게에는 장녀로서의 책무가 주어졌는데 공부를 잘해야 하는 것, 다른 어른들 앞에서 피아노 연주를 능숙하게 잘하여 칭찬을 듣는 것, 대회에서 큰 상을 받는 것 등이라고 그 당시의 나는 생각했다. 두 살 어린 남동생은 딱히 뭔가를 잘하지 않아도, 앉고 서고 웃기만 해도 부모님이 흡족해하시는 것 같았다. 그 당시의 내가 부모님께 ‘요셉’이었는지 ‘르우벤’이었는지 딱히 구별할 수는 없을 것 같다. 어느 날엔 ‘요셉’처럼 귀히 여겨졌다가 갑자기 먼 미래의 명예를 위해 대도시로 선뜻 유학을 보내졌다. 하지만 나는 뭘 해도 사랑받는 남동생에 대한 시기 질투를 감추고 그애는 늘상 부모님께 사랑받지... 하고

인정하고야 마는 '르우벤'이기도 했다.

부모님은 당신들 나름으로 나에게 충실하셨는데 나는 늘 부모님의 인정과 사랑이 그리웠다. 심지어는 독립하여 남편과 더불어 짝을 이루고 아이를 낳고 키우게 된 뒤에도 힘이 들면 부모님이 내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것 같아 남몰래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왜 난 부모님의 사랑에 끝없이 목말라하는 것일까. 고민을 하다 내 발길이 닿은 곳은 집 근처 성당이였다. 남들에게는 쓸데없는 걱정처럼 보이는 나의 고민을 늘 정성껏 들어주는 이들은 주변의 신자들이었기 때문에 망설임 없이 입교를 결정했다. 갓난 쌍둥이 아이들을 키우느라 밤잠이 턱없이 부족한 데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픈 마음이 커져서 성당에 나가지 않을 수 없었다. 남편에게 간청하여 젖먹이 아이들을 잠시 맡기고 세례를 받기 위한 준비를 했다. 교리 공부를 하고 미사를 드리고 오면 뭘지 모르게 마음이 충만함을 느꼈다.

어느 날 미사 참례를 하고 있는데,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다. 완벽한 사람도 완벽한 부모도 없지만 주님은 내게 완벽한 부모시구나,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나보다도 먼저 아시고 들어주시는 분이구나. 그 깨달음이 생기고서부터 신기하게도 내 부모님에 대한 원망과 인정에 대한 결핍이 현저히 줄었다. 그리고 내 아이를 키우는 데 제일 선행되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도 알게 되었다. 내가 자식으로 부모에게 가진 원망을 버려야 한다는 것이다.

요셉은 이집트로 곡식을 사러 온 형제들에게 자신이 '요셉'임을 밝히는 과정에서 자신을 억제하지 못하고 목 놓아 울었다. 그 서럽고 벅찬 마음이 깊이 공감되었다. 가까운 가족분이 돌아가시고 장례를 치르고 있는데, 삶이 어느 날 갑자기 끝날 수도 있을 텐데 이렇게 공한 마음으로 부모님을 대하고 싶지 않다는 강한 욕구가 생겼다. 큰 용기가 필요했지만 내 삶의 길목에서 부모님께 상처받은 순간들을 끄집어냈다. 그리고 두 분께 전화를 걸어 차분하게 그 순간들을 이야기했다. 몇 번씩 감정이 폭발했지만 꼭 참고 끝까지 이야기했다. 이야기를 들으신 부모님께서는 두 분 모두 눈물을 흘리셨다. 그렇게 상처를 받았을 거라고는 생각 못 하셨다면서 내게 사과를 하셨다.

대가족 안에서 큰 사랑을 받고 성장한 요셉이었지만 가족들 안에 화합되지 못

하고 떠돌아야 했던 요셉의 상황을 내 삶에 비추어 써보았다. 가족들을 위해 미리 이집트에 보내져야 했던 요셉처럼 너무나 가족 안에서 성장하고 싶었지만 물리적으로 심리적으로 떨어져 지내야 했던 내 삶이 어딘가 요셉과 닮아 보였다. 아직 성경에 대한 이해가 깊지 않아 묵상이 더 필요하지만 이번 과제는 잔뜩 꼬여 있던 인생의 한 부분을 적어볼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다.

성경공부를 하면서 생각지도 못한 깨달음을 여기저기서 얻는다. 하느님의 역사에 대해 너무 몰라서 미사 시간에 답답함을 느껴 공부를 시작했지만 막상 공부를 하다 보니 식견이 넓어지는 것보다 이미 오래전부터 이렇게 되기를 바라며 안내해 주신 듯한 주님의 손길을 새삼 느끼게 된다.

나는 다만 몸과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데 노력을 다해야 함을 알아가고 있다.

나의 이집트 탈출기



박정실(벨라뎃다)
우편 2학년

내 삶의 발자취에서 요셉과 모세와 같은 신심의 근원과 변화를 더듬어 보려 한다. 나는 지금이 내 일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기이며 천주교 신자로서의 정체성에 대해 긍지와 확신을 갖고 있는 시기임을 고백한다.

“나는 자랑스러운 천주교 신자입니다.” 나는 비신자나 개신교 신자들에게도 자신 있게 말하곤 한다. 그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어떻게 보든 개의치 않는다. 이는 하느님과 나와 의 관계 표명이고, 그분에게 의지하는 내가 할 수 있는 극치의 신앙고백이기 때문이다.

나의 첫 번째 이집트 탈출은 어린 시절 평안남도 진남포에서 피난 오던 때일 것이다. 시작은 ‘전쟁’이었다. 폭격이 잦아지자 부모님은 5남매를 데리고 배를 타고 이북을 떠나셨다. 어린 내가 혹시 울기라도 하면 배에 탄 모두가 몰살당할 위험이 있어 ‘안내자’는 처음엔 우리 가족의 승선을 거부하였다. 다행히 값나가는 보석이며 가지고 왔던 모든 걸로 안내자를 사게 되어 배를 탔지만 배 안에서 총알이 뺨 옆을 뺨을 지나가는 가슴 졸이는 경험을 해야 했다. 어머니는 “예수! 마리아! 요셉!”을 되뇌며 나를 품에 꼭 안으셨고 덕분에 나도 울지 않고 잘 견뎌올 수 있었으며 아무도 상처 하나 없이 월남하였다. 이것이 우연이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연속극에나 나올 만한 대단한 기적, 하느님의 이끄심이었다고 자부한다.

두 번째 탈출은 낯선 미국에 젊은 나이(26살)에 왔을 때다. 여러모로 긴장되고

언어도 서툴러 미국에 적응해 살기 바쁜 시절이었다. 기회만 되면 성당을 가곤 하던 중 첫 성탄 전야 미사에 참례하게 되었다. 거기서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어머니처럼 나를 돌봐주시고 사랑해 주신 두 분을 만나게 되었다. 한 분은 이태리 사람으로 자식이 없어 우리 가족을 자식처럼 사랑해 주신 ‘에스터’란 분이었고 또 한 분은 아일랜드 사람으로 딸 둘이 있었는데 나를 셋째 딸이라도 되는 듯 사랑해 주신 ‘캐더린’이란 분이었다. 이 두 ‘엄마’ 덕분에 미국 생활에 수월하게 적응할 수 있었고 나의 신앙생활에도 큰 도움이 되었다. 이것도 우연이 아니었음을 나는 안다. 그분의 손길이었음을!

주님, 부족한 저에게 많은 손길과 돌봄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날의 가장 어려웠던 순간순간을 돌이켜 보면 주님께서 저를 버리지 않으시고 누군가를 통해서든 저와 함께해 주셨음을 알게 됩니다. 두 엄마를 보내주시지 않았다면 저는 아마 냉담자가 되었을 수도, 주님을 등지고 살았을 수도 있겠다는 끔찍한 생각도 듭니다. 어려움을 통해서 저희에게 더 가까이 오시는 주님께, 또 어머니 중의 어머니이신 성모님께 저의 모든 것을 의탁하며 하루하루를 충실히 감사하며 살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뜻 안에서 하느님의 뜻에 맞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 가는 날까지 저를 지켜주시고 저를 통해서 주님은 찬미와 찬송을 받으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선택한 이, 내 마음에 드는 이



박송화(율리아나)
우편 4학년

본당 신부님께서 자주 하시는 말씀 중에 ‘우리는 모태에서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하느님께 선택받은 사람이다’라는 말씀이 있다.

우리 집은 모태 신앙도 구교 집안도 아니지만 신부님 말씀에 따르면 난 하느님께 선택되어 현재 가톨릭 신앙인으로 살고 있는 것이다.

어릴 적 우리 집은 신을 믿는 할머니 때문에 해마다 ‘안택’이라는 무속 신앙을 대표하는 ‘굿’을 하였고, 가끔은 할머니를 따라 절에 가기도 하였다. 난 절이 싫었다. 무당도 싫었다. 그래서 중학교 종교 활동 때는 꼭 절에 가야 하나 하는 고민도 잠시 했었다. 어릴 적 소꿉놀이할 때 수건으로 베일을 만들어 쓰고 수녀놀이를 하며 놀았다. 아마 친정어머니가 결혼 전에 잠시 성당에 다녔다는 말과,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성당 옆에 살던 기억으로 막연한 동경의 대상들이 ‘성당 다니는 사람’이지 않았나 싶다.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무조건 개종하자고 엄마를 졸라 엄마부터 예비자교리를 들으시고 세례를 받았다. 난 이런저런 우여곡절로 두 번의 예비자 과정을 마치고 서야 세례를 받았다. 그게 21년 전이다. 세례를 받고 나서도 나의 신앙생활은 순조롭지 못했다. 7년간 냉담을 하다 큰아이 첫영성체를 위해 다시금 성당에 발을 들였다. 그 이후로 지금까지 누가 봐도 열심한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있다. 냉담을 풀고 나갔을 때 아무것도 모르는 나에게 주어진 많은 직책과 봉사들! 주일학교

교리교사, 레지오 입단, 브레시디움 간부, 꾸리아 간부... 난 그야말로 10여 년을 바쁘게 일하며 신앙인답게 살려고 애썼다. 맡겨진 일이니 해야 했고, 맡았으니 최고로 해야 했고... 그렇게 건방지게 내가 잘난 줄 알고 지냈다.

어느 날 문득 '내 신앙생활은 무엇 때문에 시작되었고, 난 무엇을 위해 그렇게 열심히 신앙인처럼 살아왔을까? 나는 과연 하느님을 사랑하며 예수님과 같이 순명하며 살고자 노력하였나? 정말 하느님은 나를 당신의 도구로 쓰시기를 원하셨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다.

난 아직 해답을 찾지 못하였다! 그러나 나에게 맡겨진 모든 것은 하느님의 섭리로 시작되었고, 하느님의 선택으로 이루어졌으며, 내가 완벽하게 한 일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다 얻게 된 결과라는 것은 알고 있다.

다시 무너지지 않기 위해, 돌발에 뿌려진 씨앗이 되지 않기 위해 말씀을 가까이하려 애쓰며, 관대함을 배우려 노력하고, 나의 신앙의 정체성과 사랑이신 하느님을 만나기 위해 난 매일 애쓰며 산다. 주님께서 나를 당신의 도구로 불러주신 것엔 합당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거스르지 않고 거부하지 않으며... 그것 또한 교만인 것이나...

자비와 사랑이 넘치시는 나의 주님!

당신께서 보잘것없는 저를 당신의 종으로 써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때론 의심으로, 때론 게으름으로, 때론 자만으로 당신을 아프게 하는 날이 있더라도 당신께서 저를 사랑으로 안아주심을 압니다.

저에게 다시 당신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니

저만의 시간과 여행에 당신이 함께하시어 저를 깨우쳐 주시고

당신 종으로 살아가는 데 좋은 열매 맺는 법을 가르쳐 주시며,

당신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선택한 이, 내 마음에 드는 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멘!

축복을 주시려고 시련을 주시는 것이니



조영희(스텔라)
성남으로 신학영성 2학년

이번 주제를 받아 들고 제가 살아온 삶을 돌이켜 보니 언제부터인가 잊고 지내온 한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그 이후로 웬만한 시련은 시련으로 여기지도 않게 된 아주 고통스러운 사건입니다.

제가 결혼하기 11년 전입니다. 아버지가 아무런 잘못도 없이 잡혀가신 그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에게 아버지는 한없이 큰 존재였고 제가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법 없이도 사실 분으로, 봉사활동도 참 많이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신고금을 받으려고 국제 침술 면허는 있지만 국내 면허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아버지를 신고했습니다. 그 당시 여동생은 수녀원에, 남동생은 수도원에 있었기에 집에는 부모님과 저만 있었습니다.

하느님도 무심하시지, 세 남매 중 둘이나 주님께 봉헌했는데 주님께서는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시련을 주실까 하는 원망 아닌 원망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신앙으로 무장되어 있는 엄마는 저와 달랐습니다. 그날 엄마는 가장 먼저 기도를 하시고, 그다음에는 분당 신부님을 찾아가 의논을 하시더군요. 엄마는 제게 “기도 하고 있어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가족에게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저희 집은 아버지가 침을 놓으시는 것으로 하루하루 살아왔고 그 일로 저희들 대학도 다 보내셨지요. 그래서 아버지가 모아놓으신 재산은 우리 집과 우리 가족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제 착각이었습니다. 그보다 더 큰 재산은 고난 중에 함께해 주신 많은 지인의 사랑과 주님의 축복임을 깨달았습니다. 신부님은 변호사를 알아봐 주시고 성당 사람들은 서명운동을 해주셨습니다. 어떤 분은 돈으로 도움을 주기도 했습니다.

가장 고마운 분은 제 교수님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대학을 편입해서 졸업과 동시에 대학원을 염두에 두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평소에 이것저것 교수님 일을 도와드리고 있었는데 제 사정을 들으신 교수님은 아르바이트비라며 선뜻 백만 원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놀라고 감사했는지! 그때 그 돈은 백만 원 이상의 가치를 지닌, 주님이 주시는 선물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교수님의 제자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 그 당시 저는 전화 통화로 서울에 계신 선생님에게서 성경을 배우고 있었는데 선생님이 베드로 1서를 읽어보라고 권하셨습니다. 권고에 따라 베드로 1서를 읽다가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마지막 때에 나타날 준비가 되어있는 구원을 얻도록, 여러분의 믿음을 통하여 하느님의 힘으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 즐거워하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얼마 동안은 갖가지 시련을 겪으며 슬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불로 단련을 받고도 결국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훨씬 값진 여러분의 믿음의 순수성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밝혀져, 여러분이 찬양과 영광과 영예를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지만 그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분을 보지 못하면서도 그분을 믿기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 속에서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목적인 영혼의 구원을 얻을 것이기 때문입니다.”(1베드 1,5-9)

그래, 그분께서는 우리를 금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시기에 우리에게 큰 축복을 주시려고 시련을 주시는 것이니 이 시련과 맞서 싸우고 그분께 더 의지하고 기도를 하자 하면서 엄마와 저는 그렇게 더 주님께 매달렸습니다. 많은 기적 같은 도

움으로 아버지는 한 달 뒤에 나오시게 되었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난 뒤 저희 가족에게는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엄마는 주님께 더 의지하시게 되었고 주님에 대한 믿음은 더 확실해졌습니다. 뒤늦게 알게 된 동생들에게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남동생은 벌써 5년 차 신부님이 되었구요, 여동생은 3년 뒤 수녀원을 나왔지만 그때 아버지에 대한 커다란 사랑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께서 나오시던 그 무렵 저희 신앙을 만났고 결혼한 지 11년이 된 지금도 눈에서 콩깍지가 안 떨어지고 살고 있고 귀여운 두 아이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제가 부산에서 교사 11년 근속을 하고 결혼한 뒤 여기 청주에서 15년 근속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년 더 교사 일을 하던 중 주님께서 둘째를 주셔서 휴직을 했습니다. 쉬는 동안 신부님께 서운한 일도 있었지만 그래도 타지에 와서 우울증 걸릴 뻔하기도 한 저에게 주님께서는 통신성서 공부를 하게 해주셨고 지금의 과정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항상 저의 곁에서 응원해 주고 계셔서 지금도 주님을 꼭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께서는 그 뒤로 침을 봉사로만 하시고 생업으로 하시지는 않게 되었지만 부부 같이 경비랑 청소를 하는 항만 공사장에서 일하시며 처음으로 조직 생활 아닌 조직 생활과 매월 월급이라는 것을 받고 일하시게 되었고, 그 계약이 끝난 지금은 성당관리직을 하시며 약간의 월급을 받으시며 봉사 아닌 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일로 성직자 가족으로서 좀 더 겸손한 가족이 되었고 가족 모두가 신앙이 성숙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일로 가장 큰 은혜를 입었으며 제가 바라는 삶을 살고 있기에 항상 주위 사람들에게 베풀며 주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 첫머리는 '당신께 감사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항상 저에게 너무 넘치게도 아닌 너무 부족하게도 아닌 아주 조금은 부족하게 하시고 주님께 감사하며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시작한답니다.

하느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아멘.

고통 속에서 만난 하느님



이명진(연희마리아)
이러닝 3학년

신앙의 조상인 아브라함, 이사악, 야곱, 요셉 중에서 가장 인간적인 삶을 살았고, 하느님과 가장 인간적으로 소통한 야곱의 삶이 나에게 와닿았다.

야곱은 형 에사우의 권리를 시기 질투하여 불공평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가로채고, 이사악의 축복을 받기 위하여 거짓으로 아버지를 속이면서 험난한 인생역정을 시작한다. 에사우를 피해 외삼촌 라반에게 가있는 동안 사랑하는 어머니와 이별하고 다시는 만나지 못하며, 이후 사랑하는 아들 요셉과도 오랫동안 이별하는 아픔을 안고 살아간다. 외삼촌 라반의 속임수로 라헬을 얻기 위하여 14년 동안이나 인내하는 삶을 살기도 한다.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 형 에사우를 만나야 할 때 두려움에 떨며 형의 마음을 풀기 위하여 선물 공세를 펴는 작전을 세우고, 하느님과 동이 틀 때까지 씨름하여 이스라엘이라는 이름과 축복을 얻어내는 용기와 끈기를 보여준다.

이렇듯 야곱의 신앙 여정은 파란만장하다. 둘째라는 자신의 운명을 순순히 받아들였다면 본인의 기본적인 천성대로 온순한 삶을 살았을 것이다. 그러나 온순한 삶 속에는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에너지가 없다.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권리를 부러워하고 그것을 가지고 싶어 하는 인간적인 본능과 많은 자식 중에 유독 요셉을 편애하는 마음을 조절하지 못하여 시련과 고통 속에서 삶을 살아가지만, 이 모든 여정이 야곱을 영적으로 성장시키고 싶어 한 하느

님의 구원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하느님의 섭리였다. 야곱의 삶 속에 어려움과 두려움이 없었다면 하느님을 간절히 찾고 하느님께 끝까지 매달리면서 기도하는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하지 못했을 것이다.

하느님은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니 우리에게 편안한 삶을 주시면 참 좋을 텐데 늘 하느님께로 우리를 이끄시기 위해서 시련과 역경과 고통을 주신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발전하고 영적으로 성숙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한 모양이다. 늘 시련과 역경과 고통은 힘들고 싫지만 지나고 보면 이런 것들이 양념이 되어 하느님과의 관계가 더 돈독해졌고 내가 좀 더 발전된 모습으로 거듭났던 것 같다. 인간은 편안하면 하느님을 잊고 지내기 쉽다. 힘든 일이 생겨야 하느님을 찾고 기도하고 매달리는 것 같다.

나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우연히 미션고등학교를 가면서 하느님을 알게 되었고, 시험을 잘 보기 위해 성경을 읽었다. 3년 동안 학교의 강압으로 억지로 교회라는 곳도 가보게 되었고, 하느님의 정서가 알게 모르게 몸과 마음에 뻗었다. 순하게 하느님의 손을 잡았으면 좋았을 텐데, 하느님보다는 인간 관계에 더 많이 의존했고, 하느님 없이도 내 인생이 잘될 것이라는 교만함 속에 살다가 한 대 퍽 맞고 쓰러져서야 일어서기 위해 하느님을 다시 찾았다. 그때 열심히 하느님의 품 안에서 순종하며 살았더라면 내 삶이 지금과 어떻게 달라졌을까 궁금하기도 하다. 그때는 젊다는 이유로 하느님의 힘보다는 내 힘으로 내가 처한 상황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 교만을 떨며 하느님에게서 다시 멀어졌다.

결혼에 실패했다. 아이와 헤어졌다. 처음에는 이런 나의 상황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괴로웠다. 하느님 없이도 껍이나 잘난 척하며 살던 내가 인생에서 이런 오점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 자존심 상했고 남들이 알까 봐 창피했다. 아이와 드문 드문 만나면서 아이의 상처도 보게 되어 마음이 괴로워 살 수가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나는 하느님을 찾기보다는 공부를 택했다. 박사과정에 진학하여 정신없이 살면서 괴로움을 잊고 현실을 회피했다. 그런다고 문제 해결이 되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늘 마음의 상처와 괴로움은 나를 괴롭혔지만 나는 야곱처럼 적극적으로 하느님과 씨름하지 않고 하느님께 매달리지도 않고 현실을 외면했다. 그때 내

가 냉담하지 않고 열심히 성당을 다니면서 하느님께 매달렸다면 내 삶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궁금하다.

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 올라갈 때 내가 아이를 데려와 키우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엄마와 함께 산다는 기쁨으로 가득 찬 딸과 관계가 좋았는데, 사춘기가 되면서 자신의 처지를 상처로 받아들이면서 반항하기 시작했고 그야말로 또 다른 전쟁이 시작되었다. 아이와의 씨름으로 나는 병을 얻게 되었다. 대학 진학을 한 아이가 병을 얻은 나에게 새로운 자신의 인생 시작에 엄마의 병이 또 다른 상처가 된다는 난리치는 모습을 보이자, 하느님에게 의지하지 않고 자식에게 의지하려 한 나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졌다.

냉담한 지 17년 만에 나는 큰 용기를 내어 회심했다. 처음 회심했을 때 성당을 열심히 다녔다. 처음으로 하느님을 믿는 것이 이렇게 힘든 일이라는 것을 몸으로 체험했다. 그러나 몸은 바뻐지만 영적인 성찰의 시간이 없었던 탓인지 신앙의 발전이 없었다. 그래도 교회의 이런저런 모습을 경험하게 되면서 나를 깨달은 것은 많았다. 그중 하나가 하느님을 좀 더 알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막연하게 알고 있던 하느님, 타인을 통해 얻게 되는 하느님의 모습보다는 나 스스로 하느님을 좀 더 알고 찾아야 한다는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다. 그래서 성경공부를 시작했다. 속을 썩이던 딸도 대학 3학년이 되면서 철들기 시작해서 지금은 하느님의 딸 나탈리아가 되었다. 하느님께 순종하고 의지하려 노력하고 있다. 내가 가끔 성경을 읽으라 그래야 신앙이 발전된다는 어설픈 조언을 하고 있지만 아직은 마음에 와 닿지 않는지 적극적이지 않다. 때가 되면 점점 하느님의 품속에서 신앙적으로 성숙한 삶을 살아갈 것이라 생각한다. 나의 인간적인 욕심으로는 순하게 하느님의 품속에서 평생 살아갔으면 좋겠지만 하느님이 나탈리아를 위해 마련하신 섭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만 열심히 할 따름이다.

나는 요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는다. 기본적인 의무인 미사도 가끔 빠질 때가 있다. 갱년기가 와서인지 몸도 좀 아프고, 열정이 식었는지 신앙생활뿐 아니라 내 생활이 좀 심드렁하다. 그래도 아침에 일어나면 「야곱의 우물」을 펴고 아침 시작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성경을 읽고, 묵주기도를 하고, 저녁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하려고 노력한다. 하루 세 끼 밥을 먹는 것이 습관화되듯 영적인 생활이 습관처럼 몸에 배도록 노력하고 있는 중이다. 때때로 안 될 때도 있지만 말이다. 신앙의 영적 성숙의 길은 험난하고 먼 것 같다. 오십 중반의 나이에 야곱처럼 하느님과 동이 틀 때까지 씨름하며 하느님의 현존을 체험하려니 힘이 달리고 두렵기까지 하다. 현실은 아직까지 크고 작은 시련과 역경으로 나를 고통으로 이끌고 있다.

몇 년 전 나는 고통 리스트를 만들었다.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 생기면 기록했다. 이 고통들이 미래에 나를 어떤 상황으로 이끄는지 확인하고 싶었다. 고통스러울 때는 하느님이 원망스러웠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 고통이 나의 상황을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었다는 것을 느꼈다. 그러나 아직도 삶의 시련과 역경은 선천적으로 예민하고 나약하게 태어난 나에게 고통스럽고 힘들다. 물론 하느님을 찾고 매달리고 하느님과 소통하는 시간은 많아지고 영적으로 성숙되는 것은 느낀다. 아픈 만큼 성숙된다고는 하지만 기왕이면 아프지 않고 성숙되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인간적인 생각이 앞서기도 한다. 하느님은 이겨낼 수 있을 만큼의 고통을 주신다고 하지만 야곱만큼 강인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끔은 시험에 들기도 한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시험에 들고 싶지 않다. 하느님께 순종하며 살고 싶다. 27살에 세례를 받았고 17년 동안 냉담했다. 나의 신앙여정 속에서 하느님과 소통한 시간보다는 나 혼자, 때로는 사람들과 소통한 시간이 더 많았다. 결과적으로 나는 이제 나이 들고 병들고 약해졌고, 여태 삶을 살며 알고 지내던 사람들은 이런저런 이유로 각자의 삶을 살며 나와 소원해졌고 소원해지고 있는 중이다. 이제 나의 옆에는 하느님과 나탈리아밖에 남지 않았다. 내 딸 나탈리아도 가까운 날 자기의 삶을 찾아 떠날 것이고... 그러면 정말 내 옆에는 하느님밖에 없다. 그러나 나는 아직 하느님과 혼연일체가 된 듯 친하지 않다.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늘어나고 있지만 하느님의 현존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좀 더 노력이 필요하다. 하느님이 이끄시는 섭리에 나를 온전히 맡기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육체적으로 좀 건강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교회활동도 열심히 하고, 기도생활도 열심히 하고, 미사도 열심히 드리고, 봉사도 열심히 할 수

있을 텐데 말이다.

성령님, 오소서. 나를 이끌어 주소서. 하느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고 영성적인 생활이 습관될 수 있게 해주시고, 일상생활 속에서 하느님의 현존을 늘 체험하고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이끌어 주소서. 아멘.

“그분께서는 나에게 직무를 맡기셨습니다”(1티모 1,12)

양마리아
이러닝 6학년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치르면서 늘 마주하게 되는 마지막 문제-묵상문제. 이번에도 고민과 걱정과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좀 다른 차원에서 고민이고 생각이었다. 내가 하느님께 받은 은총이라는 것에 대해 많이 감사를 드렸고 은총 덕분에 이렇게 내가 존재한다는 생각도 자주 했는데 막상 이것을 글로 표현하려 하니 막막함 그 자체였다.

사실 나는 많은 은총을 받았음을 이미 알고 감사하였다. 지금껏 살아온 시간들 속에서 누누이 표현하면서 산 것 같다. 나의 노력보다는 그분께서 무상으로 나에게 주신 것 덕분이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인 듯하다.

지금껏 살면서 나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힘든 시간도 많이 보냈다. 어려서는 아버지의 중풍, 성장해서 직장생활을 시작하면서는 동생의 병마, 그리고 더 나이

들어서는 어머니의 노환 등등. 다른 형제들이 여럿 있었지만 어려서부터 이것은 나의 몫이었다. 그냥 숙명처럼 내가 해야만 하는 것이었다. 그 속에서 나는 별로 고통의 무게를 못 느끼고 지낸 것 같다. 그냥 해야만 하니까, 나밖에 없으니까, 라고 생각했다. 지금 이렇게 다 지나고 보니 마치 긴 꿈을 꾸 듯하다. 다시 하라면 못 하겠다는 생각이 든다. 어떻게 했지? 내가 그것을...? 그런데 요즘 유치원 서무 일을 하며 양호실에 오는 원아들을 돌보면서 알았다. 아! 이거였구나. 하느님께서서는 나를 이렇게 쓰시려고 그렇게 나를 훈련시키셨구나! 사실 지난 시간 생각하면 아프고 병든 사람을 돌본다는 것은 지겨운 일일 텐데 더 마음을 다해 정성을 들이는 나를 보게 된다. 그리고 별로 힘들다고 느끼지도 않는다. 물론 원아들이 중병이 있어서 오는 것은 아니지만, 그저 감기나 배가 아프거나 가벼운 찰과상 정도이지만 마치 아버지나 동생, 어머니한테 했던 것처럼 그냥 자연스럽게 기쁜 마음으로 기꺼이 하는 나를 보게 된다.

그렇다. 그분께서 나에게 주신 것은 누구보다도 따뜻한 맘이었다. 물론 그것을 확인하는 시간은 아주 많았다. 집안이 별로 넉넉지 못한 상황에서 학업을 할 때 난 선생님들에게 이상하리만큼 사랑을 받았다. 다른 아이들은 육성회비를 못 내면 교무실에 불려가기가 일쑤였는데 난 늘 예외의 대상이었고 내가 우울해하고 의기소침해 할까 봐 선생님들은 나를 따로 불러서 오히려 위로해 주시곤 했다. 이런 일들은 지금껏 많은 어려운 상황에서 자주 재현되었다. 이것을 느끼고 감사하고 살았기에 난 타인의 아픔에 쉽게 동화되고 타인을 돕는 것을 너무도 자연스럽게 할 수 있었다. 마치 나의 일인 양... 그런데 요즘 이런 내 마음에 브레이크가 걸렸다. 정말 내 일처럼 내 맘처럼 생각하고 했던 것이 이용당한 기분, 배신당한 기분이 들어 나를 슬프게 한다. 맘의 문을 꽂꽂 닫고 있는 상태다. 무엇이 문제일까? 엄마나 동생이 아닌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난 그분이 주신 은총을 어떻게 살 것인가가 문제다. 특히 이제껏 오랜 시간 지내온 지인들에 대해 닫히는 맘은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지나치게 상대를 배려하고 챙기고 살핀 탓일까? 맘이 몹시 무겁다. 그리고 요즘은 그분께 받은 은총이 버겁게까지 느껴진다.

오늘도(4월 29일) 맘이 안 잡혀 미사 참례도 하고 시내도 쏘다니면서 맘을 정리

하러 했다. 늦은 시간 이렇게 글을 쓰면서 차츰차츰 정리가 되는 기분이다. 그분께서 나에게 타인을 배려하고 아끼고 사랑하고 살피는 맘을 주심은 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다. 물론 그런 맘으로 하지는 않았지만 지인들에게서 오는 언짢은 감정들이 나를 우울하게 하고 슬프게 했던 것은 사실이기에... 이제는 좋은 감정도 좋은 에너지도 아끼는 맘도 사랑하는 맘도 배려하는 맘도 나의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분께서 주신 맘들이니 제대로 그분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야겠다. 어쩌면 이전 지나친 오지랖을 거두어야 하지 않을까? 아마도 이번에 이렇게 우울했던 것은 내가 지나친 오지랖으로 마치 내가 하느님인 양 행세했던 결과이리라.

나이를 먹고 보니 내 맘대로 그분의 뜻을 사는 것이 아니라(세상의 나이로 행세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뜻을 더 신중히 살아야 함을 새삼 느낀다. 그럴 때 나에게서 나오는 배려나 사랑이나 염려가 단 10퍼센트라도 그분께서 주신 은총의 삶을 제대로 사는 모습이 되리라. 그러기에 앞으로는 “그분은 커지셔야 하고 나는 작아져야 한다”(요한 3,30)는 세례자 요한의 말을 되새기면서 살아야겠다. 이번 기회에 그냥 지금껏 ‘내 맘 같겠지’ 하고 했던 지난 시간의 나의 모습을 성찰하고 다시 그분 앞에 서서 차분히 매일의 일상을 살아내야겠다. 어쩌면 필요 이상으로 사용했던 나의 에너지가 이제는 다스려지는 계기가 되리라. 아프고 슬펐지만, 분노로 맘을 까맣게 태웠지만, 이렇게 묵상문제를 풀면서 다시 그분의 은총 안에서 새롭게 나의 삶의 터전을 마련한다.

좀 더 침묵하고 좀 더 잘 경청하자.

우리는 통서가족이에요!

Q. 통서가족은 어떤 모임인가요?

- A. 통신성서 재학생과 휴학생 그리고 졸업생을 위한 모임입니다.
(우편 성경공부든 이러닝 성경공부든 상관없이 모두 모두 환영!)

Q. 어떻게 가입하나요?

- A. 온라인 카페에 가입하시면 됩니다. 가입 후 회원들의 자유로운 글과 교구별 활동 이야기들을 나누며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카페 '말씀으로 하나 되어' cafe.daum.net/junim510)

Q. 어떤 활동을 합니까?

- A. 통서가족을 위한 기도, 교구·지구별 매월 말씀 모임,
통서가족 전체 모임, 소그룹 산행 모임, 신입생 모집 활동,
온라인 카페 모임 등등

Q. 통서가족을 한마디로 말하면?

- A. 말씀으로 하나 된 끈끈한 가족! (여러분, 함께해요!)

통서가족, 2017년 이런 일을 했어요~~

1) 2016년 11월 4일 광주교구 모임

2016년 11월 4일 화순 베네딕도수도원에서 광주 통서가족 월모임을 했습니다. 이날 모임에는 전국 회장단도 참석하여 광주모임을 응원하고 친교를 나누었습니다.



2) 2017년 2월 11일 수원교구(동수원) 모임

2017년 2월 11일(토) 마태오성당 교육관에서 오후 5시에 통서가족 모임을 했습니다. 혹한의 날씨에도 참석하여 통서가족의 열정을 전해주시는 교장 수녀님, 담당 수녀님께 감사드립니다. 동문 회장님과 홍보님도 함께해주셔서 그 어느 때보다도 활기차고 화기애애하게 모임을 했습니다. 동수원 통서가족 모임의 역사가 상당히 오래되었다는 말씀에 모인 분들이 감탄했습니다.



3) 2017년 2월 제주교구 모임

2017년 제주 통서가족 월모임은 동문회 임원들과 함께했습니다. 풍부한 말씀나눔과 아름다운 제주 성지순례를 함께할 수 있던 은총의 시간이었습니다. 모두 행복해하는 모습이 사진에 그대로 드러나 있네요. 말씀가족이 누리는 축복입니다.



4) 2017년 3월 10일 수원교구(서수원) 모임

“저희를 변화시키시는 성령님, 오소서. 타보르산에서 영광스럽게 변모하신 아드님처럼 말씀의 동산에 오르려는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소서. 아멘.” 예수님 변모를 묵상하면서 우리도 변화하고 성장하기 위해 사순절 동안 기도와 단식과 봉사를 통해 아름답게 빛나는 예수님을 닮기를 바랍니다. 평택성당에서 가진 서수원 통서가족 모임, 참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김상경 안드레아 회장님과 모든 분들, 홍일점 이영미 소화 데레사 자매님께 감사드리며, 계속 서수원 통서가족 화이팅을 빕니다!!!



5) 2017년 3월 안동교구 모임

바오로딸 통신성서교육원에서 안동교구 통신성서 모임이 잘 진행되도록 기도를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전해 듣고 너무 감사하고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동안의 걱정이 이제는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저희 모임이 더 잘 이루어지도록 루치아나 수녀님을 보내주셔서 더욱 감사합니다.

오늘 모임에는 수녀님을 포함하여 12명이 모였습니다. 어느 분이 강력한 힘에 이끌려 참석했다고 참석 동기를 발표하셨습니다. 그 힘은 바로 주님에게서 온 것임을 다들 느꼈습니다. 앞으로 모임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기도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매월 소식 올리겠습니다.



6) 2017년 5월 27일 마산교구 모임



- 일시: 5월 27일 토요일 오후 4시~28일 주일 미사 후 점심식사까지
- 장소: 경남 남해군 미조면 천하몽돌 펜션
- 참석인원: 마산교구 통서가족 12명과 회장단 임원 3명, 춘천교구 1명, 대전교구 2명, 광주교구 2명, 부산교구 2명, 제주교구 3명, 교육원 수녀 2명(총 27명)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주일복음 묵상 나눔을 하고 친교시간을 갖던 마산교구 지역 월모임을 이번 5월에는 전국회장단도 초대하여 함께하였습니다.

토요일 오후 전체 인사소개 후, 주일복음 묵상 나눔과 복음에 관련된 체험 나눔은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저녁식사에 이어서 친교시간에는 밤하늘을 불꽃으로 수놓은 폭죽놀이로 맘껏 즐거움을 누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몽돌해변과 산으로 산책을 다녀온 후 남해성당에서 주님 승천 대축일 미사를 봉헌하였습니다. 미사 중에 주임 신부님께서 통서가족 27명 전원을 제단으로 부르시고는 각자 자신을 소개하라고 하셨습니다. 알고 보니 신학생 때 평가자 봉사를 하신 신부님이셨습니다. 언제나 말씀으로 하나 되는 통서가족이 되도록 모두가 함께 기도하며 아쉬운 작별의 시간으로 모임을 마쳤습니다.

몽돌펜션을 제공해 주신 잼마 자매님, 행사에 필요한 간식과 음료수를 제공해주신 동문회 회장님과 제주교구 회장님, 폭죽을 준비해 오신 총무님 등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여기 거제지역 통서가족으로 함께하신 형제자매님들 모두가(특히 올해 입학한 세 부부) 얼마나 준비를 미리미리 열심히 하시던지, 그렇게 전원 함께 열심히 봉사하시는 모습이 지금도 감동으로 진하게 남아있습니다. 멀리서 남도의 섬까지 비행기로도 오시고 자동차로도 하루 종일 달려오셨지요. 함께해 주신 모든 분께 큰 감사 인사 드립니다. 마산교구에서의 이번 통서가족 모임이 부족함이 많았는데도 주님께서 함께하셔서 우리 모두에게 은총과 축복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은총과 축복, 평화가 통서가족 모든 분께 내리길 빕니다.

마산교구 회장 이강현 요한

두근두근, 첫 만남

교육원에서는 말씀을 공부하시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하고자 2017년 3월 4일 처음으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마련하였습니다.

“구약성경, 오늘도 공부해야 하나요?”라는 주제로 송미경 베로니카 수녀님(성바오로딸수도회)의 강의와, 학교와 공부에 대해 궁금한 점을 알아보는 질의응답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룹 나눔과 간식으로 친교도 나누었습니다. 참석하신 분들이 학교에 대한 친근감과 소속감, 연대감을 느낄 수 있는 좋은 기회였기를 바랍니다.

두근두근, 그 첫 만남의 순간들을 사진으로 만나볼까요?





성경공부를 끝까지 마칠 수 있도록 하느님께 바치는
구약입문 신입생들의 기도와 결심

사랑이신 하느님! 저를 은총의 말씀 세계로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3월 4일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했을 때 당신께서 저를 잊지 않고 살피주시고 넘치게 아껴주시는 마음을 느꼈습니다. 모자라고 어설피지만 당신께서 저를 만드신, 있는 그대로의 제 모습을 인정하고 잘 가꾸어 나가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성경공부를 하는 동안 찾아오는 고비들을 잘 버텨내고 진실된 말씀의 참맛을 알게 해주세요. 당신은 제가 앞으로 가야 할 쉽지 않을 길에 새겨야 할 말씀 하나를 주셨습니다.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다.”(마태 13,44)

제가 키를 낮춰 광활하고 끝도 없어 보이는 밭에서 당신의 진리를 찾아내는 데 지치더라도, 그 과정에서 만나게 되는 수많은 사건, 사람들, 풍경 안에 당신이 함께해 주심을 알게 해주시고 힘을 낼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즐거운 마음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연정(요셉피나)

세속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하느님과 만나는 시간을 가지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아직 비정규직으로서 열심히 살아야 하는데 괜히 성경공부를 신청한 것은 아닐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공부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닐까 계속 의구심과 두려움이 듭니다. 하지만 청년 성서 모임에서 탈출기 그룹 봉사를 하면서 하느님의 말씀을 통해 많은 힘을 얻고 신앙적 성숙을 이룬 기억을 떠올립니다.

현재 저는 광야에 선 인간이지만 하느님께서 분명 돌봐주고 계시다는 것은 깨달아 알고 있습니다.

이제 지나긴 6년간의 여정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 기간 동안 항상 제 곁에 계

셔주시어 무사히 하느님을 향한 여정을 끝낼 수 있도록 지켜주세요. 무엇보다 하
느님의 말씀을 통해 세상을 살아가는 힘을 얻게 해주세요. 아멘.

장수현(그라시아노)

좋은신 아빠, 아버지 하느님! 찬미받으소서!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은총에 감사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늘 “말씀과 성체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이라고 되뇌면서도 정작
‘말씀’에 가까이 다가가려는 노력은 하지 않았음을 깨닫고 반성합니다. 이번에 처
음으로 성경공부를 시작하게 된 계기도 어떻게 보면 가족들의 성경공부에 대해
고민하다가 통신성서를 알게 된 데에 있습니다.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언
제 어디서든 공부할 수 있는 통신성서를 가족들에게 권하여 등록 절차를 밟아가
다가 저도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든 것입니다. 그 이끄심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미뤄오던 성경공부를 ‘올해’ 시작할 수 있게 된 건 하느님의
섭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재를 읽어 내려가면서 계속 밑줄을 그으며 주님과 대화를 하다 보면 어느샌
가 제 곁에 주님께서 함께 계시고 마치 선생님처럼 제 모습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느낌(!)에, 생각과 마음가짐, 자세를 바로 하게 되는, 긴장감 + 두려움 + 감사함
+ 기쁨 + 충만함..., 인간의 빈약한 언어로는 표현조차 하기 어려운 그런 느낌이
차올랐습니다.

주님, 첫걸음을 땀 때부터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늘 새롭게
함께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을 더 잘 알고 주님 뜻을 잘 알아들을 수 있도
록 제 마음과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주님의 가르침을 실
천할 수 있도록 용기와 지혜를 주소서. 한 걸음 한 걸음 꾸준히 걸어 주님께 다다
르게 하시고, 주님께 찬미와 영광이 되는 길로 저를 이끌어 주소서. 아멘!

이수형(모나)

하느님 나라를 희망하는 이들의 성찬례*

—성찬례의 종말론적 접근—

이빛나라(세쿰디나) 수녀
성바오로딸수도회

들어가는 말

그리스도인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신앙의 정식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들이다. ‘그리스도인 되기’는 종교적 의무와 계명을 지키기에 앞서 이 신앙의 정식을 자기 신원으로 삼는 것이 우선적으로 요구된다. 그러나 가시적인 지표가 중시되는 물질문명 속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기초하여 희로애락을 관철하며 살아가기란 그리스도인에게 도전이며 시대착오처럼 여겨지기도 한다. 본고는 잃어버린 낙원과 전인적인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찾으려 하기보다 과학의 이기(利器)에서 구하려는 현시대에 예로부터 인류가 희원해 온 하느님 나라를 재고하고자 한다. 나아가 지상의 나그네인 하느님 백성에게 천상 혼인잔치의 기쁨을 미리 맛보게 하고, 하느님 나라의 완성에 지치는 일 없이 이르도록 마련된 성찬례의 종말론적 의미를 되새겨볼 것이다.

하느님의 백성으로 선택받고 하느님의 계명을 받은 이스라엘은 하느님께서 부재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고난의 역사를 체험하면서 종말(escaton, ἔσχατον)을 낙원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묘사했다. 그들이 뜻하는 종말은 미래에 있을 단절이나 종결이 아니라 세상의 끝을 진술하는 것으로서 세상의 시작을 여는 창조의 연장선

* 지면 관계상 각주와 참고문헌을 생략합니다.

에서 창조사회와 유사성을 보여준다. 종말에 관한 성경의 진술들에는 모든 창조의 미래이며 최종 목표이신 하느님께서 전역사(全歷史)를 선한 목표로 인도해 가신다는 것이 희망의 비유로 표현되어 있다. 따라서 종말은 세상과 인간을 보시기 좋게 창조하신 하느님께서 인류의 변천을 총괄하여 보시기 좋게 완성하시는 최종 미래인 것이다.

예수는 최종 미래로 열린 하느님 나라를 복음 선포의 핵심 주제로 삼았다. 민족적 해방을 가져다줄 메시아 대망의 분위기에서 예수는 하느님 나라가 ‘지금 여기에’ 도래했음을 선포하면서 새로움을 부여한다. 예수는 미미한 일상에 숨겨진 하느님 나라의 신비를 밝혀주고, 하느님 나라를 가난한 이들의 몫으로 돌렸으며, 죄인들과 나누는 식탁 공동체로 하느님 나라가 이미 도래한 구원의 실재임을 몸소 보였다. 그러나 예수의 선포와 표징이 모든 이를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지는 못하였다.

하느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영광의 때, 곧 십자가 죽음이 임박해 오자 예수는 제자들과 최후만찬을 갖는다. 이별의 식사에서 자신의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며 자신이 흘리는 대속의 피로 천상 잔치가 마련될 것이라는 종말론적 예고를 남긴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 예식을 기념하게 하여 자신의 몸과 피로 변한 빵과 포도주를 취함으로써 그들을 하느님 나라에 마련된 새로운 파스카에 미리 참여시킨다.

예수의 부활을 체험한 예루살렘 공동체는 최후만찬을 기념하며 성찬례를 거행했다.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때를 기다리며 정치적·종교적 박해를 견디어 내었다. ‘마라나타!’, 이 외침에는 천상 혼인잔치를 고대하며 현실의 어려움을 신앙으로 꿋꿋이 받아 안은 종말론적 공동체의 염원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이 빵조각이 산들 위에 흩어졌다가 모여 하나가 된 것처럼, 당신 교회도 땅끝들에서부터 당신 나라로 모여들게 하소서.” 디다케(9,4)의 기도에서 드러나듯이 하느님 나라에서 완성될 구원에 대한 간절한 기대는 초대교회의 성찬례의 기본적인 태도였다. 그들은 예수의 말씀으로 축성된 빵과 포도주, 곧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며,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친교를 나누는 천상 잔치의 분명한 예표로서 성찬례를 거행했다.

그리스도교의 유일회적 시간관에서 지상 순례는 그리스도인에게 하느님의 뜻에 따라 궁극적인 운명을 결정하도록 유보된 시간이자 죽음 후에 최종적으로 완성될 구원이나 멸망을 갈음하는 긴박한 시간이기도 하다. 순례하는 하느님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서 드러난 하느님의 사랑에서 존재의 의미를 발견하고, “기쁨을 나누는 사람, 아름다운 전망을 보여주는 사람, 그리고 풍요로운 잔치에 다른 이들을 초대하는 사람”으로서 지상에서 하느님 나라가 구현되고 있음을 전하라는 축구를 받는다.

예수의 빵을 쪼개는 모습으로 시작한 성찬례는 여러 가지 명칭으로 불리는 바 인간의 다각적인 삶을 반영한다. 그리스도의 부활로 체현된 하느님 나라를 이미 살아가고, 그리스도의 환난에서 모자란 부분을 사랑의 계명으로 채워(골로 1,24) 하느님 나라의 참여를 준비하는 그리스도인에게 성찬례는 ‘이미’와 ‘아직 아니’의 간극을 메워준다. 거양되는 성체와 성혈에서 최종 희망인 지복직관의 순간을 부분적으로나마 맛보게 하고, 실체가 변화된 빵과 포도주에 현존하시는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게 하는 성찬례는 실로 ‘하느님께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생명의 샘에서 솟는 물을 먹이는’ 천상 예루살렘의 혼인잔치인 것이다. 그리스도인이 기쁨과 긴장이 감도는 성찬례를 생생하게 거행한다면 순례의 길에 찾아드는 피로와 유혹을 이겨내고, ‘보이지 않는 것’을 희망하며 완성을 향해 나아갈 힘을 얻게 될 것이다.

본고는 1장에서 그리스도인의 희망인 하느님 나라의 의미를 성경을 바탕으로 시대별로 알아보고, 구체적으로 하느님 나라가 어떻게 실현되는지 2장에서 루카 복음의 최후만찬기를 통해 살펴볼 것이다. 마지막 장에서는 가시적이고 과학적으로 입증 가능한 것에 열광하는 오늘날 성찬례의 종말론적 의미를 재고해 봄으로써 하느님 나라를 향해 순례하는 교회의 모습을 재조명해 보고자 한다.

1. 하느님 나라에 대한 이해

하느님 나라는 시대를 초월하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잣대요, 희망의 요체(要諦)이다. 예수가 선교 사명으로 삼은 하느님 나라는 마르틴 부버(Martin Buber)가 “모든 것들을 포괄하는 하느님 나라에 대한 이해가 곧 이스라엘의 시작(Proton)이자 마지막(Eschaton)”이라고 말한 바와 같이 구약의 하느님 백성에게 익숙한 개념이었다. 이스라엘은 역사적 불운을 하느님의 통치와 구원에 대한 희망으로 견디어 내면서 하느님 나라가 임하게 될 때 인간 상호 간에, 그리고 전 우주 안에 종말론적 평화가 실현되리라 기대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예수는 이스라엘의 요원(遠邊)한 하느님 나라를 만민 구원의 실체로 선포한 것이다. 본 장에서는 성경을 바탕으로 구약시대에서 신약시대에 이르기까지 하느님 나라에 대한 이해를 알아보고자 한다.

1.1. 구약시대

구약성경에서 종말론적인 왕국에 대한 기대는 하느님께서 사람들과 항구하고 굳건한 관계를 맺으시리라는 희망의 형태로 나타난다. 이러한 하느님의 주도권은 히브리어 ‘말쿠트(malkut, מלכות)’라는 단어로 집약된다. 구약성경에 ‘하느님 나라’라는 뚜렷한 표현은 없지만 ‘나라, 왕국’을 뜻하는 말쿠트가 사용된다. 말쿠트는 정치적·공간적인 영토를 가리키는 정적인 개념보다는 통치권, 다스림, 왕권을 의미하는 역동적인 개념이다. 말쿠트의 표상에는 하느님의 역사적 통치에 대한 회상과 신뢰 그리고 온 세상 만물이 하느님의 통치를 받고 하느님을 찬양하게 될 보편적 통치에 대한 기대가 서로 결합되어 있다. 이 개념은 모세의 찬미가(탈출 15,18; 신명 33,5)에 처음 제시되며,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누리를 주재하는 왕을 표현한다.(시편 47장) 유배 이후 이스라엘이 ‘하느님 숭배 공동체’가 되면서 하느님 나라는 우주 전체에 미치는 개념을 표시하게 되었다. 이스라엘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위엄을 지니신 왕이신 하느님, 이스라엘의 적들과 싸워 승리하시는 하느님에게

두면서 하느님께서 그들의 왕으로 임재하심을 명시했다. 그러므로 하느님 나라는 하느님의 통치이자 구원에 대한 개념을 총괄하며 인간 상호 간에, 그리고 전 우주 안에 종말론적 평화가 실현되리라는 희망을 내포한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정착 이후 하느님의 통치를 표현하기 위해 하느님을 임금으로 묘사하였다.(판관 8,23; 1사무 8,7) 이들은 하느님의 백성으로서 역사 안에서 하느님의 전능한 활동을 증거하고, 역사와 민족들 안에서 하느님 주권에 대한 신앙을 발전시켜 나갔다. ‘모세의 노래’에서 홍해를 건넌 사건은 하느님의 왕다운 개입으로 묘사된다.(탈출 15,11-13,18) 하느님은 계약의 궤를 모신 성소에서 왕적 구원의 실재를 영구적이고 가시적으로 드러내신다.(탈출 25,8; 40,34-35) 이 성소는 영광의 하느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머무신다는 표지이며 그분의 왕권이 이스라엘을 넘어 우주와 모든 민족들에게 두루 미치고 있음을 드러낸다.(시편 93,1 이하) 하느님 나라의 형성과 그 나라의 구성원이 되기 위한 조건이 탈출 19,5-6에 제시된다. 시나이 계약으로 하느님의 소유가 된 이스라엘 자손은 계약조항을 생활화하고 하느님께 순종할 때에만 사제의 나라에서 그분의 절대적 소유가 되어 전능하신 분께 속하게 된다.(신명 26,18-19)

이스라엘은 다윗 왕조의 분열과 패망, 바빌로니아 유배를 겪으면서 하느님의 약속과 승리를 강렬하게 희망했다. 예언자들은 하느님 다스림을 전제로 하여 하느님께서 계약에 불충실한 이스라엘에게 힘겨운 시련의 처벌을 내리시지만 반드시 구원해 주시리라는 희망을 밝혀주었다. 예언서에는 이스라엘의 종말에 펼쳐질 하느님 나라에 대한 열망이 미래의 이미지로 묘사되어 있다.

‘주님의 날’은 하느님의 다스림이 심판과 구원의 양상으로 드러날 것임을 표현한다.(예제 39,1-7,21; 이사 24,21-23 참조) 예언자들은 하느님을 이스라엘의 힘겨운 시기에 당신 백성을 인도하고 보호하는 이상적 목자상(牧者像)으로 소개했다.(미카 2,21; 4,7; 7,14 이하; 예레 23,1-4; 예제 34장 이하) 만백성이 주님의 산으로 오르는 순례행렬은 구원의 보편성을 보여준다.(미카 4,1-4; 이사 2,2-4) 하느님께서 온 세상의 왕으로서 시온산에 오르실 것이고, 만백성은 종말론적 하느님 나라의 평화로움을

누리게 될 것이며 천국의 낙원이 이 땅에 전개될 것이다.(이사 9,6-9; 35,1-10 참조)

예언자들이 새롭게 소개한 하느님 나라는 하느님 잔치의 영광스러운 모습에 연결된다.(이사 25,6-9) 하느님과 함께하는 식탁에서 하느님 백성은 하느님 안에서 화해하고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된다.

예언자들은 다윗 왕조에서 나오는 이상적인 왕권 위임자에 대한 희망을 소개한다.(아모 9,11; 미카 5,1; 예레 23,5 참조) 이사야는 다윗 왕조와 관련하여 일찍이 예언된 위대한 아기가 다윗 왕좌에 앉게 될 것이고, 그의 나라는 법과 정의로 유지될 것이라는 희망을 전한다.(이사 9,6-7;11,1)

1.2. 후기 유다이즘 시대

후기 유다이즘에서 ‘하느님 나라’는 메시아 대망과 더불어 우주적이고 종말론적 차원으로 표현된다. 곧 하느님의 다스림은 이스라엘의 국수적이고 정치적인 하느님의 통치 개념과 묵시적 요소가 결합되어 전 우주에 미치게 될 것이며 불의와 악이 지배하는 지상과 구별되어 미래에 도래할 세상으로 이해되었다.

불운과 붕괴에 직면한 이스라엘에서는 정치적·군사적인 힘으로 메시아적 지상 왕국을 찾으려는 민족주의 운동이 일어났다. 곧 하느님께서 메시아 왕으로 ‘다윗의 아들’을 파견하시어 이스라엘을 재건하실 것이고 옛 영광을 되찾은 이스라엘은 유일하신 하느님께 경배를 드리고 율법을 준수하는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당대 주류를 이룬 묵시문학은 하느님 나라에 대한 상반된 개념을 보여준다. 이스라엘의 적들이 패망함으로써 평화가 오고 풍족한 재화, 비옥한 땅, 자손의 번성과 장수가 보장된다는 현세적이고 정치적인 메시아 왕국 개념이 생겨났다. 마카베오기에서 다윗 왕조를 무너뜨린 이스라엘의 적과 맞서 싸우기 위해 군사적 조직으로 무장하여 무력으로 나라를 일으켜야 한다는 사상을 엿볼 수 있다. 솔로몬 시편과 쿰란 전쟁 규칙서 등 고대 유다이즘의 문학작품도 메시아 왕국을 무력과 무기를 앞세운 정치적 개념으로 묘사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선택된 백성의

영성적 운동의 영향으로 왕국의 천상적·초지상적 차원이 강조되었다. 마지막 때에 하느님 나라에서는 충실한 이들에게 정의가 베풀어지겠으나 불경한 이들에게 파멸이 초래되는 새로운 질서로 다스려질 것이다.

최초의 묵시 작품 중 하나인 다니엘서에는 복잡한 심상과 역사의 시대적 구분을 통해 하느님의 약속을 고수하려는 신앙의 노력이 제시된다. 다니엘은 꿈과 현시를 통해, 고통이 절정에 달한 순간에 하느님께서 적들을 물리치고, 그분이 손수 영원히 다스린다는 희망을 내다본다. 이스라엘의 통치권은 “모든 민족들과 나라들,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다니 7,14)을 위한 사람의 아들의 현양으로 수렴된다. 사람의 아들의 도래는 이스라엘과 민족들을 위해 하느님께서 선사하는 인간적인 모습을 지니는 생활 질서의 최종적 도래인 것이다. 다른 하나는 최종적인 구원을 선사하는 사람의 모습을 한 개별자를 의미한다. 이 개별자는 완성된 하느님 나라를 결정적으로 대표하는 예수를 가리키는 표상이 되었다.

구약과 후기 유다이즘 시대의 예언적 희망에서 예수의 하느님 나라에 대한 전망이 가능해진다. 하느님 나라의 도래는 보편적 왕권, 만민이 하느님께 기쁘게 드리는 흠숭, 하느님께 바치는 순종 등 종말론적 구원으로서의 전환이라는 요소들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정화된 하느님 나라의 개념으로 모든 인간과 피조물을 완전히 그리고 실제로 주재하시는 하느님의 종말론적 다스림을 의미한다. 무엇보다 하느님 나라는 메시아를 통해 기대되는 희망의 중심이었고 신약시대에 이르러 예수의 말씀과 활동으로 더욱 구체화될 것이었다.

1.3. 신약시대

1.3.1. 시대적 배경

예수가 공생활을 시작할 무렵 유대인들은 로마식 삶을 강요하고 성전을 약탈하는 로마에 대한 적대감이 극에 달했다. 식민지 전체에 인구 조사령이 내려지자

반란을 감행했는데 하느님의 백성을 헤아리는 것은 “그 백성의 주인이요 임금이신 하느님”께만 유보된 권한이었다. 당시 유다 사회는 정치적으로 통일을 상실한 것과 마찬가지로 정신적·종교적으로 분열되어 있었다. 마카베오 항쟁의 실패로 유대인들은 현실적이고 정치적인 조치가 아니라 하느님의 최종적인 개입에서 오는 최종적인 구원을 대망하며 새로운 시대를 기다렸다.

하느님 나라에 대한 희망은 예수가 활동하기 이전에 이미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다. 첫째, 정치적이고 메시아적인 의미의 하느님 나라가 기대되고 있었다. 하느님 다스림은 다윗 가문의 새로운 영도자를 통해 주어지는, 로마 통치로부터의 해방으로 이해되었다. 특히 열혈당원들은 이러한 기대로 무력투쟁을 전개하였다. 둘째, 라삌들은 하느님 나라를 윤리적인 차원으로 이해했다. 그들에게 다윗왕조의 분열과 멸망에서부터 로마 통치에 이르기까지 이민족의 지배는 이스라엘이 선택된 백성으로서 하느님과 맺은 계약에 불충실한 결과였다. 비록 지금은 하느님 나라가 감추어져 있으나 다시 율법에 충실하게 되면 하느님의 다스림이 새롭게 드러날 것이었다. 따라서 바리사이들은 죄인들이 하느님 나라의 도래를 방해한다고 여기며 율법준수와 윤리적 엄격성을 강조하였다. 셋째, 묵시적 희망이다. 악한 세대는 완전히 전복되어 사라져 버리고, 새롭게 도래할 세상을 하느님 나라로 이해했다. 완전한 전복, 곧 대변화는 하느님만이 이루실 수 있는 것이다. 묵시주의자들은 하느님께 충실히 머물 것을 강요하면서 새로운 시대를 기다리도록 촉구했다.

1.3.2. 예수의 사명인 하느님 나라

‘하느님 나라(βασίλεια τοῦ θεοῦ)’는 예수의 말씀 가운데 중심 주제로 종말론적 메시아 시대를 가리킨다. 하느님 나라는 복음서에 100여 번 나오는데 주로 공관복음에 나타난다. 그뿐 아니라 예수 시대의 세속적 문헌에서는 병행어구를 찾을 수 없을 만큼 독창적인 표현이었다. 이러한 점을 미루어 보아 예수가 구약에서 말쿠트로 통용되던 하느님의 통치 또는 하느님의 권세를 표현하기 위해 하느님 나라라는 새로운 어구를 정립했다고 볼 수 있다. 예수는 하느님 나라를 선포의 중심

주제로 삼아 유례없는 내용을 다양한 말씀의 유형과 맥락으로 구현해 내었다고 볼 수 있다.

“때가 차서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마르 1,15) 마르코는 예수의 공생활 시초에 하느님 나라의 선포를 배치함으로써 하느님 나라가 공생활 전반의 핵심 주제로 전개될 것을 암시했다. 하느님 나라는 세례자 요한에 의해 이미 선포되었고 예수도 그의 종말론적 메시지를 수용했다. 그러나 예수가 고유한 활동을 펴기 시작하면서 하느님 나라에 대한 관점도 상반되게 선포되었다. 세례자 요한의 하느님 나라가 심판의 징표였다면 예수의 하느님 나라는 죄인들에 대한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의 징표였다. 예수의 전면적인 등장으로 하느님 나라는 최종적이며 궁극적인 은총의 선물이 되었고 그 기쁨은 잔치로 표현되었다.

예수의 행적은 선포의 핵심 주제인 하느님 나라의 관점으로 보아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예수가 죄인들과 종교적으로 부정한 사람들과 사귀고, 안식일 계명을 위반하고 정결례법을 폐기한 것은 사회비판이나 혁명과는 무관한 일이었다. 예수는 오직 하느님의 사랑을 알리는 것에 충실했을 따름이었다. 예수의 기적들도 하느님 나라의 도래가 전인적 구원이며, 이 구원은 회개하고 믿는 사람들에게 무조건적으로 제공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데 의의가 있다. 예수를 온전히 사로잡은 오직 한 가지는 사랑 안에 내림하는 하느님의 다스림이었다. 다시 말해 인간과 하느님, 인간과 엮여가시는 하느님의 역사가 예수의 목표요 사명이었다.

1.3.3. 하느님 나라의 도래

이스라엘은 하느님 다스림에 대한 신앙과 단절되어 보이는 역사를 체험하면서 하느님 나라의 도래를 먼 미래의 일로 간주했다. 이에 비해 예수는 종말론적 희망이 바로 지금 실현되고 있다는 선포로 새롭고 결정적인 전기를 마련했다. 예수의 선포로 현재라는 시간 안에 시작된 하느님 나라에 대한 시간적 거리는 무의미

해졌다. 하느님이 당신 자신을 계시하려고 파견한 아들로서, 오시기로 된 메시아로서 예수는 다가오실 하느님께서 항상 인간 곁에 계심을 선포한다.

1.3.3.1. 예수의 가르침

예수는 하느님 나라를 이 세상의 실재에 비유하여 가르쳤다. 가장 작고 눈에 띄지 않는 겨자씨가 커다란 나무로 자라나고(마르 4,30-32), 소량의 누룩이 서 말의 반죽을 부풀게 하는(마태 13,33) 비유들은 가장 큰 것이 가장 작은 것 안에 숨겨져 있듯이 하느님 나라도 지극히 일상적인 현재 안에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활동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예수의 선포에서 현재에 관한 말씀은 곧 미래에 관한 말씀이요 미래에 관한 말씀은 곧 현재에 관한 말씀이다. 지금을 하느님의 현재요 구원의 시간으로 깨닫는 사람에게는 하느님의 미래가 구원이다. 그러나 하느님의 오늘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의 현재, 자신의 과거, 그리고 미래에 대한 자신의 꿈에 집착하는 사람에게는 하느님의 미래가 심판이다. ... 하느님의 미래는 현재를 향한 하느님의 외침이요, 현재는 하느님의 미래에 비추어 내리는 결단의 시간이다.”

하느님의 다스림이 현재 안에 숨겨져 있다는 비유의 가르침들은 현재와 미래 사이에 긴장이 가로놓여 있음을 의미한다. 하느님의 다스림이 지금 당장 시작했다는 선포와 그 다스림을 이제부터 기대하고 간청해야 한다는 가르침은 ‘주님의 기도’의 둘째 청원에 통합된다. 하느님 나라는 결코 하느님의 마지막 시기에 이르러 주어지는 선물이 아니라 ‘여기(hic)’ 그리고 ‘지금(nunc)’을 위하여 청원되는 것이다. 하느님 나라의 도래를 청함은 하느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는 핵심적 열망을 드러낸다. 하느님의 다스림은 인간에 의해 실현되는 나라가 아니며 오히려 하느님이 세상을 다스리고 당신의 거룩한 의지를 실현하실 것이다. 하느님 나라는 예수의 선포로 아버지로부터 오는 것이고, 하느님의 선하심으로부터 유래하는 아버지의 선물이라고 분명히 제시된다.

1.3.3.2. 예수의 행적

예수의 인격과 현존은 가난한 이들과 죄인들에 대한 우선적인 관심에서 드러난다. 당시 죄인은 율법을 업신여긴다고 손가락질당하는 사람들과 부정직하다고 취급받는 업종의 종사자들이었으며 종교적인 무지와 부도덕한 행동 때문에 구원의 가망이 없다는 취급을 받았다. 그러나 예수에게 죄인들은 “가난한 사람들”,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마태 11,28)이며 기쁜 소식에 열려있는 구원의 대상이었다.

예수는 세리와 죄인들과 기꺼이 식탁에 함께 앉았다.(마르 2,15-17; 루카 7,36-50; 15,2; 14,12-14) 예수의 식탁 공동체는 죄인들이 하느님 잔치상에 초대되었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하느님의 개입이 가시적으로 실현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표지였다. 이것은 예수의 인간애와 사회적 관용과 동정에 대한 표현만이 아니다. 구원에서 배제되고 부정하게 취급되던 이들과 식사를 나누는 자리에서 예수는 자신에게 용서의 권한이 있음을 표명했다.(마르 2,17; 루카 7,49; 마태 9,13) 예수의 식사는 하느님 앞에서 회개하고 용서를 청하는 이는 누구라도 자비로 받아들이는 절대적 선의 표지요, 하느님의 자비로운 은총이 이미 베풀어지고 있는 종말론적 만찬에 대한 선취인 것이다. 근동에서 사람을 초대하여 함께 식사하는 일은 평화, 신뢰, 형제애, 용서를 허락하는 예우를 나타내는 일이었고, 유대교에서는 하느님의 면전에서 나누는 교제로 여겼다. 따라서 의인들이 하느님과 함께하는 만찬을 종말론적 모상으로 여기던 바리사이들에게 예수의 식탁 공동체는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1.3.3.3. 예수의 표징

예수의 기적은 “하느님의 권능과 사랑의 표징”이며,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징표”로 예수가 예고된 메시아임을 증명한다. 하느님 나라의 도래는 달리 말해서 “사탄 나라의 패배”라고 할 수 있다. 예수의 구마 기적으로 사람들이 악령의 지배에서 해방되는데 이것은 “이 세상의 우두머리”에 대한 예수의 위대한

승리를 미리 보여주는 것이다. 다양한 형태의 기적을 행사한 예수는 결정적이고 종말론적 맥락인 하느님 나라의 도래를 주관한다는 점에서 엘리야나 엘리사와 같은 예언자보다 월등하다. 기적들은 예수의 종말론적인 “권위와 권능”의 증언이며, 메시아 약속의 완성인 것이다.(이사 61,1-3 참조)

기적을 가리키는 표현 가운데 표징은 종말적인 사건이 예수로부터 일어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상징적 행동을 가리킨다. 카나의 혼인잔치(요한 2,1-12)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한 기적은 메시아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표징으로서 옛 계약에서 새 계약으로 넘어감을 상징한다. ‘예수의 때’는 예수의 현존 속에 ‘이미’ 와 있고, ‘아직’ 오지 않은 시간을 말하며 하느님이 정한 예수의 죽음과 영광의 때이며, 그리고 예수가 십자가와 부활, 말씀과 성사를 통해 온 세상에 현존한다는 사실을 동시에 보여준다. 카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는 영광의 순간인 십자가의 신비로 드러날 자신의 때가 이르지 않았으나 이 시간을 신비롭게 앞당길 권한을 지닌 자로서 계시된다.

예수의 신적 영광이 드러나는 시간이라는 시각에서 개인의 혼인잔치에서 엄청난 양의 포도주를 마련한 기적의 의미는 분명해진다. 포도주는 안식일과 파스카 축제와 혼인잔치에서 반드시 마시게 되어있는 잔치의 구체적인 표현으로 하느님이 인류와 벌이실 궁극적 잔치, 이스라엘이 기대하던 잔치를 짐작하게 해준다.(이사 25,5; 집회 31,27-28; 시편 104,1,14-15 참조) 카나의 혼인잔치에서 일어난 기적은 하느님의 넉넉함, 인간을 위해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첫째 표징인 것이다. 카나의 풍요로움은 하느님이 인류와 벌이실 혼인잔치가 예수와 함께 시작되었고, 세말에 실현될 약속이 지금이라는 시간 안으로 편입됨을 의미한다.

2. 메시아 잔치의 선취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민족적 시련을 겪으면서 현 세대와 새 세대 간에, 이승의 불안과 천상의 행복 사이에 질적인 단절을 고대하면서 종말에 완성될 낙원에 서 누리게 될 하느님과의 친교를 염원했다. 그들은 하느님 나라의 도래를 선포한 예수에게 민족적 해방을 가져다줄 메시아의 이미지를 투영하였다. 그러나 예수로 말미암아 지상에서 시작된 하느님 나라는 철저한 회개와 믿음이 촉구되는 긴장의 상태, 진행 중에 있는 미래의 표상이기도 했다. 나아가 하느님 나라의 정의, 평화, 용서는 예수의 파스카 사건으로 맺어질 새 계약의 산물이었다.

하느님 나라의 종말론적 긴장은 예수의 최후만찬에서 고조된다. 예수는 파스카 시기에 제자들과 최후만찬을 가지면서 파스카 축제를 대신할 새로운 예전적(禮典的) 식사, 곧 메시아적 식사를 설정한다. 또한 최후만찬에서 예수는 이스라엘이 대망해 온 승승장구하는 메시아와는 다르게 수난과 죽음을 맞이하는 주님의 종으로 자신을 묘사하면서 하느님 나라가 자신의 희생으로 완성될 것을 약속한다. 따라서 최후만찬은 예수와 제자들이 지상에서 갖는 이별(離別)의 식사이자 천상 혼인잔치를 미리 맛보는 기쁨이 감도는 새로운 파스카 식사인 것이다. 메시아 잔치에 대한 예고가 강조된 루카의 최후만찬기를 통해서 하느님 나라의 도래가 갖는 의미와 최후만찬의 신학적 의미를 살펴보기로 한다.

2.1. 최후만찬의 배경

예수의 하느님 나라에 대한 선포는 메시아를 기다리던 유대인들에게 성공을 거두지 못하였다. 이들은 갈릴래아에서 병자를 치유하고 빵을 많이 하는 예수를 만나고 체험했으나 율법교사나 예언자로 여겼을 뿐, 구원을 가져올 메시아로 받아들여려는 신앙으로 나아가지 못했다. 예수를 두고서 백성들은 '경이감과 오해', '놀라움과 불신' 사이를 오가고 있었고,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은 적대감을 품었다.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의 곁에 머문 무리는 결코 크지 않았고(루카

12.32), 하느님께서 작은 무리와 함께 당신의 목적을 이루신다는 법칙이 예수의 활동으로 입증되었다.(마태 20,16)

예수는 죽음을 향한 여정이 하느님 나라 도래에 필연적으로 전제되어야 함을 인식했고, 베드로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이후 제자들에게 자신의 수난에 대하여 밝히고 자신의 희생적 죽음이 하느님 나라의 완성에 결합되어 있음을 가르쳤다. 또한 하느님의 처분에 맡겨져서 미처 알 수 없는 사건, 곧 잔을 마시는 일과 또 다른 고난의 세례를 받는 일이 예수의 영광에 '앞서' 전제될 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예수와 함께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기에 '앞서' 전제되어야 함을 전하였고, 완전한 하느님 나라에서 차지하게 될 '자리'가 오로지 하느님 아버지에게 달려 있음도 분명히 했다.(마르 10,40) 하느님 나라 도래의 의미와 그 실현은 최후만찬에서 최고의 표현에 달하게 된다.

예수의 마지막 식사는 하느님 나라를 가시적으로 보여준 기존의 식탁 공동체를 뛰어넘는다. “이 만찬은 예수의 지상생활을 마감하는 시점에서 그리고 그가 이미 자각하고 받아들여려는 죽음 직전에 그의 사상을 결정적으로 소개하는 중심축과도 같다. 완전한 하느님 나라의 도래, 예수의 수난과 죽음의 필연성, 죄의 용서와 계약을 위해 흘리는 피의 역량을 그의 제자 공동체에 맡기는 행위, 도래할 하느님 나라에서 참여하게 될 전망 등 그 모든 것이 최후만찬에서 보여준 예수의 정신에 현존하며 그의 거룩한 행위와 그에 수반된 말씀의 간결하고도 심오한 표현에서 드러난다.” 제자들과 갖는 지상의 마지막 식사이면서 파스카 축제의 분위기 속에서 하느님 나라의 도래를 고대하는 기쁨이 감도는 자리였다. 곧 시간의 종말이 드러났고 메시아적 잔치를 즐기게 될 왕국의 실현이 임박했다는 것이 제시된다. 더불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중대한 사건들이 하느님 나라와 그 잔치에서 필연적으로 구현되어야 함이 최후만찬에서 예수가 남긴 말씀과 동작들에서 드러나게 된다.

2.2. 최후만찬의 성서적 이해

2.2.1. 최후만찬의 종말론적 예고

예수의 최후만찬에 관한 공관복음의 보도들은 수난사화에 위치하고 있으며 종말론적인 기대를 반영한다. 예수는 잔치의 비유로 세상 종말을 가르치면서 하느님 나라를 모든 민족과 물질적인 요소들로부터 정화된 나라로 묘사했다.(마르 22,1-10; 루카 14,16-24 병행; 마르 25,1-13) 잔치로 비유된 하느님 나라는 하느님과의 공동체성과 거룩하고 축복받은 이들과의 공동체성이 강조된다. 예수는 최후만찬 중에 종말에 완성될 잔치를 예고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하느님 나라에서 새 포도주를 마실 그날까지, 포도나무 열매로 빚은 것을 결코 다시는 마시지 않겠다.”(마르 14,25; 마태 26,29; 루카 22,16,18) 마르코와 마태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만찬 끝에 소개한다. 반면 루카는 마르코의 종말론적 약속을 파스카 잔치와 함께 진행되는 만찬 도중에 두 번 언급하여 독창적인 최후만찬기의 구성을 보여준다. 유다의 배신에 대한 예고가 성찬 제정의 말씀 뒤로 옮겨지고, 성찬 제정의 말씀이 파스카 식사 본문에 배치된다.

루카는 22,14-20에서 ‘파스카 식사’(15-18절)와 ‘성찬례 제정’(19-20절)으로 구별하여 보도한다. 루카 22,15-18에서 마르 14,25의 반복은 다른 최후만찬기에 비해서 예수의 최후만찬의 파스카적 성격을 부각한다. 루카의 의도는 종말론적 약속을 ‘파스카 식사’와 ‘성찬례 제정’에 모두 적용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후 하느님 나라에서 모든 것을 완성하게 되는 날에 비로소 다시 잔치를 벌이실 것을 예고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루카의 최후만찬기는 옛 파스카에서 새로운 파스카로 나아가는 메시아적 잔치의 예표를 명확하게 드러낸다. 나아가 루카는 하느님 나라의 완성을 예고함으로써 초대 교회가 유다인의 파스카 축제를 대체하여 성찬례를 거행하면서도 파스카 축제의 의미를 최고조로 끌어올렸음을 보여주고자 했다. 본고는 최후만찬에 파스카 식사의 성격을 강조하고, 예수

의 마지막 파스카 식사가 하느님 나라에서 완성될 것을 두 차례 언급한 루카의 최후만찬기를 통해 하느님 나라의 의미와 그 잔치의 완성에 대하여 살펴볼 것이다.

2.2.2. 최후만찬의 본문 연구

성찬례를 제정하다: 루카 22,14-20

¹⁴시간이 되자 예수님께서 사도들과 함께 자리에 앉으셨다. ¹⁵그리고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고난을 겪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파스카 음식을 먹기를 간절히 바랐다. ¹⁶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파스카 축제가 하느님의 나라에서 다 이루어질 때까지 이 파스카 음식을 다시는 먹지 않겠다.” ¹⁷그리고 잔을 받아 감사를 드리시고 나서 이르셨다. “이것을 받아 나누어 마셔라. ¹⁸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이제부터 하느님의 나라가 올 때까지 포도나무 열매로 빚은 것을 결코 마시지 않겠다.” ¹⁹예수님께서는 또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사도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다.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는 내 몸이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²⁰또 만찬을 드신 뒤에 같은 방식으로 잔을 들어 말씀하셨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로 맺는 새 계약이다.”

22장부터 시작되는 루카의 수난사화는 파스카 축제의 시간적 흐름에 따라 전개된다. 1절 무교절이 다가옴에서 7절 파스카 양을 잡는 무교절 날까지의 과정은 최후만찬 장면에서 절정에 도달한다. 이 단락은 하느님 나라에서 완성될 옛 파스카 식사(15-18절)를 다루는 전반부와 성찬례 제정(19-20절)을 다루는 후반부로 짜여있다. 14절부터 38절까지 이어지는 고별사적인 성격은 최후만찬 장면에서 최고조에 달한다.

2.2.2.1. 루카 22,14-18: 파스카 식사

¹⁴ Καὶ ὅτε ἐγένετο ἡ ὥρα, ἀνέπεσεν καὶ οἱ ἀπόστολοι σὺν αὐτῷ.

시간이 되자 예수님께서 사도들과 함께 자리에 앉으셨다.

14절은 최후만찬에서 옛 파스카가 새로운 파스카로 대체됨을 보여준다. 이 만찬의 주례자는 예수이고, 열두 사도들은 이스라엘 열두 지파의 대표로서 참여한다. 예수가 사명을 완수하기에 앞서 파스카 음식을 나누기 위해 모인 ‘시간(ἡ ὥρα)’은 일몰로 추정된다. ‘앉다(ἀνέπεσεν)’는 자유로운 민족의 초상으로서 파스카 사건을 기념하며 비스듬히 누워 음식을 먹는 자세(ἀνάκειμαι)이다. ‘사도들(οἱ ἀπόστολοι)’은 하느님 백성을 위한 권위를 위임받은 대표로서 예수와 함께 자유와 해방의 자세를 취했으리라 짐작할 수 있다.

¹⁵ καὶ εἶπεν πρὸς αὐτούς· ἐπιθυμία ἐπεθύμησα τοῦτο τὸ πάσχα φαγεῖν μεθ' ὑμῶν πρὸ τοῦ μεπαθεῖν·

그리고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고난을 겪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파스카 음식을 먹기를 간절히 바랐다.”

최후만찬은 예수의 마지막 지상생활이 구원업적의 시작으로 전환되는 새로운 파스카의 예표이다. 죽음의 운명이 가까이 왔음을 직감한 예수는 열두 제자와 함께 파스카 만찬을 기념하게 된 것을 기뻐하며 이 만찬이 지닌 새로운 의미를 전한다. 예루살렘의 몰락이 파멸을 표상하는 것처럼 파스카 만찬은 예수의 대속적 죽음을 알리는 자리였다.

최후만찬의 전반적인 맥락에서 ‘원하다(ἐπιθυμία)’는 예수의 의도가 제자들과 파스카 식사를 함께 나누는 기쁨을 누림, 피로 맺을 새 계약에 대한 가르침, 앞으로 있을 일들의 완성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동사이다. ‘이 파스카 음식(τοῦτο τὸ πάσχα)’은 파스카의 어린양을 제유법으로 표현한 것이다. ‘고난을 겪기 전에(πρὸ

του μεπαθειν)’에서 ‘고난’은 이전 본문들에서 밝혀지지 않은, 예루살렘에서 겪게 될 예수의 운명을 명시한다. 그러므로 최후만찬에서 고난에 대한 언급은 이집트 탈출에서 파스카 어린양의 피의 역할과 20절의 예수의 피로 맺은 새 계약에 대한 복선인 것이다.

¹⁶ λέγω γὰρ ὑμῖν ὅτι οὐ μὴ φάγω αὐτὸ ἕως ὅτου πληρωθῆ ἔν τῃ βασιλείᾳ τοῦ θεοῦ.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파스카 축제가 하느님의 나라에서 다 이루어질 때까지 이 파스카 음식을 다시는 먹지 않겠다.”

예수가 제자들과 파스카 음식을 먹기를 간절히 원한 이유가 원인접속사 ‘왜냐하면(γάρ)’으로 시작하는 16절에서 밝혀진다. 예수는 곧 있게 될 고난을 인식했고, 지상에서 다시는 제자들과 파스카 음식을 먹을 수 없음을 알았다. 파스카 음식(αὐτὸ)에 대한 단식의 표명은 절제나 단식의 맹세가 아니라 예언적 예고이다. 예수의 마지막 파스카 식사 다음에 있을 일들은 오로지 예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므로 압박한 하느님 나라의 도래를 예고하는 것이 아니다. ‘이루어지다(πληρωθῆ)’는 하느님을 주어로 하는 동사이다. 여기서 하느님께서 이루실 일은 예수의 죽음으로 시작될 새로운 시대의 완성, 하느님 나라에서 있게 될 잔치를 암시한다. 당시 유대인들은 파스카 축제로 이집트 탈출의 구원을 기념한 것만이 아니라 장차 도래할 종말론적 구원을 전망했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예수는 하느님 나라에서 있을 종말론적 만찬을 예감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동시에 16절은 예수를 중심으로 모였던 식탁 공동체가 용서와 화해가 일어나는 구원의 표지인 것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파스카의 만찬은 자유와 해방의 기반이 되리라는 예고이다. 여기서 ‘하느님 나라(βασιλεία τοῦ θεοῦ)’는 분명 장차 일어날 미래의 일이다. 예수는 파스카 만찬이 이집트 노예생활에서의 구원을 기념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죽음을 통해 세상 종말에 있을 하느님의 결정적 구원인 천상 메시아 잔치로 성취된다고 보았다. 이처럼 하느님 나라에서 맛보게 될 잔치라는

파스카의 진정한 의미가 최후만찬에서 분명하게 밝혀진다.

¹⁷ καὶ δεξιόμενος ποτήριον εὐχαριστήσας εἶπεν· λάβετε τοῦτο καὶ διαμερίσατε εἰς ἑαυτούς·

그리고 잔을 받아 감사를 드리시고 나서 이르셨다. “이것을 받아 나누어 마셔라.”

예수는 임박한 죽음의 운명 앞에서 제자들과 함께 지내며 하느님을 중심으로 그들과 친교를 나누고 하느님 나라에서 승리의 ‘잔(ποτήριον)’을 마실 것을 예고한다. 파스카 만찬에서 각자 잔을 들고 마시던 관습과 달리, 같은 잔을 돌려 마시는 식사를 통한 일치와 유대를 의미한다.

예수의 최후만찬은 위기의 순간에 거행되었다. 하느님 나라에서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종말론적인 나눔은 궁극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러한 표상은 ‘파스카 음식’이 ‘잔’, ‘포도나무의 열매’로 비유되면서 심화된다. 예수와 열두 제자들은 고난이 오기 전에 같은 잔을 나누어 마시면서 감사를 드리고 친교를 나누었다. 이들이 나눈 잔은 고통이 마지막은 아니며 승리가 뒤이어 올 것을 상징한다.

¹⁸ λέγω γὰρ ὑμῖν, [ὅτι] οὐ μὴ πίω ἀπὸ τοῦ νῦν ἀπὸ τοῦ γενήματος τῆς ἀμπέλου ἕως οὗ ἡ βασιλεία τοῦ θεοῦ ἔλθῃ.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이제부터 하느님의 나라가 올 때까지 포도나무 열매로 빚은 것을 결코 마시지 않겠다.”

18절은 하느님 나라의 잔치를 예고한 16절(마르 14,25 병행)과 상응된다. 하느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직접 일으키신다는 말을 완곡하게 표현하여 하느님 나라의 도래를 언급한다. 예수는 지상에서 파스카의 잔을 마실 기회가 세상 종말까지 두 번 다시 오지 않으리라고 예고한다.

‘포도나무 열매로 빛은 것(τοῦ γενήματος τῆς ἀμπέλου)’은 파스카의 포도주를 가리키지만 여기서는 예수가 다음 절기에 있을 파스카 만찬 전에 죽음을 맞이할 것을 나타낸다. 따라서 예수의 최후만찬에 장차 있을 하느님 나라의 잔치에 대한 사고가 암시적으로 드러난다.

2.2.2.2. 루카 22,19-20: 성찬례 제정

¹⁹ καὶ λαβὼν ἄρτον εὐχαριστήσας ἔκλασεν καὶ ἔδωκεν αὐτοῖς λέγων· τοῦτό ἐστιν τὸ σῶμά μου τὸ ὑπὲρ ὑμῶν διδόμενον· τοῦτο ποιεῖτε εἰς τὴν ἐμὴν ἀνάμνησιν.

예수님께서서는 또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사도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는 내 몸이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19절은 ‘가져 ... 감사를 드리시고 떼어주시며(λάβων ... εὐχαριστήσας ἔκλασεν καὶ ἔδωκεν)’와 같은 연속적인 동사들의 사용으로 예식의 엄숙한 분위기를 연출한다. 또한 위 동사들은 오천 명을 먹인 빵의 기적을 연상시킨다. 예수는 파스카의 상징들을 재해석하고 새롭고 잠정적인 의미를 부여한다. 상징들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올 것을 기억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19-20절에 희생의 표상들이 나타나 있으나 예수는 자신을 파스카의 어린양에 직접적으로 비유하지 않고 빵과 잔에 대한 해석을 통해 기억하게 한다. ‘빵(ἄρτος)’은 파스카 식사の本식에서 축복의 말과 함께 주어진 누룩 없는 한 덩이 빵을 가리킨다.(탈출 29,2; 레위 2,4; 신명 6,19) 예수는 빵을 대속적인 죽음으로써 내어줄 자신의 몸과 연결시킨다. ‘이다(ἐστιν)’는 두 사물의 일치, 예수의 몸과 빵이 동일함을 가리킬 수 있고, 아니면 상호 상징하는 바를 서술하는 기능으로 빵이 예수의 몸을 상징하거나 대리한다고 볼 수 있다. ‘몸(σῶμά)’에 대해서 여러 의견이 엇갈리지만 일반적으로 ‘몸’은 예수의 자기 증여의 사고가 반영된 다가올 죽음을 명시하는 표현이다. ‘몸을 주다’는 다른 사람들

을 위하여 싸우다가 목숨을 잃는 이미지를 말한다. ‘빵을 쪼갬’이 식사 준비의 사실적인 보도라면 몸을 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의 구원을 위하여 생명을 내어놓는 실제적인 의미를 지닌다.

ὕπερ는 구약성경에서 순교적 행동(2마카 7,9; 8,21)이나 죄와 벌을 위한 희생적 증여(레위 5,7; 6,23; 예제 43,21)에, 신약성경에서는 구원의 표현으로(갈라 1,4; 3,13) 사용된다. 여기서는 희생과 순교가 결합된 의미로 예수에게 적용된다. 따라서 ‘너희를 위해서(ὕπερ ὑμῶν)’는 다분히 희생적이고 대속적인 분위기를 띤다. 예수의 자기 증여를 대속의 의미로 이해할 때 예수는 희생제물로서 그의 사명이 죄인의 용서와 구원이라는 것이 더욱 명료해진다. 이런 맥락에서 예수의 죽음은 단지 생애의 단절이 아니며 구원과 긴밀하게 결합된다. 예수는 죄인들, 사람의 아들을 배척하는 이들을 위해 죽었다. 예수의 대속적 죽음에는 신학적 진리만이 아니라 위대한 사랑이 깃들여 있다.

19절 후반부는 앞서 언급된 내용들과 연결하여 볼 때 ‘이것을 하라,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기억할 것이다’로 이해할 수 있다. 최후만찬에서 예수의 말과 행동은 제자들에게 예수를 상기시키며 그의 죽음이 갖는 중요한 의의를 떠올리게 했을 것이다. 성경에서 기념·회상(ἀνάμνησις)은 현재와 미래의 변영을 위하여 지나간 일들을 떠올리는 데에 효과적으로 사용된다. 예수가 제자들에게 가르친 것은 계속해서 식사를 나누라는 것만이 아니라 그들의 친교의 식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한 하느님의 명령이며 그의 삶과 죽음의 의미를 가리킴을 상기시키려는 것이다.

²⁰ καὶ τὸ ποτήριον ὡσαύτως μετὰ τὸ δειπνῆσαι, λέγων· τοῦτο τὸ ποτήριον ἢ καινὴ διάθηκη ἐν τῷ αἵματί μου τὸ ὑπερ ὑμῶν ἐκχυννόμενον.

또 만찬을 드신 뒤에 같은 방식으로 잔을 들어 말씀하셨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로 맺는 새 계약이다.”

예수는 파스카의 어린양으로서 생명의 피를 온전히 ‘너희들을 위하여(ὑπὲρ ὑμῶν)’ 쏟아붓는다. 예수의 죽음으로 하늘이 열리고 새로운 시대가 개시되었다.(루카 23,45)

20절의 ‘잔(τὸ ποτήριον)’은 파스카 예식에서 감사를 드리며 마시는 세 번째 잔, 소위 축복의 잔으로 예수의 피와 죽음으로 말미암아 새 계약의 상징이 된다. 여기서 ‘너희(ὑμῶν)’는 이사 53,10,12의 많은 사람들(πολλῶν)보다 후대의 표현으로 여기서는 신성한 옛 계약을 완성하고 새롭게 하는 예수와 함께 만찬에 모인 사도들을 언급한다. 정확히 말하자면 루카의 근본적인 노선(6,12-16; 22,29-30)에서 사도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표상하고 인도하도록 뽑힌 이들이다. 그러므로 이 계약은 예수의 장차 있게 될 만찬에 참여할 이들에게까지 확장된다. ‘홀리다(ἐκχυννόμενον)’는 하느님을 주어로 하는 수동 동사이다. 하느님께서서는 예수의 피로써 당신의 구원 계약을 종말에 함께할 당신의 백성들과 몸소 맺으신다.

기본적으로 관계를 나타내는 ‘계약(διάθήκη)’은 하느님과 인간 사이의 충실과 사랑의 유대를 강조한다. 하느님과 이스라엘의 계약은 인간의 모든 계약을 능가하는 것이었다. 인간은 계약으로 말미암아 하느님의 지도와 도움으로 살아가도록 구원을 선사받기 때문이다. 여기서 ‘새로운(καινός)’은 단기적 반복이 아니라 새로운 종말론적 관점에서 주로 성찬과 연관되어 사용된다. ‘새 계약(ἡ καινὴ διάθήκη)’은 하느님께서 죄를 용서하시고 내적인 갱신을 이루신 시나이 계약을 뛰어넘는 하느님의 새로운 행위에 토대를 둔 예레 31,31-34의 ‘새 계약’을 연상하게 한다. 그럼에도 예레 31,31에는 피에 대한 언급이 없고 종의 죽음이 계약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므로 새 계약은 탈출 24,8도 전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예수의 죽음은 사람들의 죄에 대한 속죄이며, 하느님과 함께 쇄신된 종말론적인 계약에 참여하게 한다.

2.3. 최후만찬의 신학적 의미

16절과 18절에서 언급된 예언적인 예고는 하느님 나라의 도래가 아니라 하느님 나라에서 있게 될 종말론적 잔치를 겨냥한 것이었다. 과거 이스라엘의 만배들을 건너가신 하느님의 사랑을 회고하는 파스카의 밤에 예수는 지상에서의 마지막 식사이자 파스카 식사의 자리에서 미래에 있을 천상의 기쁨을 선사한다. 최후만찬기에는 하느님 나라에서 누릴 잔치의 대가(代價)인 예수의 죽음에 대한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

2.3.1. 계약의 의미

최후만찬기에는 탈출 24,8에 암시된 계약을 피와 관련하여 언급한다. 시나이 계약에서 바친 짐승의 희생이 예수가 생명을 내어놓는 것으로 대체된다. 생명과 죽음이 교차되는 파스카의 밤에 하느님 나라에 마련된 잔치를 희망할 수 있는 근거는 피로 채워진 잔에 대한 예수의 언급, 곧 피로 맺어진 새 계약에 있다.

시나이 계약을 능가하는 새 계약(예레 31,31-34)은 종말론적인 하느님의 계약이 예수의 희생적 죽음으로 성취되는 것으로 예수의 제자들이 하느님 나라에서 완성된 하느님의 주권에 참여하는 종말론적 잔칫상에서 완전히 드러날 것이다. 이 새로운 계약의 목표는 하느님 나라에서의 완전하게 성취된 하느님 백성이며 계약의 주요 내용은 내적인 관계 형성과 백성들의 허물을 용서하시는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이다.(예레 31,33-34) 예언의 실현인 신약성경의 관점에서 예수의 희생적 죽음으로 하느님의 용서가 완전히 드러나게 되었다.(마태 26,28) 그렇다고 예수의 피로 맺은 계약은 종말론적 의미에서 무죄함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최종적인 구원의 계약은 분명 시작되었으나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으며, '이미 그러나 아직 아니'의 하느님 나라의 긴장 상황과 같이 현재적 완성과 미래의 영광에 양립하고 있다.

2.3.2. 대속의 의미

그리스어 전치사 ‘휘페르(ὕπερ)’는 초대교회의 예수의 죽음에 관한 선포에서 핵심 단어로 예수의 피가 지닌 대속적 의미를 명시해 준다. 휘페르 정식(ὕπερ-Formel)은 예수의 죽음이 다른 사람을 ‘위한’ 속죄의 죽음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으로 최후만찬의 예수의 말씀들을 토대로 형성되었다.

최후만찬기는 공통적으로 예수를 이사 53장의 ‘많은 이들의 죄를 짊어진’ 고통 받는 주님의 종으로 묘사한다. 이사 53장은 예수의 혹독한 죽음의 예형(type)이며 예수의 피가 많은 이들을 위하여 흘려질 것에 대한 예언이다. ‘주님의 종’의 노래(이사 52,13—53,12)에 등장하는 종은 의인인데도 이스라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고난을 겪고 죽임을 당한다. 이러한 관점에 익숙한 유대인들은 의인의 처절한 죽음(지혜 2,20)에 대한 경험을 배경으로 언제든 그 종이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희생되었다고 풀이한다. 신약시대에 근접한 마카베오 시기에도 율법의 수호를 위해 목숨을 내어놓는 의로운 자들의 죽음을 백성을 위한 희생양으로 해석했다. 콰란 공동체도 자신들을 하느님 나라를 위해 희생적인 삶을 살고 있으며 하느님께 불충실한 자들의 책벌을 위해 선택된 자들로 자처하면서 “오만한 행위와 죄악에 대한 잘못을 기워 갚고 마침내 하느님의 나라에서 그분의 기쁨에 동참할 수 있다”고 믿었다.

당시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을 기초로 ‘많은 이를 위해 쏟는 피(τὸ αἷμά μου … ἐκχυνόμενον ὑπὲρ πολλῶν)’(마르 14,24)는 예수의 대속적 죽음에 대한 예고임이 더욱 분명해진다. 예수의 희생적 삶은 ‘주님의 종’의 노래의 어린양처럼 구원을 이루어 내는 죽음으로 완성될 것이다. 최후만찬에서 예수는 자신의 죽음을, 이스라엘을 넘어 전 우주적으로 구원의 효력을 미치는 대속적 죽음으로 설명한다. 예수의 대속적 죽음은 주님의 종이 흘리는 속량의 피로 새 계약을 맺으시고, 하느님 나라의 도래를 앞당기는 메시아의 죽음인 것이다.

2.3.3. 상징의 의미

예수는 최후만찬에서 구원의 새 질서가 이 세상에 나타날 것이며, 미래의 세상 종말에 보류되어 있는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빵과 몸’ 그리고 ‘포도주와 피’의 비유적인 관계를 통하여 제자들을 식탁의 축복에만이 아니라 ‘당신이 주시는 몸’과 ‘흘리는 피’에서 나오는 축복에 참여시킨다.

몸과 피는 희생되고 봉헌된 예수의 인격체가 하느님과 모든 이를 화해시키고 거룩하게 한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몸(σῶμα)’은 하느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책임지는 인간을 일컫는 히브리어 바사르(בשר)에서 유래한다. ‘몸(σῶμα)’는 썩어 소멸할 인간을 대변하며 구원사적 의미로 사용된다.(루카 3,6; 마르 14,8; 요한 2,21; 히브 10,10; 1베드 2,24) 이와 같은 의미에서 최후만찬기에서 일반적으로 인간의 구성을 설명하는 살(σάρξ)과 피(αἷμα)가 아니라 ‘몸(σῶμα)’을 활용함으로써 인성을 취한 예수가 죽음으로써 자신을 온전히 봉헌했음을 기억시킨다. 피(αἷμα)는 히브리어-아람어 사용권에서 생명과 동일하게 사용되었다.(레위 17,11,14; 신명 12,23) 희생제물의 피는 봉헌된 생명으로서 화해와 정화와 거룩하게 만드는 힘을 상징한다.

예수는 자신의 몸과 피를 빵과 포도주에 비유하여 앞으로 있게 될 죽음의 의미와 이 예식의 의미를 밝혀준다. 부서지고 쪼개지는 빵은 육화된 예수의 몸이 겪을 수난과 죽음을 상징한다. 붉은 포도주로 파스카 축제를 거행하라는 규정에 따라 포도주를 잔에 따를 때 십자가에서 흘리게 될 예수의 피를 연상하고 희생을 상징한다. 따라서 예수의 몸과 피를 대변하는 빵과 포도주는 구원의 선물이요, 빵과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주는 것은 구원을 놓치지 말고 기념하라는 초대이다.

최후만찬의 본래적 의도는 파스카 사건을 기념하거나 예수의 죽음을 전하는 차원을 넘어 죄의 해방과 하느님과의 새로운 계약의 일치를 전달하는 데 있다. 이와 관련하여 예수를 최후만찬의 빵과 포도주 형체인 성사적 현존으로 볼 수 있다. 성사적 현존에 의해 축성된 빵과 포도주를 취하는 것은 미리 구원의 수확에 참여하는 수단이 된다. 즉 인간의 살과 피를 취한 예수가 자신의 살과 피를 생명

의 양식과 음료로 내어놓음으로써 인류는 하느님과 같은 살과 피를 나누는 천사가 죽어 가는 길을 마련하였다. 최후만찬은 하느님과 한 식탁에서 음식을 나누어 먹는 하늘의 시민으로 초대하는 은총이며 축복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는 자리이다. 최후만찬은 혼인잔치의 신랑인 예수의 주례로 하느님 나라에서 이루어질 혼인잔치를 미리 선취하게 하는 하느님 나라의 실제적 사건인 것이다.

3. 종말론적 삶을 위한 성찬례

예수의 부활을 체험한 예루살렘 공동체는 최후만찬에서 예수가 남긴 말씀과 행동을 되새기며 성찬례를 거행했다. 그들은 성찬례에서 예수의 피로 맺어진 새 계약을 기억하고, 이미 마련된 하느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기쁨을 나누었다. 예수의 파스카 사건으로 하느님 나라는 그리스도인에게 실현이 보장된 희망의 근거가 되었으며, 지상의 순례를 마치고 하느님의 얼굴을 직접 뵈는 순간까지 그리스도인은 천국 본향을 향해 나아갈 것이다. 이 여정에서 성찬례는 '이미 그러나 아직'의 도정에 있는 하느님 나라의 가시적인 성사요, 영적인 양식으로서 최종 목표인 하느님 나라를 현재화하고 준비하도록 도와준다. 초대 공동체에서 시작된 성찬례의 의미와 하느님 나라를 기반으로 자리 잡은 그리스도교 희망의 요소들을 살펴보고, 하느님 나라를 향하여 순례하는 이들에게 성찬례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3.1. 하느님 나라의 예표인 성찬례

3.1.1. 초대 공동체의 성찬례

예수의 최후만찬으로 세워진 성사는 풍성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바 다양한 명칭으로 불려왔다. 그 가운데 '주님의 만찬(κυριακὸν δείπνον)'은 예수와 제자들이 가

진 마지막 식사와의 밀접한 관계를 드러내며, “천상 예루살렘에서 벌어지게 될 어린양의 혼인잔치를 미리 맛보는 것과도 관련된다.” 주님의 만찬으로서의 성찬례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시점에 열려있다. 성찬례는 과거의 관점에서 주님의 죽음과 부활의 기념제이고, 현재적 관점에서 빵과 포도주의 형상 안에 현존하여 계시는 그리스도와 일치할 이루는 친교의 식사이며, 미래적 관점에서 종말론적 메시아 만찬의 선취이다.

부활사건은 제자들에게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로서 살아 계시고, 그들 가운데 함께하신다는 확신을 심어주었다. 죽음이 두려워 문을 닫아 걸었던 제자들은 예수의 부활을 체험하면서 죽음에 맞서 복음을 선포할 용기를 얻었다. 또한 부활하신 분께서 자신의 이름으로 모인 이들 가운데 함께하시겠다는 약속(마태 18,20)을 지킬 것이라는 확신 속에서 성찬례를 거행했다. 예루살렘 초대 공동체는 자신들을 새로운 이스라엘, 새로운 하느님 백성으로 인식했다. 나아가 빵의 나눔으로 성찬례를 시작하면서 이미 현양된 예수의 현존을 기념하는 종말론적 공동체, 종말에 완성될 잔치에 참여할 기쁨을 미리 선사받은 공동체라는 정체성을 굳혀나갔다. 성찬례는 예수의 대속적 죽음으로 얻어진 구원의 결실에 참여하고 있다는 현재와 하느님 나라가 가까운 시일 내에 이루어지리라는 미래 사이에서 종말론적 찬양의 분위기로 거행되었다.

예수가 열두 사도들과 나눈 최후만찬에서 옛 파스카와 새로운 파스카를 언급했다면 초대 공동체는 매번 새롭게 성찬례를 거행하면서 예수의 파스카를 기념하고 새 계약으로 보장받은 종말론적 예고를 희망했다. 이들은 최후만찬에서 예수로부터, 예식을 기억하여 행하라는 특별한 사명을 받았으며, 예수의 식탁 공동체를 지속적으로 형성하여 성찬례를 거행하는 것이 예수의 뜻을 성취하고 예수의 말씀에 응답하는 것이라고 믿었다. 성찬례는 역사적 사건으로 종결된 예수의 십자가 죽음을 재현하고, 다시 오실 주님과 함께 완전한 구원 공동체를 건설하리라는 기대 속에서 전례의 형식으로 정립되었다. 그러므로 성찬례는 과거로부터의 하느님 구원업적뿐만 아니라 “앞으로 올 모든 것을 포용하는 하느님 나라의 최종

적인 실현의 예형이다. 그것은 마지막이 아니라 시작이며 미래 영광의 보증이다. ... ‘주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 이상으로 메시아적 천상 잔치의 전조(前兆)가 된다.”

3.1.2. 천상 예루살렘의 혼인잔치

예수는 미래로 투사(投擲)되어 피안의 세계로 남겨질 하느님 나라를 이미 구현되고 있는 실재이며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뚜렷한 희망의 근거로 선포했다. 최후 만찬에서 예고된 하느님 나라의 도래, 하느님 나라에 마련된 잔치는 예수의 대속적인 피로 맺어진 새 계약의 선물이며, 죄와 어둠을 이기신 그리스도께서 천상 예루살렘에서 베푸는 어린양의 혼인잔치로 묘사된다. 어린양의 희생 제사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한 계약을 맺으신 파스카의 어린양으로 계시면서 ‘새 하늘, 새 땅’을 준비시킨다.

성경에서 혼인은 당신 백성에 대한 지극한 하느님 사랑을 전하기 위한 이미지로 사용된다.(예레 2,32; 3,1-22, 이사 54,4-8; 62,4-5) 신약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느님 백성인 교회의 관계를 나타낸다. 예수는 당신이 신랑이고 제자들은 혼인잔치의 손님으로서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단식하지 않아도 된다고 가르치고, 하느님 나라인 당신의 교회를 혼인잔치에 비유한다.(마태 22,2 이하; 25,1-10) 바오로는 교회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부부의 상호 본분과 그의 본보기로 설명했다.(에페 5,25-32)

성찬례는 신랑이신 그리스도와 하느님의 새로운 백성이자 신부인 교회의 만남이라 할 수 있다. 신랑이신 그리스도께서 신부인 교회를 만나러 내려오시고 신부인 교회는 신랑이신 그리스도께 사랑의 응답을 드리는 만남이 성찬례에서 이루어진다. “성찬례에서, 마치 샘에서처럼, 은총이 우리에게 흘러들고, 또한 교회의 다른 모든 활동이 그 목적으로 추구하는 인간 성화와 하느님 찬양이 가장 커다

란 효과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교회는 신랑의 아름다운 정배로서 교회를 통하여 실현되는 구원에 대한 감사의 성찬례(Eucharist)를 바치고, 천상의 어린양의 혼인을 앞당겨 거행한다. 다만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교회와의 혼인은 완성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갈라 4,26), 곧 교회는 천상 예루살렘이 세상에 내려온 예언적 표징이다. 그러므로 지상에서 교회가 하느님을 찬미하기 위하여 거행하는 성찬례는 천상 예루살렘에서 이미 계시된 실재가 된다. 성찬례에서 하느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맛 들인 신자들은 하느님을 소유하고 싶은 열망에 사로잡힌다. 성찬은 부분적으로나마 하늘에서 오는 기쁨을 향유하게 하여 일시적이고 단편적인 희망에서 최종 목표인 하느님 나라로 시선을 돌리게 한다.

3.2. 그리스도교 희망의 근거

3.2.1. 희망의 토대인 신앙

그리스도교 희망은 현재가 아닌 과거 그리고 경험과 지식의 질서를 초월하는 사건과 진리에 기초를 둔다. 이 희망은 “익명의 사건들, 예를 들면 문화라든가 과학, 기술, 정치, 경제 같은 것을 신뢰하지 않고, 한 분의 인격,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에서 형성된다. 또한 그리스도교에서 희망하는 미래는 물리적으로 정해진 시간이 아니다. 오히려 시간의 경과에 따라 발생하는 위기의 순간들을 겪어내면서 영원을 향해 고양되고, 수많은 사건들을 통해 모든 것이 새 하늘과 새 땅 안에서 근본적으로 거듭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스도교 희망은 “영적, 초본성적, 신적인 질서”에 의해 선사되므로 하느님께서 구원 경륜을 통해 보여주신 영적인 수단들을 사용하고, 이미 시작된 구원 업적을 완성시켜 주시도록 하느님께 청해야 한다.

그리스도교의 신앙과 희망은 그리스도의 파스카 신비를 근거하여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신앙은 희망의 토대가 되고 희망은 신앙을 지탱해 준다. 신앙의 빛은 살아계신 하느님으로부터 나온다. “이 빛은 ...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사랑을 계시하신 예수님의 삶에 대한 근원적인 기억에서 나오는 빛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어 우리를 죽음 너머로 이끄시기 때문에 신앙은 또한 미래에서 오는 빛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부활사건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리라 희망하면서 신앙의 빛으로 하느님 나라가 구현되고 있음을 바라볼 수 있다. 신앙은 현재 희망하는 바를 ‘지금 여기에’ 구현하는 미래를 향한 거대한 지평으로서 미래를 ‘아직 아니’의 미완(未完)으로 남겨두지 않고 현재로 끌어들이므로 현재의 실재는 아직 보지 못한 미래의 ‘확증’이 된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마련된 하느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원(冀願)은 신앙고백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이미 성취되고 있다. 하느님 나라는 결코 도달하지 못하는 피안에 한정되는 공간이 아니라 하느님의 사랑이 다다른 곳에 현존하는 현재의 실재이고, 지상에서 실현된 하느님 나라는 미래에도 지속되기를 바라는 희망으로 전환된다.

하느님 나라는 인간의 능력이나 계획으로 성취해 낼 수 없는 것으로, 전적으로 하느님의 몫이면서 현 시점을 살아가는 인간에게 쉼겨난 삶의 방식을 촉구한다. 하느님 나라는 지상에서 이루어지며 마지막 때와 연결되어 있는 긴박한 미래이자 활동 중에 있는 종말론적 실재인 것이다. ‘이미’와 ‘아직 아니’의 긴장 사이에서 인간이 하느님 나라를 현재화하고 결정적인 희망으로 유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신앙이다. 결국 희망은 “그리스도의 약속을 신뢰하며, 우리 자신의 힘을 믿지 않고 성령의 은총의 도움으로, 우리의 행복인 하늘나라와 영원한 생명을 갈망하게 하는 향주덕이다. ... 희망은 사람들의 활동을 고취시키는 갈망을 받아들이며, 그 활동들을 정화하여 하늘나라를 향하게 한다.”

3.2.2. 하느님의 완전한 사랑

그리스도교 희망은 하느님께서 하느님 백성을 궁극적인 구원으로 이끌리라는 하느님 약속에 대한 하느님 백성의 응답이다. “인간은 사랑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는 현세에도 해당됩니다. 살아가면서 커다란 사랑의 체험을 하는 바로 그때가 자기 인생에 새로운 의미를 주는 ‘구원’의 순간이 됩니다. 인간에게는 조건 없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 어떤 절망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위대하고 참된 희망은 오로지 하느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다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사랑하시는 하느님뿐이십니다.” 모든 인간들의 구원만을 바라시는 하느님은 증여하시고자 하는 한 가지 곧 세상의 구원인 당신 자신만을 지니신 분이요, 인간을 자유로운 피조물로 창조하시고 인간의 자유를 무조건 존중하시는 분이시다. 인간의 동의나 거부에 따라 인간을 향한 하느님의 사랑은 변질되지 않는다는 사실, 당신의 피조물을 향한 하느님 사랑의 얼굴은 마지막 날 만나게 될 충만한 생명의 희망이 된다. 하느님과 인격적인 통교와 사랑을 체험한 인간은 그 체험을 바탕으로 인격적인 하느님에게서 미래를 발견하고 이 미래가 하느님의 미래이기 때문에 좋은 미래라는 희망을 지니게 된다.

인간은 인생의 각 시기마다 다양한 희망들을 품고 살아가며, 희망이 실현되고 나면 자신이 도달할 수 없는 절대적 존재, 크고 작은 모든 희망을 초월하여 자신을 만족시키는 희망의 원천을 깨닫는 존재이다. 이성과 자유가 신앙을 대신하고 과학의 진보가 구원을 보장해 줄 것이라 기대하던 현대인들은 비록 생활의 편리를 누리게 되었지만 하느님 없는 하느님 나라, 곧 인간의 나라는 “전도된 종말”을 초래한다는 것을 목격하고 있다. 그러므로 일상의 희망들은 모든 것을 초월하는 위대한 희망이신 하느님을 토대로 추구되어야 한다. 사람의 모습을 지니시고 개개인과 인류 전체를 사랑하시는 하느님께 희망을 둘 때 그분의 나라는 미지의 상상으로 끝나지 않고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실재요 희망의 근거가 될 수 있다.

전 인류의 궁극적인 미래에 관한 성경과 그리스도교 진술은 하느님께서 세상

의 전체 역사를 완성하시고 피조 세계와 인간 역사를 하느님 나라에서 완성하시리라는 희망을 표현한다. “신앙에 대한 희망의 진술은 ‘아버지의 나라가 오소서!’라는 주님의 기도의 근본 청원에서 펼쳐진다. 그 희망의 진술은 피조물의 구원을 위해 하느님과 그 나라가 마침내 도래하리라는 신뢰로 가득 찬 하느님의 오심에 대한 기대이다.”

3.2.3. 예수 그리스도의 파스카 사건

예수는 죽음과 부활로써 하느님에 대한 새로운 면을 계시하였다. 부활은 하느님을 예수의 인간적 운명을 죽음에 묻어두지 않으시는 분, 모든 것이 종결된 듯이 보이는 곳을 구원으로 채우고 완성된 미래를 향하게 하시는 분으로 드러내는 정점이다. 그리스도인은 부활한 예수를 죽음의 파괴적인 힘을 체험한 구원자로 믿고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이 자신의 죽음 이후에 공유되리라고 희망한다. 예수에 대한 회상은 예수의 자기 이해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부활과 함께 믿어지고 희망할 수 있게 된, 그의 미래에 대한 이해로부터 열려왔다. 예수의 정체성을 확인하려는 요구가 일어난 것도 죽은 스승을 그의 죽음의 빛 안에서 회상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부활을 경험하였기 때문이다.” 죽음이 예수의 이름을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했다면 부활은 예수에게 ‘주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부여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역사의 미래를 구원의 미래이자 궁극적인 삶의 미래 그리고 결핍이 없는 충만한 미래로 규정해 주는 주님으로서 하느님이야말로 모든 암흑과 죽음의 세력을 거스르는 분으로 계시한다. 따라서 예수의 부활사건은 하느님의 구원계획이며 그리스도인의 희망의 근거이다. 예수의 부활사건 속에 인류의 미래가 선취되어 있으며 이로써 최종 미래의 목표는 궁극적으로 부활한 주님과의 일치로 정향되어 있다.

부활이 인간의 협력 없이 오로지 역사를 초월하는 하느님의 최종 미래로 제시된다면 십자가의 죽음은 마치 희망의 상실이나 실패의 상징인 듯이 보인다. 그러나 예수의 십자가 죽음은 이미 현존하고 있는 하느님의 주권을 실현하고자 현신

한 삶의 결과였다. 민족적 해방을 위해 무장한 메시아를 고대하고 형식적 율법준수를 강요하는 당대 분위기에서 예수는 회개와 화해, 죄인들과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봉사, 율법정신의 회복을 위한 보편적 사랑을 촉구했다. 예수는 죽음의 공포 속에서 또 세상으로부터 배척받은 상황에서도 끝까지 하느님을 신뢰하면서 자신의 생명을 하느님께 온전히 되돌렸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께서서는 전혀 다른 것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곧 최고의 주님이신 살아계신 하느님과과의 만남, 종살이의 고통보다도 더 강력한, 그래서 삶과 세상을 안에서부터 변화시킨 희망과 만나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느님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자기 자신을 내세우려는 인간의 의지는 ‘원칙적’으로 무너졌다.

예수의 십자가 죽음으로 모든 인간에게 하느님에 대한 적대 관계를 극복하고 영원한 생명에 이를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이것이 예수의 부활에서 가시화된다. 거기서 ‘새로운 피조물’의 생명, 구원하는 하느님 사랑의 주권이 이미 우리 세상 한가운데서 돌이킬 수 없이 시작되었다. 이로부터 세상의 ‘멸망’과 하느님의 새로운 세상의 ‘시작’을 체험하기 위해 우리가 더 이상 세상의 시간적인 종말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근본적으로 종말은 이미 일어났다.” 그러므로 정확히 말하자면 그리스도교 희망은 십자가에 처형된 예수의 부활에 근거를 두고 있다. 새로운 삶은 예수와 함께 적극적으로 십자가의 죽음에 동참하는 이들에게 약속되어 있다. 따라서 십자가가 동반된 그리스도교의 희망은 지상과 무관한 피안에 머물거나 미래를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희망은 여기 그리고 지금 도래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한 위탁과 봉사를 의미한다.

3.3. 순례하는 이들의 희망

3.3.1. 최종 목적지인 하느님 나라

하느님 나라에서 중요한 것은 하느님과 나누는 친교, 그분과 함께하는 삶이다.

지상에서 하느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하느님과 함께하면서 영원에 이르기까지 하느님과 친교를 나누고자 한다. 하느님 나라에 대한 종말론적 희망, 곧 죽음 이후에 하느님을 뵈고 그분 안에 영원히 머물고자 하는 기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서 비롯된다. 하느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놓은 당신의 아들을 죽음에서 일으키심으로써 당신의 사랑이 죽음을 넘어선다는 것을 확증해 주셨다. 하느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완성된 새 계약의 표지이며 하느님의 선물인 것이다.

하느님께서 무상으로 베푸시는 하느님 나라는 현재와 미래 사이의 긴장 속에 있다. 예수와 함께 이미 시작되었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느님 나라는 믿는 이들에게는 이미 경험한 것이며 아직 희망해야 할 목표이다. 이 희망은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으로 완전하게 성취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미’ 작용하는 하느님 나라는 지금부터 새로운 태도로 생활하도록 격려하고, 지금부터 하느님 나라를 살도록 용기를 부여한다. 한편 ‘아직’ 도래하지 않은 하느님 나라는 하느님께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죽음과 슬픔과 괴로움이 사라질(묵시 21,4) 새 하늘과 새 땅을 고대하게 한다.

예수의 선포로 가까워진 하느님 나라는 예수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달린 자의 부활 사건, 십자가에 달린 자의 통치”라는 구체적인 형태로 드러난다. 이러한 표상은 새 창조의 하느님 나라가 십자가를 필연적으로 수반하며, 현실과 무관한 이상향(理想郷)이 아니라 지상의 고통 안에 실재함을 의미한다. 하느님 나라를 향하여 순례하는 그리스도인은 부활에 대한 위대한 희망으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을 따르고 본받음으로써 지상에 하느님 나라를 건설해야 할 과제를 지닌다. 십자가와 부활로 지상에 현존하는 하느님 나라는 하느님을 믿지 않는 세상과 대립하게 된다. 그러나 하느님 나라를 희망하는 이들은 피조물과 함께 종살이에서 해방되기를, 하느님의 자녀가 되기를 인내를 가지고 기다린다.(로마 8,22-25) 예수의 죽음과 부활로 선취된 하느님 나라를 이미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죽음과 허무의 세력에 굴복하고 있는 이 땅을 포기

하지 않고, “온유하게 받아들여야 하고, 만물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는 화해의 고향을 위해 고향을 잃은 자들과 함께 고향이 없는 자가 된다. 그는 하느님의 평화가 없는 자들과 함께 평화가 없는 자가 된다. 그는 오고 있는 하느님의 의를 위하여 불의한 자들과 함께 불의한 자가 된다.” 모든 이의 모든 것이 되시는 하느님 나라의 약속은 세상을 향한 파견의 근거가 된다.

3.3.2. 인간의 조건

그리스도인은 완성된 하느님 나라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을 간절히 희망하면서, 그 나라를 향해 가는 나그네이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어떤 이는 지상에서 나그넷길을 걷고 있고, 어떤 이는 이 삶을 마치고 정화를 받으며, 또 어떤 이는 ‘바로 삼위이시며 한 분이신 하느님을 계시는 그대로 분명하게’ 뵈옵는 영광을 누리고 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전능하신 하느님의 피조물로 자신을 자각하며 “님 위해 우리를 내시었기 님 안에 쉬기까지는 우리 마음이 찻찻하지 않삽나이다”라고 고백하듯이 하느님을 향하여, 하느님에게서 창조된 인간은 하느님을 추구하고 갈망하기 마련이다. 인간은 천국에서 하느님을 직접 뵈고 그분 안에 영원히 머물게 될 때 모든 염원이 성사(成事)되는 지복직관(至福直觀)에 이르게 된다. 인간의 존엄성의 근거는 하느님과 친교를 나누도록 부름 받은 인간의 소명에 있다. 하느님의 사랑으로 창조된 인간은 언제나 하느님의 사랑으로 존재하며, 하느님의 사랑을 인정하고 자신을 하느님께 맡겨드리면서 온전히 진리를 살아갈 수 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 모상대로 창조하신 인간에게 자유를 선사하신다. 자유는 인간에게 하느님을 대신하여 피조 세계를 다스릴 권한을 부여하여 인간의 품위를 높여주지만, 그 남용으로 하느님의 모상을 훼손하고 축소하는 모순성을 지닌다. “인간이 스스로 온갖 욕정의 연속에서 벗어나 자유로이 선을 선택하여 자기 목적을 추구하고 적절한 도움을 받아 효과적으로 슬기롭게 행동할 때 인간은 (이러한) 존엄성을 얻는다. 그러나 죄로 손상된 인간의 자유는 하느님 은총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하느님께 나아가는 지향을 완전히 실현할 수 없다.”

인간의 자유에 대한 무분별한 선택으로 손상된 하느님의 모상은 예수가 생명을 내어놓음으로써 회복되고 깨끗해졌다. 예수의 죽음과 부활로 인간은 죄를 용서받았고,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이들에게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은총이 허락되었다. 이렇듯 인간들 사이에 하느님 나라는 그리스도의 업적에 힘입어 세워진다. 하느님 나라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느님의 자녀가 된 이들의 모임이며, “이는 하느님 나라의 실현을 이미 이 땅에서 선취해서 보여준다. 더 나아가 예수께서는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써 입양으로 하느님의 자녀가 된 모든 이들이 죽음의 순간에 누리게 될 복된 운명을 미리 보여주셨다. 그것은 다름 아닌 삼위일체 하느님의 품 안으로 되돌아가는 것으로, 그 안에서 지복직관의 은총을 누리고 삼위이신 성부, 성자, 성령 사이의 복된 친교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 결정적인 순간은 세상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완전히 성취될 것이다.”

3.3.3. 다가올 영광의 보증

인간은 하느님의 사랑만이 줄 수 있는 참되고 영원한 행복을 누리도록 창조되었으나 미래에 성취될 것을 현재 미리 맛볼 수 없다면 길을 잃고 마는 상처 입은 자유를 지닌 존재이다. 그러기에 인간은 지상을 순례하는 동안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최종 목적지를 향하여 인도받아야 하며 그 목적지는 죄와 죽음을 이기신 주님, 성찬례에서 특별한 방식으로 현존하시는 그리스도이시다. 성찬례는 ‘이미’와 ‘아직 아니’의 긴장 속에서 “이방인과 나그네”로 살아가는 하느님의 백성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하느님 나라에 자리가 마련되어 있다는 표지이며, 영성체를 통해서 순례의 여정을 계속할 수 있는 영적 양식을 제공한다.

3.3.3.1. 영성체

성찬례는 그리스도께서 당신 자신을 양식으로 내어주시는 진정한 잔치이다.

교회는 몸과 피의 살아있는 성사 안에 현존하시는 그리스도에게서 양식을 얻고 그분의 빛을 얻는다. 최후만찬에서 예수는 당신을 포도나무로 소개하면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듯이 당신 안에 머물러 많은 열매를 맺으라고 제자들에게 권고한다. “그리스도께 결합되어 ‘머무르는 것’은 인간의 내밀한 원의이며 그 자체로 추구해야 하는 목표이다. 성찬례는 ‘지금 여기’에서 그리스도와의 영원한 결합, 영속적인 친교에 대한 열망에 응답할 수 있다. 성체를 받아 모신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되어 그분의 생명으로 살아가고 그분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일상에서 의지의 나약함을 체험한 인간은 성찬의 잔치에서 스스로 자양분으로 자신을 내어놓으신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영함으로써 전인적으로 변화된다. 이처럼 성찬례는 가난하고 힘없는 이들을 위한 영적인 힘이며 “구원 활동 전체에 힘을 불어넣어 주는 지극히 명확한 원리, 곧 가장 약한 이들에게 자신을 낮춰 그들을 들어 높이는 자비의 미덕”의 절정인 것이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살을 받아먹는 영성체는 세례성사 때 받은 은총의 생명을 보존하고 성장시키고 새롭게 한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의 생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죽을 때까지 나그넷길의 양식인 성체를 양분으로 받아야 하며, 우리가 죽을 때에는 이 양식을 노자로 받게 된다.”

3.3.3.2. 대신덕

어린양의 희생 제사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한 계약을 맺으신 파스카의 참된 어린양으로 계시면서 믿음, 희망, 사랑의 덕을 더해준다. 빵과 포도주의 가시적인 형태에서 그리스도의 성체와 성혈을 보려면 새로워진 신앙의 힘이 요구된다. 사제의 손으로 축성된 빵과 포도주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마주한다는 인식은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성찬례에서 고백하는 믿음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사이의 간극을 뛰어넘게 한다. 이러한 믿음은 일상에서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아가갈 용기를 북돋우며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맡기신 사명에 더욱 굳건히 투신하게 한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재림을 선포하는 성찬례는 육신의 부활에 대한 희망과 신앙의 표지를 간직하고 죽은 이들을 다시 만날 가능성에 대한 희망을 키워준다. 오순절 이후 새 계약의 백성인 교회는 성찬례에서 다시 오실 주님의 현존을 체험하면서 천상 교회와의 영원한 일치를 위한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그리스도께서는 빵과 포도주의 형상에 실존하여 계시면서 하느님 백성의 미래를 확장해 주고 세상 종말에 있을 부활하게 될 순간으로 나아가게 해주신다. “성찬 예식과 그리스도인 삶 전체에 내재된 종말을 훌륭하게 보여주는 것은 바로 이러한 변화된 삶의 결과와 복음에 따라 세상을 변화시키려는 노력이다.” 그러므로 성찬례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삶을 완전히 성찬례적인 것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예수께서는 최후만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사랑의 새 계명을 남기셨다. 그리스도인의 최대 목표인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지니셨던 사랑의 힘으로 이룰 수 있다. 성찬례에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먹은 그리스도인은 다른 이를 위하여 “쪼개진 빵”이 되어, 더욱 정의롭고 형제애가 넘치는 세상을 건설해야 한다. 성찬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대한 십자가의 사랑을 본받을 수 있는 사랑의 힘을 부여해 주고, 희생의 길을 따를 때 생기는 어려움에 맞설 수 있는 힘을 준다. 성찬례에서 그리스도께서 내어주신 생명을 얻은 사람은 자신의 모든 능력을 다하여 자신을 내어주고 사랑의 기쁨 중에 살아간다. 사랑의 성사인 성찬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 자신을 내어주심으로써 모든 인간을 향한 하느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알려주는 선물인 것이다.

3.3.3.3. 새 하늘 새 땅

세상을 보시기 좋게 만드신 분께서 세상을 완성하시리라는 종말론적 희망이 우리를 하느님 나라로 발돋움하게 한다. 전능하시고 자비가 넘치시는 만민의 하느님께 바쳐진 도시, 옛 예언자들이 실의에 빠진 이스라엘에게 제시한 구원의 땅

예루살렘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써 천상 전례가 거행되는 거룩한 도성으로 변모된다. 그리스도인은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천상 예루살렘에서 “지성소와 참다운 성막의 사제로서 하느님의 오른쪽에 앉아계심”을 믿는다. 그리고 “하늘의 모든 군대와 함께 주님께 영광의 찬미가를 부르며, 성인들을 기억하고 공경하면서 그들의 친교에 참여하기를” 희망한다. 지상의 전례인 성찬례에 참여하는 나그네들은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에서 거행되는 천상의 전례를 미리 맛보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속에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린다. 그리하여 성체를 받아 모신 그리스도인은 성체성사를 통하여 끊임없이 구원하시는 하느님께 감사드리면서 주님 잔치의 풍성한 결실을 청한다. “인자하신 주님, 성체성사로 저희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시니, 저희가 세상에서 그분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하늘에서 그분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소서.”

성찬례는 그리스도인에게 현실에 투신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고, 천상 전례에서 누리게 될 영원한 생명을 미리 맛보게 해준다. 성찬례의 종말론적 긴장은 그리스도교 희망의 씨앗이 되어 “오실 분”(묵시 1,4)께로 시선을 드높여 준다. 최후 만찬에서 제자들의 시선을 하느님 나라에서 이루어질 파스카 완성으로 향하게 한 주님의 약속, 곧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이제부터 하느님의 나라가 올 때까지 포도나무 열매로 빛은 결코 마시지 않겠다”(루카 22,18)라는 예고를 기억하며 하느님 백성인 교회는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성찬례를 거행하며 기도한다. “마라나 타!”(1코린 16,22), “오십시오, 주 예수님!”(묵시 22,20)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성찬례를 거행하면서 구원의 신비를 기념하며 마지막 완성의 단계, “얼굴을 맞대고” 하느님을 뵈옵게 되기를 희망한다. 성찬례는 역사적 그리스도의 구원 행위를 미래에 완성될 구원을 준비하기 위하여 현재에 투영함으로써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확실한 보증과 명백한 표징이 되는 것이다.

나가는 말

인간 존중은 이유를 불문하는 도리이지만 굳이 그 이유를 밝힌다면 현존재인 인간 안에 숨겨진 역사와 가능성에 대한 가치 때문일 것이다. 더불어 현상(現象) 이면의 본질을 알아차릴 수 있는 헤안이야말로 인간 존중의 근거가 된다. 급변하는 주변 상황에서도 불변의 이치를 간파할 수 있는 이들, 불안과 절망 가운데에서도 다음 세대를 위한 노력을 그치지 않는 이들이 있기에 세상은 존재하고 더 나은 미래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다.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본고에서 언급한 하느님 나라에 대한 갈망은 이스라엘이 하느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며 신앙 공동체로 거듭나게 했던 이집트 탈출에서 본격화되었다. 하느님의 부재로 여겨지는 역사적 현실에서도 하느님의 다스림을 고대하던 이들이 있었기에 오늘날에도 하느님 나라를 주제로 삼을 수 있는 것이다. 다만 그리스도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피조물이 새 생명을 얻어 누린다는 것(2코린 5,17)을 믿음과 희망과 사랑으로 고백한다. 하느님 나라는 예수의 복음 선포로 이 세상 가운데 이미 존재하며, 예수의 죽음과 부활로 구원의 현실이 되며, 이로써 의문에 부쳐지는 미래가 아니라 명백한 실재(實在)로서 추구해야 할 최종목표이다.

‘1장 하느님 나라에 대한 이해’에서 성경을 중심으로 하느님 나라에 대한 변화된 관점을 살펴보았다. 예수의 복음 선포의 핵심 주제인 하느님 나라는 구약성경에 근거를 두고 전개되지만 분명한 차이가 있다. 기약 없는 염원으로 남겨질 하느님 나라는 예수에 의해 현재화되고 종말론적 의미를 띠게 되었다. 종말론적 긴장감은 “때가 차서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마르 1,15)라는 예수의 첫 선포에 잘 드러난다. 예수는 유대인들이 고대해 온 하느님 나라가 그들 가운데에 와있으며, 그 나라는 회개하고 믿는 자들의 차지가 될 것이다.

예수의 가르침과 행적과 기적은 기존의 하느님 나라에 대한 기대를 역전한다. 예수는 하느님 나라를 감추어져 있고 볼품이 없거나 하찮은 일상의 소재로 설명

한다. 이러한 하느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가난한 이들, 당대 사랑의 정신을 잃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인으로 낙인찍힌 소외된 이들의 차지가 될 것이다. 이러한 예수의 복음 선포는 사회적 전복으로 민족의 자주성을 회복하려는 이들, 율법으로 민족의 정체성을 보존하려는 이들에게 배척당했다. 병자를 고치고, 마귀를 쫓아내고,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오천 명을 먹이는 예수를 두고 놀라워하면서도 메시아로 받아들이기에 석연치 않았다. 초인적 면모에서 예수가 오기로 약속된 메시아나 예언자일지도 모른다는 의혹은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하는 식사와 같이 율법과 관습에서 벗어나는 연사들로 말미암아 사라졌다. 그렇지만 예수를 믿고 따르는 이들에게는 예수의 식탁 공동체는 죄의 용서와 구원이 이루어지는 하느님을 마주하는 식사, 곧 소수의 선택된 자들만이 향유할 수 있다고 여겨지던 메시아 잔치의 참여였다.

죄 이외에 인간의 조건을 똑같이 취하신 하느님 아들 예수는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면서 자신을 자연과 마귀를 다스리고, 구원의 시간을 앞당기는 하느님 나라의 주인이며, 하느님 나라의 메시지로 드러낸다. 예수는 사랑의 계명으로 율법의 정신을 회복하고, 성부 하느님의 완전한 사랑을 계시하기 위하여 영광의 때를 맞아들인다. 그리고 이 땅에 하느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라시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 새로운 파스카를 준비한다.

‘2장 메시아 잔치의 선취’에서 하느님 나라의 구체적인 의미를 최후만찬기를 통해 알아보았다. 이 세상에서 아버지께로 건너갈 때가 온 것을 인지한 예수는 파스카 축제 분위기에서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나눈다. 최후만찬은 파스카 식사이고, 이별 석상이지만 새로운 파스카가 약속되는 메시아 잔치의 예형(type)이다. 후기 유다이즘 시대에 고조된 묵시운동의 영향으로 예수 시대 유대인들은 지상에 올 하느님 나라, 곧 메시아 임재에 대한 열망으로 충만했다. 그러나 예수는 최후만찬에서 종말론적 예고로 우리의 시선을 위로 향하게 한다. 하느님 나라에서 새 포도주를 마시게 되리라는 약속은 예수의 피로 맺어질 새 계약으로 실현된다.

최후만찬에서 예수의 말씀과 행동에는 죽음에서 부활로 옮겨가는 파스카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예수는 고난을 겪을 것이고 많은 이를 위하여 피를 흘릴 것이다. 그리하여 구약의 시나이 계약, 예언자들의 예언들이 그의 대속적인 죽음으로 실현될 것이다. 예수의 죽음은 성부 하느님의 뜻에 따라 스스로 자신의 몸과 피를 내어놓는 사랑의 행위로 파스카 어린양의 희생을 능가한다. “파스카 축제가 하느님 나라에서 다 이루어질 때까지 이 파스카 음식을 다시는 먹지 않겠다.”(루카 22.16) 예수의 종말론적 예고는 그의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 나라의 완성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쁨과 희망을 준다.

최후만찬은 과거에서 미래로 옮겨가는 파스카적인 역할을 하고, 과거와 미래를 현시점으로 종합한다.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는 내 몸이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루카 22.19)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로 맺는 새 계약이다.”(루카 22.20) 파스카 만찬의 빵과 포도주는 예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의 몸과 피로 변화되고, 이를 취함으로써 예수와 한 몸이 된다. 죽음을 목전에 둔 예수가 파스카 축제 때 최후만찬을 열었고, 전에 없던 말씀으로 마지막 식사를 계속하기를 명한다. 이 만찬을 기념할 때마다 예수와 한 몸이 될 것이며 천상 예루살렘의 혼인잔치에 미리 참여하는 것임을 제자들과 초대 교회 공동체는 예수의 부활사건을 체험하면서 깊이 깨닫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는 이들에 대한 사랑의 기억, 빵과 포도주의 형상 안에 현존, 메시아 잔치를 선취하는 기쁨,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관통하는 최후만찬은 성찬례로 의식화된다.

‘3장 종말론적 삶을 위한 성찬례’에서 예루살렘 초대 공동체의 성찬례 거행과 성찬례의 종말론적 의미를 살펴보았다. 그리스도교 희망의 근거가 되는 요소에서 하느님 나라가 최종적으로 도달해야 할 목표임을 확인하였다. 하느님 나라를 향해 순례하는 하느님 백성은 인간적 한계로 포기하고 싶은 유혹을 받지만 사랑의 성사인 성찬례에서 영적 양식을 얻어 그리스도와 하나 됨을 몸소 받아들이고, 이미 마련된 천상 잔치에 대한 기쁨을 누리며 다시 순례의 길을 떠날 채비를 갖춘다.

성찬례는 감사제이고 희생제이며 하느님의 거룩한 전례이면서 주님의 만찬이다. 주님의 만찬은 예수의 피로써 맺어진 새 계약의 완성과 천상 잔치에 미리 참여함을 의미한다. 부활사건을 체험한 초대 예루살렘 공동체는 빵을 쪼개는 예절을 통해서 최후만찬을 기념하고, 천상 예루살렘의 혼인잔치에 참여한다고 여겼다. 따라서 이들의 성찬례는 종말론적 찬양과 기쁨이 넘치는 분위기로 거행되었다.

희망은 과거의 체험을 기억하며 더 좋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는 신뢰의 표현이다. 그리스도인에게 희망은 구약시대부터 유래하는 하느님의 다스림에 기반을 두면서 새로움을 지닌다. 그리스도인의 최종미래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리라는 희망이다. 죽음보다 강한 고통 앞에서도 그리스도인은 견디어 낼 희망이 있다. 죽음보다 강한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서 비롯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사건은 예수라는 특정인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라고 고백하는 이들에게 열려있는 모든 기대를 뛰어넘는 최종미래이다. 그러므로 하느님 나라는 시작이며 마침이신 그리스도께서 눈물을 씻어주려고 기다리시는 사랑이 깃든 새 하늘 새 땅이며, 이미 믿는 이들에게는 구원의 실재인 것이다.

하느님의 모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생명의 원천이신 하느님을 뵙기를 갈망하지만 한편으로는 죄로 기울어지는 한계를 지닌 존재이다. 하느님 없는 ‘하느님 나라’, 곧 이성과 과학이 인간의 구원까지도 보장해 주리라고 기대하는 시대적 풍조는 보이지 않는 것에 희망을 두는 것을 주저하게 한다. 지상의 삶을 타향살이로 여기며 하느님 나라를 추구하는 순례자 신분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성찬례는 순례를 계속할 수 있는 견인차가 된다.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고, 한없이 미래로 벗어나 있는 것 같은 하느님 나라가 성찬례 안에서 가시적으로 드러나고, 그리스도와 일치하는 영성체를 통해서 이미 마련되어 있음을 체현한다. 나아가 성찬례가 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하느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자신을 내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성사라는 점은 순례의 삶이 사랑으로 채워져야 함을 깨닫게 해준다.

말씀을 사는 우리들의 시선

말씀을 맛 들인 이들은 점차 하느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떠한 시선으로 나와 우리 사회 그리고 교회를 바라보고 있나요?

아래는 성바오로 신학영성 2학년 4과에 제시된 문제입니다. 아래 문제에 대한 학생들의 나눔을 읽어보고 오늘날 우리 사회와 교회가 반성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봅시다.

하느님께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의 영성이 없이 또 율법만으로 하느님과 의로운 관계를 추구하려는 바리사이파 사람들이 추구하는 영성의 경향의 예를 오늘 우리 세계의 삶 속에서 찾아 적어보십시오.

▶ 2014년 4월 16일. 제주로 가던 세월호가 바닷물에 잠겼다. 그리고 3년 만에 물 밖으로 나왔다. 미 수습자 9명 중 4명이 유족의 품으로 돌아왔고 아직도 5명은 수색 중에 있다. 기나긴 세월 힘든 과정을 지켜보는 사람들의 생각은 참 다양했다. 수학여행을 가다가 생긴 선박사고에 지나친 특혜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내 눈에는 사랑이 없는 바리사이처럼 보였다. 그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도 바리사이라고 생각됐다. 배를 물으로 올리는 작업의 마지막 단계에서 난관에 봉착할 때는 나조차도 '꼭 저렇게 마무리를 해야 하나' 하고 생각했는데 그 순간 나도 바리사이파와 다를 바 없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 하지만 유해 미수습자가 하나씩 신원이 확인되어 유족의 맺힌 한이 다소 위안을 받을 때는 큰 수고

를 들일 만한 가치가 있구나 느끼기도 했다. 우리 생활에서 사랑의 영성 없이 나의 이익에 집착하거나 실리와 효율성에만 집착한다면 누구든지 바리사이파의 일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고영순(헬레나)

▶ 요즘 북한 동포와 어린아이들을 위한 물질적 지원은 물론 인도적 지원에도 부정적인 의견이 많지만 하느님의 사랑은 이념과 종교를 초월해 실천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드 논란은 결국 하느님 사랑 곧 이웃에 대한 사랑보다는 나만 잘 먹고 잘살면 된다는 이기주의적 논리로 전개되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대화와 타협을 통한 해결책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봉숙(올리안나)

▶ 세월호에서 희생된 단원고 2학년 3반 담임 김초원 선생님은 정규직 교사가 아니라 기간제 교사였다. 참사 당시 5층에 있었기에 탈출할 수 있었음에도 담임 선생님으로서 마지막 순간까지 아이들과 함께했다. 그런데 ‘민간인 근로자’이므로 규정상 공무 중 사망한 ‘순직’이 아니라 산업 재해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죽음에도 차별을 두는 기막힌 현실과 관행이라는 낡은 기준만을 내세워 ‘순직 인정 불가’라고 운운하는 인사혁신처와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한 교육부와 공무원 연금 관리공단 등의 모습에서 율법에 갇혀 하느님의 참된 가르침을 제대로 보지 못한 바리사이파 사람들의 모습을 본다.

김연희(크리스티나)

▶ 돈의 힘, 권력의 힘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은 그 위에 계시는 하느님의 힘에 대해서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나를 포함) 우리 삶 아주 가까이에서 활동

하는 돈과 권력의 힘보다 더 가까이 계시는 하느님의 권능을 우리는 알지 못한다. 그래서 ‘물질만능주의’적 행태가 더욱더 기승을 부리며, ‘갑질 논란’, ‘금수저’, ‘조물주보다 더 무서운 건물주’라는 말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 같다.

김미자(요안나)

▶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느님과 의로운 관계를 추구하려 했다지만, 그들이 진정으로 하느님과 의로운 관계를 추구한다는 순수한 목적만을 지녔다면 지금 우리가 말하는 바와 같은 바리사이파 사람들의 부정적인 이미지는 결코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비록 그들의 첫 마음은 순수하였을지라도 하느님과 관련하여 그들이 누리는 특권이나 이권, 우월의식 등... 은연중에 자리 잡게 된 욕심과 사심들이 하느님보다 더 앞서게 되면서 하느님을 오히려 자신의 욕망이나 욕심을 채우는 도구로 전락시켰기 때문에 그들은 하느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인간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리는 모순된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하느님과 의로운 관계를 추구하려는 바리사이파 사람들의 영성의 경향을 오늘 우리 세계의 삶 속에서 찾아본다면, 하느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을 마치 하느님의 뜻인 양 고집하고, 자신의 바람과 고집을 하느님의 이름으로 다른 이들에게 강요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서 하느님의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는 모든 행사나 사업들을 생각해 봅니다. 그 안에서 참 선하고 좋은 일들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위에서 말한 바리사이파 사람들이 지닌 영성의 경향도 많이 접하게 됩니다. 하느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진정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니다. 저 역시도 수없이 많은 순간에 제가 바라는 것과 하느님께서 바라시는 것을 너무나 쉽게 혼동하였기에 더욱 두려운 마음으로 하느님 앞에서 그분의 뜻에 제 마음을 합치는 노력을 해야겠다고 거듭 다짐해 봅니다.

박영희(로즈마리)

▶ 북한의 핵, 미사일 전쟁으로 나아가려는 지도자, 멕시코 장벽 건설, 미국의 이민정책, 기후변화(파리협정 탈퇴), 테러와 전쟁을 일으켜 무고한 생명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세력들, 위안부(소녀상)에 대해 막말하는 지도자들, 갑질 횡포하는 힘 있는 자들

김하옥(마리안나)

▶ 예수님의 비유에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며 주님의 자비를 바라는 세리가 의롭게 되어 집으로 돌아갔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이는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이는 높아질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무색하게 하는 상황들이 너무도 자주 눈에 띄어 마음이 아픕니다. 성당에 오면 모두가 함께 어울리지 못하고 개 닭 보듯 데면데면 대한다고 탓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한심하다는 느낌을 넘어 가슴이 아리기까지 합니다. 그게 안타까우면 사랑의 마음으로 자기가 먼저 나서서 사람들을 환영하고 챙겨주면 될 것을 다른 신자들을 탓하기만 하니 측은한 마음까지 듭니다. 언제까지 다른 사람만 탓하며 살려나가 싶습니다. 남이 아닌 내가 바로 성당의 구성원이며 내가 바로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나는 객체가 아니라 주체입니다. 남에게 바라는 것을 내가 하면 되는 것입니다. 미사가 끝나고 다른 사람이 반갑게 인사할까 봐 두려워 부리나케 성당을 빠져나가면서 서로 알은 체를 안 하네, 차갑네, 말들을 하는 걸 보면 언제 이 사람들이 교회의 주체가 되어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복음을 살아가게 될지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너나 나나 모두 하나같이 바리사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태도를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영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양진순(다리아)

▶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공격과 차별. 이스라엘은 대부분 유대교를 신봉하며,

국토회복과 성전 탈환을 위해 오랫동안 팔레스타인과 전쟁을 계속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부당한 무차별 공격으로 무고한 팔레스타인 어린이나 여성, 노인 등 수많은 사람들이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목숨을 잃는 등 많은 고통을 겪고 있다. 율법준수에는 철저하지만, 다른 사람의 생명 특히 가난한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인권과 자유를 짓밟으며 자국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국가지상주의는 하느님과 이웃 사랑을 무시하는 바리사이적 영성의 결과라고 생각된다.

정신채(라파엘라)

‘주님의 종’의 길을 걸어오신 어머니



민경자(마리오셉) 수녀
우편 4학년

“그는 우리의 병고를 메고 갔으며 우리의 고통을 짊어졌다. ... 그의 상처로 우리는 나았다.”(이사 53,4-5)

32세의 여인은 그날도 이른 새벽 남편의 출근을 도왔고, 남편의 출근 후 일상의 삶을 보냈다. 9살의 딸, 6살의 아들, 3살의 딸과 생후 1년 된 아들을 돌보고 집안일을 하며 보냈다. 그날 갑작스런 연락을 받고 가서 보니 33살의 남편은 건설현장에서 동료들 틈에 끼어 사고로 온몸이 부서지며 세상을 떠났다. 졸지에 하늘 같은 남편을 잃은 여인은 4명의 아이들의 눈길이 자신을 향해있는 것을 보며 사별의 아픔을 추스르지도 못한 상태였지만 일을 해 아이들을 먹여 살려야 한다는 사명에 능력도 없고 할 수 있는 일도 없어 두렵기만 한 세상 안으로 발을 들였다. 세상은 그런 연약하고 무거운 십자가를 진 여인을 가만두지 않았다. 사고사로 나온 위로금은 남편의 형제들이 관리한다며 가져갔고, 결국 그 돈은 어떻게 쓰였는지도 모르게 되었다. 작은 체구의 여인은 아이들을 위해 좌판에서, 공장에서, 식당에서 몸을 아끼지 않고 일하며 오직 아이들하고 먹고사는 일에만 매달렸다. 임금을 받지 못한 적도 있고 못된 주인을 만나 온갖 협박과 폭력에 서러운 눈물을 흘리기도 했으며 퇴근 후 버스가 끊겨 캄캄한 밤길을 무서워 떨며 걷고 또 걸어 새벽녘이 다 되어서야 집에 오기도 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이 고단한 삶!

너무 힘들어 도움을 요청하는 여인에게 시어머니는 “니가 돈이 있으니 서울에서 살지”, “남편 잡아먹은 년”이라는 말로 조롱하며 가슴에 못질을 해댔다. 하루 벌어 하루 사는 모진 생활 속에서도 남편이 남긴 낡은 집 한 채를 지키며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 애쓴 여인의 삶은 기구하기 짝이 없었다. 그 세월 속에 고운 모습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어느새 마디마디 굵은 손가락과 얼굴의 굵은 주름과 휘어진 허리에 병고까지 짊어진 불품없는 늙은 할머니의 모습이 되었다. 세상의 멸시와 배척과 모진 고통은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저 지나간 세월이 되었다. 다행히도 그 자녀들은 여인의 희생과 헌신과 사랑을 먹고 잘 자라서 형제애가 있는 평범한 어른이 되어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9살 큰딸이던 나는 50대가 되어서야 문득 한 여인으로서의 어머니의 고된 삶을 기도 속에 돌아보았다. 내가 성소를 처음 느끼는 과정 속에 엄마의 모습이 마치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보인 순간이 있었다. 그 당시 그것이 내 성소의 앞으로의 삶을 비추는 또 하나의 무엇일 거라는 막연한 이해가 있었으나 오늘에서야 주님의 종 넷째 노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신 길이 어머니의 길이었음을 알았다. 성경의 단어 하나하나가 뿌리를 내리듯 나에게 와 박혔고 한 여인이자 어머니로서 사신 삶의 고뇌가 전해졌다. 알아들을 수 없던 그 아픔들은 어린아이였던 내게도 많은 영향을 미쳐 힘들었는데 엄마의 삶은 내가 알지 못하는 힘겨움과 아픔과 생활고의 연속이었을 것이다. 우리를 위해 묵묵히 한길을 걸으신 어머니. 어머니가 지신 그 삶의 고통이 있었기에 지금의 나와 우리 남매가 있다는 것을 매순간 은총으로 알아듣게 하시더니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는 여인이자 한 사람으로서의 어머니 삶이, 하느님께 매 맞고 천대받는 것 같았던 그 삶이, 그의 잘못된 것만 같았던 삶이 나의 죄와 세상의 악행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하셨다. 그래도 어머니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시고, 인간의 기본적인 도리는 해야 한다시며 몇 푼 되지 않는 월급을 급조해 시어머니를 모시고 친인척에게 할 도리는 다하셨다. 어린 내가 왜 그래야 하냐고 물으면 악한 끝은 없어도 선한 끝은 있다며 사람은 선하게 살아야 한다고 본을 보여주신 어머니~! 무뢰배 같은 이들과 세상에 폭행을 저지르지도 않고 거짓을 담지도 않은 어머니!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털 깎는 사람 앞에 잠자코 서있는 어미 양처럼 그는 자기 입을 열지 않았다”(이사 53,7)는 어미 양처럼 깎이고 부서지고 찢긴 어머니의 마음!

어머니의 그 헌신과 무한한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닮았다. 하나님께서는 어머니라는 모성에 당신의 이미지를 가장 깊게 담으셨나 보다. “그를 으스르뜨리고자 하신 것은 주님의 뜻이었고 그분께서 그를 병고에 시달리게 하셨다. 그가 자신을 속죄 제물로 내놓으면 그는 후손을 보며 오래 살고 그를 통하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리라”(이사 53,10)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함인가 보다. 내가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 한 여인을 통해, 그 여인의 고단한 삶의 끝에 빛을 보고 자기의 예지로 흠족해하며(이사 53,11 참조) 그가 살아낸 또는 살아낼 수밖에 없던 삶의 의로움이 그 자녀에게 평화의 삶을 주는 것이리라.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어머니의 삶에 반영된다. 이제 어머니께서도 자식에 대한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고 노년의 삶을 평화롭게 사시길, 마음과 육신이 흠족해하시길 기도한다. 어머니께서 십자가를 지고 뒤돌아봄 없이 사셨으니 이제 나도 오로지 한길을 따라가야 하는 봉헌을 다시금 드려야겠다.

“여기에 나의 종이 있다. 그는 내가 붙들어 주는 이, 내가 선택한 이, 내 마음에 드는 이다. 내가 그에게 나의 영을 주었으니 그는 민족들에게 공정을 펴리라.”(이사 42,1)

내 봉헌의 삶 곳곳에, 동생들의 삶 곳곳에,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위기에 부딪힐 때 우리의 수고가 아닌 어머니의 의로움이 우리를 일어나게 하였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정의고 공정이었다.

어머니 엄마,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머니와 동생들과 그 가족들을 모두 봉헌하기도 전에 받아주시고 이끌어 주시며 더 큰 감사와 찬미 찬양 받으소서. 아멘.

고슴도치 같았던 나를 바꿔준 기도



이선이(제노베파)
우편 6학년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해 부모가 되었지만 내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함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처음엔 원망으로 가득 찬 결혼 생활이었지만 어느 순간 남 탓만 하고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특히 가정교육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친정아버지는 정이 많으신 분이지만 어릴 적에 6·25 전쟁을 경험했고 자라서는 월남전을 다녀오신 만큼 상처가 많은 분입니다. 제가 어릴 때 아버지는 곧잘 화를 내셨습니다. 좋게 시작한 일도 언제나 불쾌함, 고성, 화냄으로 이어져 집안이 살얼음판 같았고 식구들이 자신의 의견을 내세우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체력이 약한 저는 결혼 생활이 힘들어지고 남편의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됨에 따라 어린 아들에게 곧잘 화를 냈습니다. 대화로 문제를 푸는 방법을 몰랐고 참다가 욱하고 화를 내니 아들은 마음의 상처가 쌓여 병이 생겼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남편의 탓으로만 여겼기에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제 행동이 아버지를 닮아있음에 고통스러웠고 어떻게든 참아보려고 노력했지만 쉽게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보는 것이 힘들었고 누구에게도 도움을 요청할 수 없어 자제력을 더 잃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아들은 틱장애가 나타나 치료를 받았고 저 또한 우울증 치료를 같이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아이들 문

제는 대부분 아이에게 문제가 있어 발생하기보다 부모의 영향을 받고 나타나는 것으로 부모가 바뀌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정신과 상담을 받았지만 그때도 자신을 돌아보기보다 서로 남 탓을 하기 바빴고 그동안의 힘겨움을 남편에게서 위로받고자 했기에 우리는 평행선을 달리는 형국이 되어 서로를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시간이 흘러 동생 수녀님의 종신서원이 가까워지자 동생이 형부에게 함께 성체를 모시는 가족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청하였고 남편도 그동안 미안했던지 제가 원하는 성당을 다닐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저를 위하는 길이라 생각한다며 흔쾌히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혼인 장애를 풀게 된 저는 마음 편하게 성당에 다니며 성체를 영할 수 있었습니다. 20여 년 혼인 장애로 아무런 성사도 받을 수 없던 저였기에 너무도 기뻛고 가족과 함께 성당에 다니는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성당에서는 행복하고 기쁘게 집에 돌아오면 또 화를 내는 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 생활은 전혀 만족스럽지 않았고 아무런 변화도 없었습니다. 여전히 혼자서 고군분투하는 제 삶에 짜증이 났고 그 화를 여전히 가족에게 풀었습니다. 혼자만의 생각에 사로잡혀 나 자신만 불행하다고 느꼈고 그러다 보니 가족 간의 관계도 좋지 않아 고등학생이 된 아들은 가출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9살 터울의 딸애가 있지만 아들과 달리 딸에게는 화를 내지 않아 그 심각성을 더 못 느꼈던 것 같습니다.

두어 번의 가출 뒤 마음을 잡은 아들을 보며 불현듯 아들처럼 딸애를 키우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 하느님께 매달리며 매일 기도했습니다. 조배를 하며 내 아픔을 들여다보고 하느님께 봉헌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습니다. 성경을 읽으며 기도하는 중에 또는 화살기도로 '육하는 제 성질을 가라앉혀 주시고 아이들에게 화를 내지 않도록 도와주세요'라고 항상 기도했습니다.

두어 달 정도 지나니 조금 지치는 것 같았고 내 기도는 통하지 않는 걸까 하는 의구심 또한 들었습니다. 그러나 좌절은 잠시,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내 어릴 적의 고통이 무엇인지, 그리고 아들의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기에 나 스

스로 변화하지 않으면 이제 나와 가족을 지키기 힘들 것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의식하지 않고 1여 년이 지났을 무렵 화를 내지 않고 이야기하는 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편하게 남편과 아들을 대하니 어느덧 그들의 행동이 눈에 보이게 달라졌습니다. 아들과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아르바이트로 번 돈으로 제 선물을 챙기는 기특한 모습을 보였으며 남편은 일하는 저를 위해 식사 준비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고슴도치와 같았던 저는 그 무엇도 쉽게 받아들일 줄 몰랐고 사랑하는 가족과 사랑을 나눌 줄 몰랐던 것 같습니다. 나 자신을 알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고 그 시간 동안 상처를 주고받으며 성장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느님에게서 본 것을 이야기하신 것처럼 하느님 안에 있는 저 또한 하느님의 뜻을 살피 생각하고 행동해야겠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하느님보다 세상의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며 살고 있지만 제 행동이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더 열심히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사랑받는 자녀



김영주(로사)
이러닝 2학년

“이 여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였다.”(마르 14,8)

어떤 여인이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렸을 때 주위 사람들은 향유를 팔아 그 돈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전에 저도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사명감에 불타서 ‘아버지께 사랑받는 자녀가 되려면 이 정도는 해야지’ 하며 정신없이 교회 일에 매달렸던 것 같습니다. 물론 말씀 안에서 배우고 깨달은 것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저를 돌아보면 여전히 제 마음 안엔 평화가 없었고 가족에게 화도 자주 내었고 무엇보다도 제가 참 많이 목마르고 메마르고 피곤해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 어떻게 하면 달라질 수 있을까? 뭐가 더 필요한 걸까? 무얼 잘못하고 있는 걸까? 답을 못 찾아 참 답답했습니다. 그러다 자연스럽게 지금 살고 있는 곳으로 이사를 하였고 이젠 교회일보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남편과 아이들과 투닥거리며 사는 일이 역시 쉽지는 않더군요. 바깥 일처럼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티도 안 나고 24시간 매일이 반복되는 정신·육체노동이니 어찌면 밖의 일보다 더 힘든 것 같습니다. 아이들과 문제가 있을 때마다 각자 기도 후에 다시 문제를 바라보곤 하는데 매번 어찌나 나약한 저를 발견하는지 기도가 없었더라면 나 때문

에 아이들을 버렸겠구나 철렁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기도 후에 아이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아이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엄마는 우리 아들이 어떤 일을 잘해서, 또는 어떤 일을 해서 이쁜 게 아니야. 그냥 내 아들이어서 이쁜 거지. 그러니까 좀 실수하거나, 공부를 잘 못하거나, 때론 잘못을 해도 괜찮아. 오히려 네가 해야 할 일을 안 했다고 너무 죄책감을 가지지 않았으면 좋겠어. 생각해 봐. 네가 잘못을 해서 감옥에 간다고 해서 엄마가 너를 사랑하지 않을 것 같아? 아니면 아파서 아무것도 못 하고 누워있다고 너를 사랑하지 않겠어? 그러니까 너는 무얼 하지 않아도 너 자체로 엄마한테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고 이쁜 아들이라는 걸 잊으면 안 돼. 알았지?”

그렇게 말하는 제 자신을 보면서 이러한 부모의 마음이 하느님의 마음일 텐데... 생각했습니다. 나를 위해 무엇을 해내려 애쓰는 자식도 이쁘고 고맙지만, 한 번이라도 더 자식과 서로 맘을 나누는 따뜻한 시간을 갖고 싶어 하는 부모의 마음... 나 기쁘게 하겠다고 지치고 메마른 모습을 보는 것보다 차라리 아무것도 안 해도 좋으니 자식 웃는 얼굴 보고 싶은 그런 마음...

평생 무엇을 해내야... 더 폼 나는 일일수록...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값어치를 매기는 답답한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우리는 이미 사랑받는 자녀이고, 자신의 삶 그 자리에서 이미 그분과 함께 빛나고 있음을 깨닫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에서 참 자유를 누리는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내가 가진 것만을 나누는 것이 참되고 바르고 기쁜 소식의 전파가 아닌가 새겨봅니다.

뒤늦게 깨달은 주님의 은총



김현실(도로테아)
이러닝 5학년

되찾은 아들의 비유에서 마음에 가장 와닿는다고보다 읽을 때마다 마음이 불편해지는 인물이 있는데 바로 큰아들이다. 나 자신과 오버랩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인 것 같다.

4남매 중 셋째인 나는 어릴 적에 별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자랐다. 특별히 잘하는 것도 없고 그냥 조용하다 보니 더 관심을 받지 못했고, 특히 언니가 공부를 특출나게 잘하고 성격도 활달해서 나는 언니의 동생으로만 산 것 같다. 그래서 부모님께 칭찬받기 위해 어머니 일을 많이 도와드렸다. 초등학교 때부터 집안일을 돕다 보니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에는 가정주부가 하는 일은 웬만큼 다 할 줄 알게 되었다. 집안일을 내가 정말 하고 싶고 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했더라면 불만이 없었을 텐데 누가 시켜서 한 일이 아닌데도 집안일을 돕지 않는 오빠 언니 동생에 대해, 특히 부모님에 대해 불만이 많이 쌓여있었다.

내가 들어간 대학은 오빠 언니가 다니는 학교보다 좋지 않았는데도 동시에 3명이 대학생이다 보니 눈치가 많이 보였다. 물론 내가 자존감이 낮아 그렇게 느꼈겠지만. 그래서 장학금을 타기 위해 더 열심히 공부하고, 부모님 몰래 아르바이트도 하였다. 그런데 언니 오빠는 학비나 용돈 걱정 없이 부모님께 돈을 타 썼다.

집안에서 내가 제일 먼저 결혼했는데 직장생활을 하며 알뜰히 모은 큰돈을 결혼비용에 보태시라고 어머니께 드렸다. 그런데 어머니는 정말 최소한도의 혼수를

질이 좋지 못한 물건들로 해주셔서 나중에 시어머니와 갈등이 참 많았다. 그 뒤 언니와 오빠가 차례로 결혼했는데 비용 한 푼 보태지 않았는데도 내 혼수품보다 더 좋은 물건들을 많이 해주셨다. 나는 항상 뒤에서 말없이 부모님 걱정하며 착하게 살려고 노력해 왔는데 부모님은 왜 이리 불공평한가 하는 생각으로 마음속에 오기가 많이 차올랐다. 형제들에 대해서도 항상 질투가 쌓여있었다. 결혼식 전날 서운했던 일들을 한 편의 영화로 만들어 부모님 앞에 풀어놓고 떠났다. 부모님들은 착하디착한 딸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기에 많이 당황해하셨다. 어머니는 집안일을 안 도와준 다른 형제들보다 내가 더 나쁘다고 하셨다.

지금 생각하면 참 부끄럽고 웅졸했지만, 그때 그렇게 이야기를 풀어놓은 후에 아버지와는 사이가 많이 개선되었고 지금도 부모 자식 간의 갈등은 꼭 말로 터뜨려 서로의 오해를 풀어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부모님의 사랑하는 방식을 알려면 역시 자식을 키워보아야 하나 보다. 하느님 아버지 곁에 머물러 있을 수 있는 것 자체가 큰 은총이고 감사한 일이듯,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큰 고생 하지 않고 나를 잘 키워주신 부모님께 감사해야 함에도 불손한 마음을 가졌던 나는 정말 못난이었다.

큰아이가 첫영성체 할 때부터 성당 봉사활동을 시작했는데, 역시 하느님 아버지께 칭찬받으면 된다는 생각보다 주위 사람들, 신부님 수녀님들에게 칭찬받기 위해 열심히 봉사했다. ‘예’, ‘아니요’ 할 것 없이 다 덤벼들어 내 힘으로 하려다 많이 깨어지고 또 많이 둥글어졌다. 주님께서는 나 같은 의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조차 당신의 길로 인도하는 은총을 주신다는 것을 한참 뒤에나 깨닫게 된 것 같다. 하느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사랑하는 아버지 곁에 머무르기 위해 봉사활동을 해야 하는데 가식적인 나는 착한 사람 콤플렉스에 빠져서 마구 허우적대며 살아왔다. 하지만 그런 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을 테니 그것 또한 감사한 일이다.

요즘도 여전히 내적 교만에 많이 시달린다. 주님 일을 하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낫기에 그 자리에 있다는 착각이 가끔씩 들 때가 있다. 그런 생각이 아예

안 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우리에게는 죄로 향하는 본성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에 완벽한 나를 추구하는 것은 바벨탑을 쌓아 하느님과 멀어지는 것이니, 나쁜 생각이 들 때마다 바로 당신 앞에 무릎 꿇고 용서를 청하며 또다시 새로 출발하는 삶을 살아가야겠다.

되돌아보면 은총이었네



이재중(베다)
이러닝 6학년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은총이 내게 어떤 변화를 가져왔나 생각해 보면 너무 많아서 무엇이라고 꼭 집어 말하기가 어렵지만 은총 속에서 지금의 내가 있고, 지금의 우리 가족이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는다.

처음 세례를 받고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기쁨이 컸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였다. 당시 성당에 먼저 다니고 있던 누이와 사소한 말다툼 끝에 급기야 누이에게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하였고 나 자신에 대한 후회와 바보스러움에 사로잡혀 아직 성장하지도 않은 내 신앙의 정체성을 의심하면서 몇 년 동안 냉담을 하게 되었다. 하지만 영화 속에 등장하는 어느 신부님의 기도하는 모습과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다시 내 정체성을 찾아 돌아온 것은 지금 생각해 보아도 하느님의 섭리였다고 생각한다.

그로부터 몇 년 동안 내게는 가톨릭 신앙에 대해 알고 싶은 욕구가 넘쳤다. 가톨릭학생회를 통해서 시작한 장애우와 함께 미사를 드리던 봉사활동은 나 자신이 얼마나 축복받은 존재인지 깨닫게 했고, 청년 때부터 시작한 성가대 활동과 성가대 형제들과의 만남은 30년 가까이 되는 지금까지도 그리움으로 남을 만큼 내게는 크나큰 은총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 속에서도 시련은 있었다. 어느 주교님께서 ‘건강한 신앙생활은 선과 악의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사는 것이다’라고 하신 말씀이 정말로 옳다고 깨닫게 된 사건이 생긴 것이다. 내가 열심히 살고 있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있고, 성당활동도 열심히 하고 있다고 자만하며 습관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때 시련은 우연히 우리 가정에 불청객처럼 찾아왔다. 당시 우리 가족은 성당에서 애들은 복사단, 우리 부부는 성가대 활동을 하며 많은 사람의 칭찬을 받고 있었다. 그렇게 아쉬움 없이 열심히 살고 있었는데 성가대 내의 시기심과 편 가르기와 무고한 말들이 급기야 우리를 휘감아 내동댕이쳤다. 이러한 것은 우리만이 아니라 아들에게도 상처를 주었다. 억울함을 어디 가서 하소연할 수도 없었고, 이런 곳이라면 아예 성당을 떠나자라는 말까지 집사람과 했다. 하지만 끈이어 “우리가 왜 성당에 다니지? 신부님 때문에 성당에 가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 만나러 가는 것도 아니잖아?”라고 깨달았다. 우리의 상황은 바닷가의 빨밭과 같아 움직일수록 더 빠져들 거라는 생각이 커서 집사람과 상의하여 우리와 관련된 어떤 것도 말하지 말고, 억울하다고 말하지도 말자고 약속한 뒤 성당에서 하고 있던 모든 활동을 접었다. 집사람은 성가대는 안 해도 반주는 그만둘 수 없다며 아픈 가슴을 쓰다듬으면서 봉사를 했다. 나는 성가대, 레지오, 구역회 모두를 그만뒀지만 주일 미사만은 빠지지 않고 드렸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의 몇 걸음 사이에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도우심을 내려주셨음을 지금도 감사드린다. 하지만 우리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았다. 머리로는 용서했다고 하지만 생각날 때마다 불끈불끈 솟아오르는 분노는 상상의 나래를 펴며 나를 휘젓고 다녔다. 머리에서 가슴까지가 가장 먼 길이라는 말처럼 가슴으로 용서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용서하

지 않는 것은 내가 사약을 먹고 상대방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고 어느 상담 교수님이 내게 설명했지만 그래도 마음으로까지 용서하지는 못했다.

그렇게 3년 정도 지난 어느 날 주일 미사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도 당신을 못 박으라고 소리치던 군중을 용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내 고통은 저분이 겪으신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구나'라고 깨달았을 때 비로소 내 눈이 열리는 것 같았다. 마침내 나를 괴롭힌 긴 어둠의 터널을 빠져나올 수 있었다. 쉽지는 않았지만 우리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 하나하나를 위해서 하느님께 자비의 기도를 청하면서 흘러내린 눈물이 나를 일으켜 세웠다. 성가대를 하고 싶은 욕심에 다른 성당에 가서 주일 미사를 드리고 있던 나는 두고 온 내 십자가를 찾으러 그곳을 떠나 나를 힘들게 했던 우리 성당으로 돌아왔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볼 때마다 마음 편한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분노로 더이상 휘둘리지는 않았다. 그 이후로 성가대는 하지 않았지만 신부님께 청해서 전례봉사를 시작했다. 지금은 아이들도 잘 자라주었고, 성당에서 다시 활동을 하고 있다. 하지만 어느 주 교님께서 말씀해 주신 '건강한 신앙생활은 선과 악의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사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마음에 두며 살고 있다. 어느 소설 제목만큼 지금의 나를 설명할 수 있는 글귀는 없을 것 같다. "되돌아보면 은총이었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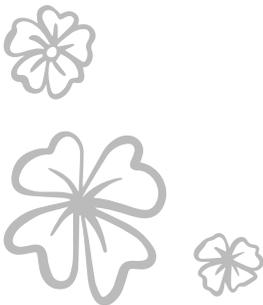
하느님 감사합니다.



꿈꾸는 노년, 아름다운 인생, 신명 나는 성경공부!

새로나는 성경공부는,
새로운 인생의 황금기를 맞이하시는 어르신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지난 삶 속에서 하느님의 사랑 발견,
삶의 진정한 아름다움 발견,
삶의 에너지 충전,
기쁘고 신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새로나는 성경공부는,
재미있는 교재와 성경 필사, 레크리에이션을 비롯한 여러 활동을
접목하여 성바오로딸수도회와 많은 교구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새로나는 성경공부 봉사를 하면서

김덕순(로사)
광주대교구 쌍암동성당 봉사자

“꿈꾸는 예수님 삶 함께 만들어요♪ 아름다운 인생을 꽃피워 봐요.
새로나는 성경공부 신나는 공부~ 주님 나를 부르네 공부(봉사)하라고~
마음 모아 공부(봉사)하리 주님을 향해~ 마음 모아 공부(봉사)하리 주님을 향해♪”

매주 금요일이면 저는 본당인 쌍암동 성당 어르신들과 함께 새로나는 성경공부를 하면서 매번 살아있음과 행복을 느끼며 기쁘게 말씀 선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5년 전, 직장의 일과 교회 봉사의 일을 병행하며 바쁘게 살던 저에게 주님께서 성경에 대한 목마름을 주셨습니다. 매주 목요일 교구 평생교육원에서 실시하는 새로나는 성경공부 교육을 받게 되었고, 본당의 어르신 성경공부 봉사자로 부르심을 받아 오늘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특별한 은총과, 함께하는 본당 동료 봉사자들의 협조, 소리 없이 뒤에서 응원해 주는 남편 요셉의 기도에 감사를 드립니다.

교육원에서 받게 되는 신바람 나는 강의는, 어렵게만 느꼈던 성경을 재미있고 쉽게 배우며 하느님께로 향하는 믿음을 쇄신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주일식 성경공부와는 다르게 깊이기와 나눔, 다양한 작품활동과 체험을 통해 하느님은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 함께하시는 임마누엘이시며 세속과 영의 삶이 따로따로가 아닌, 함께 공존하는 삶임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성경의 각 교재를 통하

여 당신 사랑의 메시지를 주시는 하느님, 잠자고 있던 우리의 영을 일깨워 주시는 하느님, 우리 삶의 방향을 가르쳐 주시는 하느님, 공동체 안에서 행복의 의미를 일깨워 주시는 하느님, 그런 하느님을 체험하며 행복해하는 저희 본당 어르신들의 변화되어 가는 모습을 보면서 노년의 삶이 이처럼 아름다운 삶으로 승화되어 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지난 젊은 시절, 오직 가정과 가족들을 위해서 고생하고 희생해야만 했던 어르신들의 삶의 애환을, 새로나는 성경공부 깊이기와 나눔, 다양한 작품활동과 체험을 통하여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며, 추억하고 공유하며 하느님께로 향하는 믿음과 소망들을 드러내는 새로나는 성경공부의 방식은 어르신들의 남은 여생을 기쁘고 활기찬 행복으로 초대하는 것이기에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처음엔 나눔이나 발표를 수줍어하시던 분들이 이제는 매주 함께하는 새로나는 성경공부 시간이 기다려진다고 말씀하시고 심지어 방학도 없이 계속 공부하자는 의견을 내실 정도로 대단한 열의를 보여주십니다. 유아 세례를 받고 12살 어린 나이에 고국을 떠나 타국 연변에서 청춘을 다 보내신 뒤 작년에야 고국 땅을 밟으신 88세 어르신은 글을 읽을 줄도 쓸 줄도 모르는 까막눈이로서 이제야 성당에 나와 성경 강의도 듣고 여러 가지 다양한 체험들을 하게 되어 너무 행복하다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언제나 열정이 넘치시는 한 어르신은 의처증으로 자신을 힘들게 한 남편을 신앙생활하면서 용서했다고 생각했는데 새로나는 성경공부와 나눔을 하면서 이제야 진정으로 용서를 할 수 있게 되었다고 목멘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5년 전, 남편이 새로나는 성경공부에 함께하자고 그렇게 권유할 때는 공부가 어려울 것 같아 당신이나 혼자 열심히 하라고 핀잔만 줬는데 작년 제주도 여행을 함께 다녀온 뒤 올해 처음으로 새로나는 성경공부를 함께 해보니까 어렵기는커녕 재미있다 하신 어르신도 있습니다. 그동안 남편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축스럽고 부끄러워서 하지 못했는데 새로나는 성경공부를 한 후로는 자신 있게 사랑한다는 말과 애정 표현을 하게 되었다는 멋쟁이 어르신입니다.

작년 여름 본당 주임신부님의 전폭적 지원 하에 2박 3일간의 제주도 성지순례와 자연 여행을 다녀올 정도로 어르신들은 영육간의 건강을 보여주셨고, 학기마

다 새로 시작하는 성경공부 학생 모집에 열성을 보이시어 학생 수가 배로 증원되는 성과를 올리기도 하셨습니다. 평균 수명이 점점 연장되어 가는 현시대에,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년을 위하여 우리 교회가 적극적인 해결 방안으로 선택한 이 새로운 성경공부를 보면서 하느님은 당신 자녀들의 행복을 위해 변함없이 일하고 계심을 느꼈습니다. 어르신들에게 하느님의 사랑과 말씀을 전하는 봉사자로서의 자질을 갖추 수 있도록 봉사자 양성 교육, 정기적인 회합, 피정, 그 밖에 도보 성지순례 등을 마련해 주시는 교구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여름에는 교구의 새로운 봉사자들, 최종훈 지도 신부님, 윤 일마 수녀님과 함께 2박 3일간의 제주도 도보 성지순례와 피정을 다녀왔습니다. 동료 봉사자들과 묵주기도를 바치며 도보 순례를 하면서 비, 바람, 맑음의 다양한 날씨와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통해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느님의 현존을 느꼈고, 흘린 땀방울과 인내를 통해 하느님께 찬미를 드린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도보 순례 후 숙소로 돌아와 저녁 식사를 한 후 잠깐 휴식을 취한 뒤, 새로운 봉사자의 자질과 말씀 선포에 균형을 이루는 네 바퀴 피정을 가졌습니다. 기도와 면학이라는 정해진 2개의 바퀴와 각 개인이 선택한 다른 2개의 바퀴를 합해 네 바퀴를 만들어 말씀 선포에 조화와 균형을 이루면서 잘 굴러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바퀴에 대한 내용을 그림으로 표현하고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어찌면 그리도 잘 표현했는지 각 봉사자들의 숨겨진 재능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2박 3일간 함께하면서 봉사자들 간의 동료애도 깊어졌고 더 큰 친교와 일치도 이루었습니다. 어르신들에게 말씀 선포를 해야 하는 새로운 봉사자로서의 다짐을 굳게 하며 선서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저의 말씀 선포 네 바퀴는 기도와 면학, 열정과 겸손입니다. 그 네 바퀴를 시원하고 알찬 열정, 남에게 아낌없이 내어주는 겸손의 수박꽃으로 표현하였지요.

“나 김덕순 로사는 화살기도와 묵주기도를 통하여 모든 일에 감사하며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새로운 성경공부의 페트라(Petra)로서 언제나 성경을 제대로 알기 위하여 라디오 성경을 듣고 성경 필사를 하며 삶의 모든 일에서 하느님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겸손한 봉사자로서 새로운 성경공부 말씀 봉사에 충성할 것

을 굳게 다짐합니다. 천주교 광주대교구 쌍암동성당 김덕순 로사.”

그리하여 언젠가 저도 사도 바오로 성인처럼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새로나는 성경공부 봉사자로서 훌륭하게 싸웠고 끝까지 달릴 길을 다 달렸으며 믿음을 지켰기에 이제는 정의의 월계관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고대해 봅니다. 새로나 파이팅!!!



나, 김 덕순 (로사)는

삶의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좌상기도와 목주기도를 통하여 모든 일에 감사하며,
 어르신들과 함께 하는 새로나 성경공부의 펠트라로서
 언제나 성경을 제대로 알기 위하여 라디오 성경을 들으
 성경 필사를 하며,
 겸손한 봉사자로서 새로나 성경공부 말씀 봉사회에
 충성할 것을 다 굳게 다짐합니다.
 천주교 광주대교구 쌍암동성당 김 덕순 (로사)

말씀 안에서 하느님 자녀답게

엄명자(테오도라)
춘천교구 죽림동성당 봉사

춘천교구 춘천지구에 속한 5개 본당 신자들이 모여 만든 '예수성심학교'는 '새로 나는 성경공부'로 하느님 말씀을 공부하는 학교입니다. 세 반으로 나뉘어 있고 반 이름은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학생 수는 30여 명이며, 40대에서 8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죽림동 주교좌성당 말딩 회관에서 조 로사 수녀님과 함께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를 공부합니다. 조 로사 수녀님의 열정적이고 헌신적인 강의를 들으며 하느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느꼈고, 그 사랑에 응답하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묵상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서를 필사한 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저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요한 8,7)는 말씀으로 역할극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체험을 통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죄인으로 단정할 수 없으며 인간의 죄를 심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느님뿐이심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나눔 시간에 다른 사람을 질타하는 말이나 행동을 한 적이 있는지, 또는 다른 사람에게서 질타를 받은 적이 있는지 등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나눔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정말 잊을 수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조 로사 수녀님이 들려주시는 하느님 말씀에 매료되어 강의 시간에는 나이도 잊게 됩니다. 두 눈을 반짝이며 강의를 듣고, 나눔 시간에는 서로를 격려하고 다독이며 형제자매로서의 사랑을 나눕니다. 이렇게 하느님 말씀 안에 하나가 되는 체험을 합니다. 진리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깊숙이 자리를 잡아 세상 유혹에 빠지지 않고 말씀이 뿌리를 잘 내릴 수 있도록 하느님 마음에 드는 말을 가꾸어야겠다고 다짐합니다. 작은 것이라도 실천하고 세상 복음화에 힘쓰며 말씀 안에서 하느님 자녀답게 살겠습니다.

주님! 나약한 죄인이오니 저희와 늘 함께하소서. 아멘.

춘천교구 죽림동성당 '요한과 함께 쓰는 나의 복음서' 수업 중 봉사자들과 함께~



6년 과정 마침표, 졸업을 축하합니다!

= 졸 업 =

- 사전적 의미: 학생이 규정에 따라 소정의 교과 과정을 마침.
- 통신성서적 의미:
하느님에 대해 알지 못하던 사람이 말씀 공부를 통해 하느님을 만나게 되어 조금씩 변화되어 간, 말로 다 설명하기 어려운 감동적인 과정의 마침이면서 또 한 번의 시작.

<즐겁고 행복하던 졸업식 현장을 전합니다!>

2017년 2월 25일, 제28회 졸업연수회!

6년 공부의 결실을 맺은 2017년 졸업생은 모두 222명!

이번 졸업연수회는 이러닝 특강 강사이신 허규 베네딕도 신부님(서울 가톨릭대)께서 '신약성경의 문화·역사적 배경'을 주제로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기원전 500년부터 현재까지의 역사를 성경구절 안에서 바라보도록 해주신 덕분에 6년 과정을 역사 안에서 다시 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학생들이 애써온 6년이라는 기간

은 신부님 본인이 박사과정을 한 기간과 같다시며, 학위도 중요하지만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그동안 성바로 신학영성 과정 등록을 고민하시던 몇 학생들이 처음 성경공부를 시작하던 마음으로 공부해 보고 싶다는 신청하실 정도로 열기가 무척 뜨거웠습니다.

입학 26년 만에 졸업하게 되어 정말 벅차다고 감격하신 학생분도 계셨고, 6년 동안 처음으로 이번 졸업연수회만 참석하게 되었는데 오늘 와보니 지금껏 참석하지 못한 게 정말 안타깝다는 아쉬운 마음을 전한 분도 계셨습니다.

처음의 떨림을 뒤로하고 6년의 긴 기간을 거쳐 마침이라는 결실을 맺은 졸업생분들께 진심으로 축하인사 드립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졸업장을 받으며! 마음은 뿌듯~ 뿌듯~^^



여러분~ 우리 졸업했어요♡

주님께 다다르는 그날까지

김인옥(가브리엘라)
우편 28회 졸업생·영성 1학년

사랑이신 하느님 감사합니다.

50년 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야 하느님과 예수님의 말씀인 구약과 신약을 공부하고 마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이끄심이 없었다면 그 긴 과정의 공부를 끝까지 해내지 못했으리라 생각합니다.

통신성서의 말씀 공부에서 저는 병고의 시련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주님은 말씀으로 하느님과 예수님에 대해 알게 해주셨고 무분별한 욕망을 분별하고 자제해야 하는 이유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뛰는 것보다는 걷는 것이 더 편안한 나이가 되었습니다만 성모님을 본받아 주님께 다다르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걸으며 전진하겠습니다. 하느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내어 맡기는 믿음과 구원자이신 예수님께 의탁하는 믿음의 이끄심 안에서 제게 허락하시는 하느님의 선물인 생명의 은총인 시간들을 하느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리라 다짐해 봅니다.

간단하고 쉽지는 않겠지만 믿음 안에서 분별할 수 있는 정신을 잃지 않도록 늘 기도합니다. 하느님에게서 오는 선하신 사랑의 빛 안에서 욕을 따르는 삶이 아닌 하느님의 사랑을 조용히 실천하는 삶을 살게 해주소서. 아멘.

“사람은 자기가 뿌린 것을 거두는 법입니다. 자기의 욕에 뿌리는 사람은 욕에서 멸망을 거두고, 성령에게 뿌리는 사람은 성령에게서 영원한 생명을 거둘 것입니다.”(갈라 6,7c-8)

생활 속에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이끄는 희망



이영미(소화 데레사)
이러닝 28회 졸업생·영성 1학년

제게 이러닝 성경공부는 생활 속에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이끄는 희망입니다.

저는 자영업을 하면서도 영적 성장을 위해 피정과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참여하곤 했습니다. 하느님께 좀 더 가까이 다가가기를 갈망하던 중 이러닝 성경공부를 알게 되었고, 과정이 처음 개설된 때부터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일터에서 고객이 없는 틈을 타 강의를 듣고 묵주기도 CD와 차동엽 신부님의 복음묵상 CD를 들으며 말씀 안에서 위로와 힘을 얻었습니다. 마음에 와닿는 말씀은 메모하여 자주 볼 수 있는 곳에 붙여놓고 되새기며 말과 행동으로 실천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매일 강의를 들으며 말씀 가운데 생활하니까 하느님께서 옆에 계시는 것처럼 저절로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불편한 고객을 만날 때에도 말씀 때문에 사랑으로 고객의 처지에 서서 따뜻한 마음으로 대하니까 상대방도 저도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런 방법이 사랑을 전하는 선교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고객 가운데에는 쉬는 교우와 전업 교우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성경공부를 권유하거나 주보와 묵주기도 CD, 도서(바오로딸 서점에서 구입), 월간지(경향잡지, 비타폰, Reader 등), 가톨릭 신문, 복음묵상 CD 등을 전하면서 체험담을 나누었습니다. 영업장은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리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때로

는 복음 CD, 묵주기도 CD를 더 달라며 오는 자매도 있습니다. 성경공부를 시작했거나 다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말을 들을 때는 보람을 느낍니다.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이들이 이기적으로 자신의 관점만 주장할 때 억울하고 속상하기도 하지만 성경말씀을 생각하면 마음의 정리가 되고 제 자신을 조금은 내려놓게 됩니다. 나중에 자연스럽게 미안했다는 말을 들으면 역시 인내하며 성경말씀대로 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며 하느님께서 당신 사랑의 길로 이끌어 주심을 느낍니다.

교회 공동체 봉사활동이나 교우와의 관계 안에서도 말씀을 새기면서 ‘내 뜻대로 하고 있는가, 말씀대로 하고 있는가?’를 생각합니다. 기도로 청하면서 봉사를 하니까 때론 불협화음이 있어도 어느새 조용히 정리가 되는 것을 체험합니다.

이러닝 성경공부를 하는 소중한 6년 동안 말씀은 늘 저와 함께하면서 제 마음을 비추고 바로잡아 주었습니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니 마침내 졸업하게 되었고 지금은 성바로 신학영성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서수원 통서가족 모임에도 매월 한 번 참석합니다. 신앙으로 삶을 엮어가는 선배님들의 모습에서 힘을 얻습니다. 성경공부는 삶의 중심을 더 굳건하게 하고 행복한 생활과 자유로운 마음으로 이끌어 줍니다. 이웃과 함께 살아갈 때 행복이 더 커짐을 알게 해줍니다.

하느님께서 제가 성경공부를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은 다가오는 삶의 파도를 잘 헤쳐 나아갈 수 있게 저를 준비시켜 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친정어머니의 병환과 대학 입학 준비를 하는 아이의 뒷바라지, 봉사활동을 하면서 겪는 여러 가지 갈등 속에서도 성경공부를 밥 먹듯이 해온 덕분에 말씀의 힘으로 굳건히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머니도 편안히 잘 계시고 아들도 원하는 대학에 가서 학교생활 잘 하고 있습니다. 저도 공동체 안에서 봉사활동하며 “말씀대로 저에게 이루어지소서” 하신 성모님을 본받아 순명하면서 기쁘게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내 삶을 내 생각대로 이끌어 가기보다는 말씀과 기도 안에서 하느님이 일러주시는 대로 가고 또 가면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뒤돌아보면 모태신앙인 저는 20대에는 잠깐 쉬기도 했지만 마음속에는 언제나

하느님이 계셨습니다. 결혼한 후 미사참례는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신앙 중심의 삶을 살았지만 하느님이 마음에 크게 와닿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도덕적으로 옳게 살아야 하고 착하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봉사활동도 하고 아이들과 남편에게 세례를 받게 했을 뿐입니다. 사업하는 남편이 가정을 소홀히 한다고 탓하며 힘들어하면서 신앙생활에 매달렸습니다. 그런데 하느님은 한 걸음 한 걸음 제 걸음을 인도하셔서 하느님 사랑을 체험하는 기쁨의 길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느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믿음을 갖게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저를 성장하게 해주신 사랑의 하느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삶의 첫 자리에 하느님을 모시면 다른 부수적인 것은 덤으로 주심을 믿습니다. 제 삶의 굽이굽이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언제나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1테살 5,16-18)라는 말씀대로 살 수 있기를 청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오면 구원을 받고, 또 드나들며 풀밭을 찾아 얻을 것이다”(요한 10,9)라고 하신 말씀을 믿기 때문입니다.

글을 올릴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약을 위한 발 구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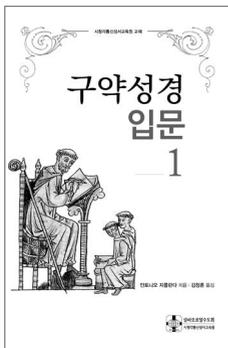
찬미 예수님!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과 통신성서공부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모든 분들 반갑습니다.

교육원에서 성경공부의 팁을 드립니다! 성경공부를 하면서 말씀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거나 신앙의 성장을 위해 노력하고 싶은 마음의 충동을 느끼는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공부를 하고는 있는데 어렵고 복잡한 느낌이 들면서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특히 성경공부를 시작한 입문 학생들은 뭔가 모를 막막함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걱정 마세요~ 통신성서교육원이 있잖아요~ 교육원에서 공부 방향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우편 성경공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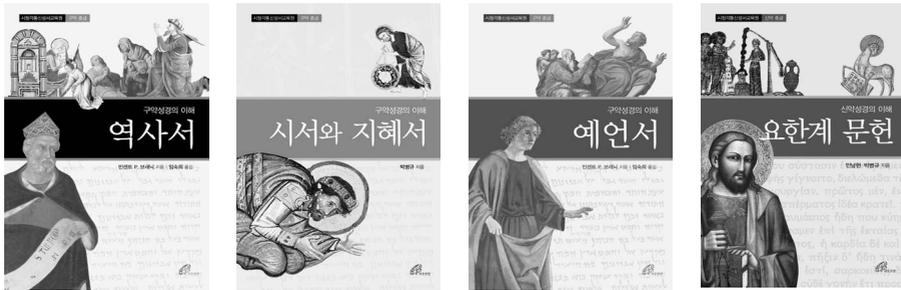
● 이제 막 통신성서를 시작했어요!(입문과정)



문제집을 째~ 펴본 순간,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기대? 또는 걱정? 입문과정은 신구약의 전반적인 흐름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교재를 따라가면서 공부하시도록 문제집 내용도 교재에 충실합니다. 괄호 문제, 선 긋기 문

제, 찾아 쓰는 문제 등의 답은 교재에 거의 다 나와있습니다. 그러니 교재를 읽고 또 읽어보세요. 그리고 반드시 성경을 가까이해 두고 함께 읽으면서 공부하십시오. 입문과정에서 무엇보다 도움이 되는 것은 바로 ‘평가자’입니다. 평가자의 평가와 보충 설명을 통해 성경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맨 뒷장 나뉘터에 공부하면서 느끼신 것들이나 어려움을 평가자와 자유로이 나누시면 입문과정 공부를 기쁘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강의를 통해 한 학기를 총정리하고 함께 공부하는 학생들과 친교도 나눌 수 있는 연수회에 참석하시면 기쁨은 두 배가 되지요. ^^

● 이제 중급과정으로 올라가요!



입문과정을 마치고 나니 이제 신구약의 전반적 흐름을 짚~ 훑게 되었지요. 그런데 중급과정은 입문과정과는 느낌부터가 달라집니다. 주관식이 많아지기 때문이지요. 중급과정은 내용을 깊이며 확장해 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암기나 글자 그대로의 이해가 아니라 훨씬 더 삶과 가까워지고 그 깊이를 이해하게 이끕니다. 그러니 조금 더 인내를 가지고 교재와 문제집을 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든 답의 기본 내용은 교재에 있습니다. 문제마다 관련 내용이 있는 페이지를 적어놓았습니다. 반복해서 읽으시면 답이 보일 겁니다. 그 부분을 중심으로 해당 과 전체 내용을 포괄적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나서 문제에 해당하는 답을 찾아보시면 좋습니다. 밑줄도 짚약~ 그어보시고 개인 노

트에 교재 내용을 여러 번 써보시거나 필요하면 소리 내어 읽어보면서 자신의 방법으로 요약해 보세요. 그러면 훨씬 편해지실 것입니다.

● 개인 생각과 체험 쓰는 것이 쉽지 않다구요?

자, 모든 과정 학생들이 호소하는 문제! 그것은 바로 생각과 체험을 쓰는 문제입니다. 난제로세! ^^ 누구나 생각과 체험을 쓰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웬지 모르게 뭔가 부자연스러운 느낌이 들기도 하지요. 그리고 평가자님과 교육원에서도 읽어보니까 조금 더 멋진 표현을 적고 싶은 은근한 유혹도 밀려오지요.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마음 편히 표현해 보세요. 예를 들면, 이런저런 상황을 보면서(또는 겪으면서) 성경에 비추어 나의 경험은 이러저러했다고 생각된다, 또는 내가 생각할 때 나는 무엇무엇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는 식으로 표현하시면 됩니다. 사실 생각과 체험을 쓰는 것이 어려운 것은 자연스레 지난 삶을 떠올리게 되고 그러면서 힘들고 어렵던 순간을 마주하게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 삶을 다시 살펴보는 은총을 얻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은 은총의 과정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것은 지식을 쌓기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깨닫기 위해서입니다. 파이팅^^

● 교재가 어렵다구요?

네, 저희 교재가 쉬운 편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과정을 마치신 졸업생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렵지만 과정을 꾸준히 따라가면서 읽고 또 읽고 답을 찾고 고민하다 보니 어느새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고들 하셨습니다. 앞으로 학생분들에게 더욱 가깝게 다가가는 교재가 되도록 연구하겠습니다!

이러닝(e-Learning) 성경공부

● 이러닝 성경공부란?

이러닝 성경공부는 인터넷으로 하는 성경공부입니다. 컴퓨터를 켜고 끄는 것과 교육원 홈페이지(<http://uus.pauline.or.kr>)에 로그인을 하실 수 있는 분이면 누구나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닝 성경공부 어렵지 않아요~ 인터넷이 되는 곳이라면 언제 어디서나 OK! 모바일(핸드폰·아이패드)로도 OK!



1·2학기 각각 13개의 동영상 강의, 중간·기말고사, 특강 2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학기 내에 동영상 강의는 무한반복 청취하실 수 있고, 강의 자료(pdf 파일)의 인쇄와 저장도 가능합니다. 출석 점수만으로도 이수(60점 이상)가 가능하니, 성실하게 수강하시면 주님 말씀과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점수 배점: 출석 65점, 중간고사 15점, 기말고사 20점) 해외에서 공부하시는 분은 한국시간을 기준으로 수강하셔야 함을 꼭 기억해 주세요!

이러닝 성경공부를 하시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교육원 홈페이지] > 학습지원 > 자주하는 질문 > 수강장애를 통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면 교육원의 'PC 원격지원'을 통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실 때



한 통으로 고민 끝!

시청각통신성서교육원은 우편 성경공부, 이러닝 성경공부 그리고 새로나는 성경공부를 하시는 모든 분께 열려있습니다. 공부를 하시다가 잘 모르겠거나 '이런 걸 문의해도 될까' 하는 궁금증이 모락모락 올라오면 연락하세요. 과제가 밀렸거나 휴학이나 재등록을 하고 싶다거나 하는 등의 행정 관련 문제도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전화 통화가 어려우시면 이메일을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혹시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도 알려주세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학습의 Tip을 들으니 안심되지요?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하듯 통신성서공부는 교육원과 개별동반자가 동행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말씀 안에서 빛을 얻고 하느님 안에서 더 깊은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축복을 빕니다.

시청각통신성서교육원 홈페이지 <http://uus.pauline.or.kr>

- 우편 성경공부 02) 944-0819~0824 uus@pauline.or.kr
- 이러닝 성경공부 02) 944-0840~0842 e-learning@pauline.or.kr
- 새로나는 성경공부 02) 944-0968~0969 seronab@pauline.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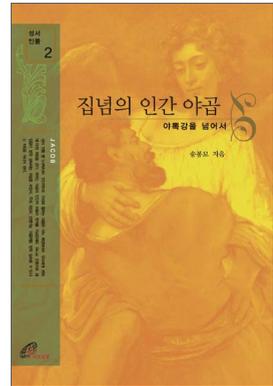
야곱에게서 배운 삶의 지혜

– 집념의 인간 야곱*을 읽고



윤혜리(멜라니아)
우편 1학년

나는 세례 받은 지 6년이 다 돼가지만 부끄럽게도 성경을 거의 읽지 않았다. 미사 때 복음을 듣거나 통신성서 문제집을 풀 때 잠시 성경을 참고하는 것 외에는 성경과 동떨어져 살았다. 예비자 때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들은 이래로 웬지 정확한 지식 없이 성경을 읽으면 안 될 것 같았다. 그래서 이번 리포트 역시 성경을 해설한 책을 읽고 독후감을 쓰는 쪽으로 선택했다. 성경 구절만 읽으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지나가는 경우도 있었을 텐데 이렇게 책으로 읽으니 마치 한 편의 영화를 보거나 옛날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이해가 쉬웠고 재미있었다.



내가 선택한 책은 송봉모 신부님의 「집념의 인간 야곱」이다. 야곱은 쌍둥이 형인 에사우와 장자권을 두고 경쟁한 유년시절을 거쳐, 20년간의 객지 생활 끝에 귀향해 노년을 맞이했다가 이집트에서 운명한다. 이 책은 야곱의 인생을 중심으로 야곱과 관계있는 주변 인물의 이야기를 다룬다. 그런데 구약 시대의 인물들은 놀

* 송봉모, 「집념의 인간 야곱」, 바오로딸.

라울 만큼 현대 신앙인의 모습과 비슷한 점이 많다는 것을 깨달았다.

첫째, 야곱은 하느님을 믿으면서도 끝없이 의심한다. 에사우의 장자권을 빼앗은 야곱은 형의 격노를 피해 집에서 도망쳐 나와 돌투성이 광야에서 처음으로 하느님을 만난다. 이를 시작으로 하느님을 몇 번이나 더 만나고 기도도 늘 응답받았지만, 믿음이 부족해서 기도를 한 뒤에도 온전히 주님께 맡기지 못하고 늘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책을 찾으려 한다. 나의 모습을 보는 듯했다. ‘하느님이 진짜 계시까’ 하는 의심이 들거나 기도를 하면서도 응답을 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 내 앞에 한 번만 나타나 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한 적이 있다. 내가 한 번만이라도 하느님을 눈으로 보고 느낀다면 훨씬 더 믿음이 깊어질 것만 같았다. 하지만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하느님을 만나는 기적적인 체험을 하는 것과 모든 것을 하느님께 의탁하는 것은 관계가 없음을 깨달았다.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요한 20,29)라는 말씀이 떠올랐다. 하느님을 봐야 믿음이 깊어질 것이라고 생각한 그 자체가 내 믿음이 약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였다.

둘째, 야곱의 부인들인 라헬과 레아는 서로 끝없이 질투한다. 상대가 가진 것과 자기가 가진 것을 비교하면서 상대를 시기했다. 이에 저자는 나보다 나은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하느님을 미워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한다. 다른 사람에게 좋은 것을 허락하신 하느님을 인정할 수 없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나도 끊임없이 나를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힘들어했다. 하지만 이렇게 시기 질투하는 것에 한 번도 하느님을 연결하여 생각한 적은 없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시작하면 내가 세상에서 제일 못난 사람처럼 느껴지지만, 분명히 나에게도 하느님이 허락해 주신 많은 талан트가 있다. 그 талан트를 주신 하느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불행의 씨앗이며 잘못된 생각이다. 이제는 인간적인 비교를 그만두고 나라는 존재는 세상에 단 하나라는 생각으로 늘 감사하며 살아야겠다고 다짐했다.

셋째, 야곱의 인생에서 주목할 만한 화해가 두 번 나온다. 20년간 자신을 부려 먹은 장인 라반과의 화해와 어린 시절의 경쟁자였던 형 에사우와의 화해다. 저자는 화해와 용서는 다르다고 말한다. 꼭 용서를 해야만 화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일단 화해를 한 뒤 시간을 두고 천천히 용서와 치유에까지 이를 수 있도록 노

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강압적인 부모님 때문에 매우 힘들었다. 체벌도 많이 받아서 상처가 깊었다. 결혼한 뒤에도 부모님과의 관계로 힘들어 했는데, 남편이 이런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었다. 남편의 대학 시절 교양 과목을 가르치신 신부님이 상대방의 잘못은 용서하되 상대방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화해할 필요는 없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이다. 사실 이 책에 나온 이야기랑 반대다. 화해나 용서, 어느 쪽이든 쉽지 않다. 서로 갈등이 있을 때 화해든 용서든 먼저 하나라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남편이 해준 이야기와는 반대로 지금 나의 경우에는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용서보다 화해를 먼저 한 셈이다. 상처가 전부 아물지는 않았지만 부모님과 자주 왕래하며 잘 지내고 있기 때문이다. 남편의 도움과 심리 상담 등으로 마음속에 남은 응어리가 많이 풀린 상태다. 책에서 이 내용을 읽고 앞으로 용서와 치유의 단계까지 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할 수 있다는 희망도 얻었다.

이번 독서를 통해 성경이 무엇인지 마음으로 느꼈다. 성경은 나약한 인간으로서 어떻게 하느님 말씀에 따라 살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것이다. 이론적으로는 통신성서 첫째 문제집을 공부해서 알고 있었지만 마음으로는 그 의미가 와닿지 않았었는데 이렇게 깨닫게 되어 정말 기쁘다. 성경의 말투도 약간 낯설고 내용도 이해를 잘 못 해서 멀게만 느껴졌는데, 송봉모 신부님의 따뜻한 해설과 함께 말씀을 읽으니 성경 속 인물이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았다. 성경은 인간의 본성과 나약함을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담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말해준다. 내가 읽은 책의 시리즈 책까지 전부 다 읽고 싶다는 욕심도 생겼다. 「집념의 인간 야곱」을 읽으며 연수회에 참가하지 못한 아쉬움을 달랠 수 있었고, 앞으로 통신성서에서 만날 성경 인물들의 이야기도 기대된다.

「까칠한 윤리 숨통 트다」* 를 읽고



이상희(글라라)
우편 3학년



안녕하십니까?

이번에도 연수회에 참석하지 못하고 리포트로 대신함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제 현실에 맞추어야 하기에, 장재봉 신부님의 저서 「까칠한 윤리 숨통 트다」를 읽고 묵상했습니다. 하느님과 함께한 새로운 만남에 감사드립니다.

밑줄을 그으며 읽은 부분이 많지만, 그중에서도 특히 제가 많이 공감한 부분은 일본의 ‘마쓰시타 고노스케’가 성공 비결을 직원들에게 말한 내용입니다.

“나는 세 가지 하늘의 은혜를 입고 태어났다네. 첫째, 가난한 것, 둘째, 허약한 몸, 셋째, 못 배운 것이지. 나는 가난했기에 부지런히 일하지 않고서는 잘살 수 없다는 진리를 깨달았고, 허약했기에 건강의 소중함을 알아 늘 운동했지.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했기에 많은 이에게 배우려 노력했다네. 내 불행한 환경에 늘 감사

* 장재봉 신부, 「까칠한 윤리 숨통 트다」, 바오로딸.

하고 살았지.”

예전에 어떤 책에서 이 글을 읽었지만 잊고 살다가 다시 위의 글을 만나서 읽으니 가슴이 뭉클하며 제게 하는 말 같았습니다. 자신이 처한 환경에 감사하는 태도가 저를 숙연하게 하였습니다.

첫째, 가난한 것.

저는 아이가 넷입니다. 아이가 많은 저는 어느 한 가지도 절약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었고 생활의 모든 면에서 허리끈을 졸라매어야 했습니다. 집 장만, 아이들 교육, 먹거리, 의복 문제 등 여러 면에서 참 힘들게 살았습니다. 지금은 아이들이 커서 외지에 많이 나가있지만, 그래도 아이들 밑으로 들어가는 돈이 엄청납니다. 학원비, 대학 교육, 용돈, 잡비 등 지출은 끝이 없기에 우리 부부는 항상 가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살아가려고 다른 부부들보다 더 많이 노력합니다. 검소하지 않으면 아이들을 제대로 키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둘째, 허약한 몸

남편과 저는 건강 체질이 아닙니다. 겉은 멀쩡해 보이지만 감기에도 잘 걸리고, 몸이 단단하지 못해서 아이들이 어릴 때는 온 가족이 많이 병치레하며 병원을 들락거렸습니다. 건강의 소중함을 알기에 생활에서 무리하지 않고, 음식을 골고루 먹으며, 운동을 하려고 노력하며 삽니다.

셋째, 못 배운 것

친정아버지가 오랜 기간 병환으로 계시다가 중2 때 돌아가시는 바람에 인문계 고등학교에 가고 싶었지만 실업계 고등학교로 갔고, 그것도 1학년 1학기까지만 다니다가 결국은 집안 형편상 야간 고등학교로 가서 제가 벌어서 다녔습니다. 전문대학도 아르바이트를 하며 다녔고요. 결혼을 해서도 배움에 대한 목마름으로 방통대 공부를 하는 등 책을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이 세 가지를 극복하려고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기도 하고, 불평을 하기도 했으며, 지혜를 발휘하기도 했으나, 제 환경에 감사한 마음까지는 사실 가지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이 세 가지 악조건이 저를 성장과 성숙으로 인도했음에도 말입니다. 그 사실을 깨닫게 되어 감사했습니다. 다른 많은 구절들과의 만남도 제 윤리의식을 점점하고 다잡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교재를 읽게 해주신 하느님께 머리 숙여 감사와 찬미를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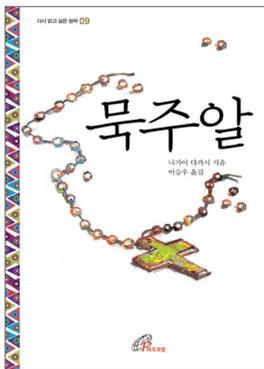
무더운 날씨에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신앙과 평화의 소중함을 이야기하는 「목주알」



이난희(바울리나)
성바오로 신학영성 2학년

— 목주알*을 읽고



3년 전 나가사키 지역 성지순례를 다녀온 적이 있다. 순례 일정 마지막 날 ‘나카이 다카시’란 분의 생가와 우라카미 성당, 평화박물관, 26인 성인 비를 순례하였는데, 그때 「목주알」의 저자인 나카이 다카시의 생가와 기념관에서 그분 삶의 족적을 돌아보고 마음이 묵직했던 기억이 난다. 그 후 여러 매체에서 그분 이야기를 많이 접해선지, 실제로는 그분이 쓴 책을 한 권도 읽

* 나카이 다카시, 「목주알」, 이승우 옮김, 바오로딸.

지 않았음에도 마치 그분에 대해 다 아는 듯 여기며 지내왔다. 이번 과제를 내기 위해 「묵주알」을 읽은 후, 나가이 다카시란 분은 예수님의 모습을 닮은 진실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갔다는 생각이 새롭게 들었다.

「묵주알」 속에 담겨있는 내용으로 본 지은이의 삶은, 1945년 나가사키 도시를 쫓겨미로 만들어 버린 원폭 투하 사건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 3년 전 나가사키 평화박물관을 견학하면서 깨닫게 된 원자폭탄이란 괴물의 폭력성과 참혹함은 정말 끔찍했다. 처음엔 원자폭탄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에 해방이 왔다는 사실을 떠올리며 무심히 견학하다가, 학교에 가던 여고생과 그 여고생의 도시락이 원자 열에 함께 늘어붙어 검은 형체만 남아있는 전시물을 보면서, 당시 평범했던 사람들의 일상에 갑작스레 들이닥친 참혹함에 마음이 아팠던 기억이 난다. 이 책에서도 지은이의 아내는 부엌에서 남편과 아이들을 위해 무언가를 만들다가 원자 열에 피폭되었는지 부엌 자리에서 묵주가 발견되었다는 내용이 나온다. 남편과 자식들 뒷바라지에 그 흔하다는 온천에도 한번 못 가본 아내의 마지막 삶의 장소는 부엌이었다. 원자폭탄은 평범하고 선한 사람들의 평화로운 일상을 하루아침에 죽음의 지옥으로 만들어 버린 것이다. 발전된 과학의 힘으로 만들어진 원자폭탄. 지금도 이 세계는 더 무시무시한 전쟁무기를 만들고 있으니, 어느 한순간 이런 끔찍한 일이 또다시 생기게 되지 않을까?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묵주알」을 읽고 인상적이었던 점 몇 가지를 더 들자면, 우선 그분의 삶에서 참된 신앙인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점이다. 욕의 경우와 같은 절망적 상황에서 작가는 절망하지 않고 신앙의 힘으로 절망을 극복하는 점이 인상 깊었다. 나 같으면 자포자기에 빠져 신을 원망하지 않았을까. 그러나 작가는 그 참혹함을 딛고 일어나 고통을 당해 아파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삶을 선택한다.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더 넓은 평화를 위해 연대하는 모습이 존경스러웠다.

특히 우라카미 성당의 성모상을 세우는 모습과 '종'이란 소재목의 글에서 신앙에 귀의한, 주님만을 믿고 따르는 참 신앙인의 모습을 엿볼 수 있었다. 당시 가까스로 살아남은 젊은이들과 작가가 원폭에도 손상되지 않은 종을 다시 끌어 올리는데, 백혈병 환자인 작가는 옆에서 묵주기도를 하고 젊은이들은 힘을 모아 종

을 들어 올렸다는 내용이 나온다. 이런 일은 그들의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오만한 신앙심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잿더미와 폐허로 변해버린 마을을 보면서 폐허 속에서도 성당에서 들려오는 종소리를 듣고 신의 거룩함을 느끼며, 다시 성당에서 평화의 성가가 울려 퍼지기를 기원하는 모습이 참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았다.

오동나무 계다 이야기도 인상 깊었다. 엄마를 잃은 어린 딸아이의 사연을 접한 독자가 안타까운 마음에 상등품인 오동나무 계다를 보냈는데, 전쟁의 상처 속에 있는 가난한 아이들도 다 함께 신을 수 있도록 삼나무 계다 수십 개를 보내달라는 내용의 편지를 썼다는 내용이었다. 작가가 자신의 아이만 특별하게 여기지 않고 공동체의 연대라는 정신적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모습이 신앙 교육의 모범을 보여주는 것 같았다.

「묵주알」을 읽으며 삶이 어떠한 한 순간 한 순간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아가는 한 사람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저자는 지금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하려는 것 같다. 전쟁의 참혹함을 잊지 말라고. 평화의 소중함을 지켜가라고. 전쟁 무기가 평화롭게 살아가는 선하고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을 어떻게 한순간에 파괴하는지를 똑똑히 알아 평화를 지켜가라고. 그리고 어떠한 순간에도 주님을 따르는 삶이 가장 소중하며, 주님을 따르는 삶과 신앙을 버리지 말라고.

나가이 다카시, 이분은 정말 주님을 따르며 살아간, 예수님의 참 제자라는 생각이 든다.

우리들의 숨은 공로자

○ 졸업생 평가자 모임

3월 18일(토), 졸업생 평가자 모임이 있었습니다. 교육원 프로그램 개편에 따른 정보 전달과 의견들을 함께 나누었으며 후배 학생들을 위해 귀한 시간을 내어서 봉사해 주시는 평가자님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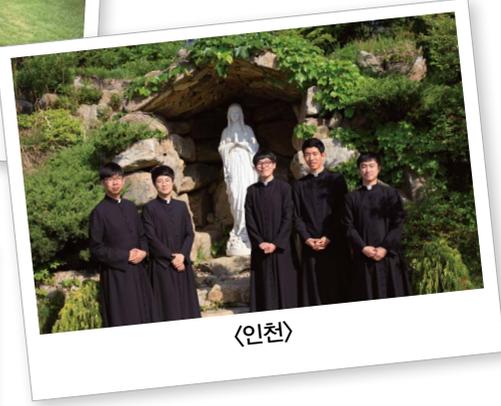
올해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모임 후에는 박병규 신부님의 특강 「성경 읽는 재미」에 참석하여 강의를 듣는 것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 신학교 평가자 모임

서울 신학교를 시작으로 인천, 광주, 대구, 부산 신학생 평가자 모임에 다녀왔습니다. 올해는 50명의 신학생, 부제님들이 평가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학사님들께 평가 전반에 대해 안내하고 교육원의 프로그램 개편에 따른 평가지 전송 방법의 변화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새롭게 개편된 교재와 문제집을 소개하면서 학생들의 말씀공부에 더 봉사하고자 하는 교육원의 마음도 전할 수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여러 가지 직책과 수업으로 시간적 여유가 없으신데도 충실하게 동반해 주시는 학사님들과 부제님들께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사목을 준비하시는 학사님들의 순수하고 열정적인 마음을 느낀 시간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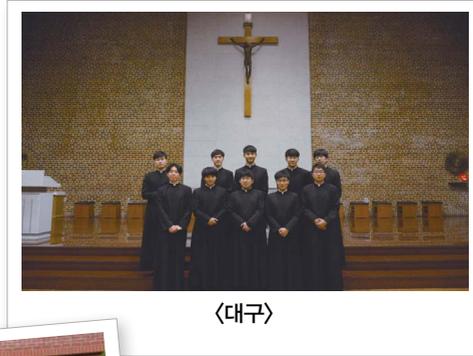
〈서울〉



〈인천〉



〈광주〉



〈대구〉



〈부산〉



학생이 평가자에게

선생님. 이번 달에도 늦어서 죄송합니다. 5월은 성모성월이라 성모님을 5월 13일에 저희 집에 모셨어요. 평소에 집안 정리를 못 한 걸 정리하느라 더욱 바빴습니다.

저희 가정은 남편이 신자가 아니구요, 세례자 요한, 아가다, 마리아 이렇게 세 아이가 있는데요, 냉담을 하고 있어요. 제가 그동안 냉담을 해서 애들의 신앙을 챙기지 못했어요. 하느님께 대한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으니 저의 죄가 너무도 크죠?

성모성월을 맞이하여 성모님의 전구를 청합니다.

선생님! 건강하세요. 다음 달에 뵙겠습니다.



평가자가 학생에게

† 찬미 예수님

데레사 자매님. 이번 한 달도 수고하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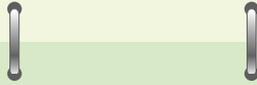
신앙의 전달에 있어서 부모님의 태도는 자녀들에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제 성찰을 통해 알게 되신 바를 생활에서 기쁘게 살아가신다면 자녀분들도 그 기쁨이 어디서 오는지 생각해 보게 될 것 같습니다. 현실의 삶이 녹록지 않고 힘들수록 중심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바쁘다는 핑계로 저 또한 하느님을 찾는 데 소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자신을 뒤돌아보고 반성하고 돌아와 하느님, 예수님 생각하는 것으로 마음이 풍요로워집니다.

이번 한 달 주님 사랑 안에서 기쁘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기도드립니다.

학생이 평가자에게

나만의 광야는 끝이 없는가 봅니다. 그 광야에서 헤매고 울어도 주님을 찾는 것을 보면 제가 점점 신앙인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저는 당신의 눈동자라는 말씀에 위로를 받는 순간에도 광야에 홀로 서면 금세 잊어버리고 또 헤맽니다. 평가자님은 광야에 있을 때 어떤 기도를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전 지난 평가서에 기술한 것처럼 사막에서(침묵 중에) 말씀을 묵상하는데 사막을 자주 못 간다는 허점이 있네요.



평가자가 학생에게

† 마음이 멋진 예수님

저는 사실 사막을 찾지도 않고 무언가 뚜렷한 대책을 가지고 있지도 않습니다. 제가 별로 도움이 안 되죠?^^* 돌이켜 보면 저는 그냥 계속 광야에 머물렀던 것 같습니다. 광야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하면서 광야라는 상황에 화를 내기도 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못 하는 제 자신에게 실망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아등바등 광야에서 버티고 있다 보니까 어느새 주님과 함께 광야를 빠져나와 있더군요.^ 침묵 중에 묵상을 하는 것도 혹은 다른 방법으로 무언가를 해나가는 것도 전부 다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광야에서 나름대로 버티고 견디어 내는 나만의 노력이니깐요.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결국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을 주님께서는 구해주신다는 거죠. 내 노력이 아니라 오로지 주님의 은총으로요~! 그러니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께 매달리기를 포기하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행복하세요. *^^*

학생이 평가자에게

성경에는 무엇이든 이루어질 때까지 청하라고 합니다. 한편 모든 집착을 버리고 주님께 내어 맡기라고도 합니다. 그렇다면 청원기도는 불필요한 걸까요?



평가자가 학생에게

† 주님의 사랑으로!
평화와 기쁨을 보냅니다.

베로니카님!

내어 맡김은 그분의 결정을 수락한다는 뜻이 아닐까요? 그분이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믿음으로, 비록 그것이 오늘 나에게 고난이어도 말입니다. 그런 것이 믿음이라고 말해야 되려나요? 그러나 그 같은 믿음으로 원하는 바를 청원한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는 않겠지요? 불필요한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치유되는 과정을 보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합니까?”라고 물으시거든요. 만족할 만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잘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구요~ 엄청 더운 여름이 빨리 도착하는 바람에 “더위야 주님을 찬미하여라~” 하는 찬미가를 빠른 6월에 부르게 되었습니다. 몸 건강히 잘 지내시고 2학기에 또 뵙겠습니다.

학생이 평가자에게

지하철 좌석에 앉아 한 손에 약 봉투를 들고 있는 할머니가 옆자리의 꼬마 손주의 이마를 짚어보며 “아직도 열이 있네... 저녁 먹고 약 먹자.”

손주는 “응. ... 그런데 할머니는 어떻게 내가 아픈 걸 잘 알아?”

할머니는 “아픈 사람을 알아보는 건 더 아픈 사람이라...”

얼마 전 읽은 이기주 작가의 「언어의 온도」 책머리에 실려있던 내용입니다.

아픈 사람과 더 아픈 사람...

안녕하세요? 평가자님!

세 자매가 함께 시작한 구약입문 과정을 무사히 끝내고 올해 1년 동안 신약입문 과정을 하게 된 김정은 아녜스입니다.

성경 읽기, 묵상하기가 일상이 되고 보니, 예수님과 참 많이 가까워지는 느낌이 드는 요즘이에요. 그동안의 제 삶이 ‘아픈 사람’이라면 ‘더 아픈 사람’은 예수님, 바로 하느님이셨네요.

♪ 잠자는 하늘님이여 이제 그만 일어나요~ 그 옛날 하늘빛처럼 조울 한번 해주세요~♪ 어느 가수의 노랫말처럼 하느님은 그냥 방관만 하시면서(?) 늘 말없이 보고만 계시다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는 성경을 마음으로 듣고, 읽고, 새기면서 좀 더 가까이, 좀 더 가까이..., 하느님 만나 뵙는 날까지 이렇게 꾸준히 적당한 보폭으로 숨 고르며 다가가겠습니다.

평가자님! 잘 부탁드립니다.(꾸벅)



평가자가 학생에게

To. 김 아녜스 자매님께

반갑습니다. ^^ 저는 자매님과 함께 영적 여정을 걸어갈 김 비오라고 합니다.

영적 삶의 기본 형태는 하느님께서 주시는 은총에서 발생되어 인간의 응답으로 전개되어 나가는 것이라고 하지요. 하느님께 더 다가가고 그분의 부르심에 성실히 응답하고자 성경을 공부하시는 자매님께 큰 박수와 응원을 보냅니다. 더욱이 이렇게 충실히 답안을 완성해 주시다니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참 좋은 글귀와 노랫말도요~^^(저도 모르게 흥얼거렸답니다.)

너무나 아팠던 십자가의 비참함에 감춰진 하느님의 권능과 영광을 묵상할 수 있는 사순과 부활이 되시길 기도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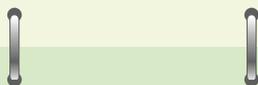
학생이 평가자에게

안녕하세요. 2학기 첫 문제집을 마무리하는 마음이 설렙니다. 아무래도 신약성경보다 구약성경을 잘 모르다 보니 성경을 읽어나가면서 어려움이 점점 커집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주변 정세도 파악해야 하니-정세를 알면 성경 이해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그것 역시 어렵더군요. 그래서 50퍼센트만 이해하자는 마음으로 성경 읽기에 주력하며 성경 말씀의 배경을 살피고 예언 말씀과 예언자들의 삶을 이해하는 데 노력했습니다. 많이 미흡하지만요, 그래도 2학기 첫 과를 마치니 2학기도 열심히, 끝까지 잘해야지 하는 결심이 쉽니다. 예쁘게 봐주시고 좋은 말씀 기대합니다. 더운 날 건강 조심하시구요. 늘 기도하겠습니다.

참, 1학기 끝나고 1박 2일 구약입문 연수를 마리스타 교육관에서 동문들과 함께 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집이 일산이라 통학할까 하다가 숙식을 하면서 더 좋은 시간을 가져볼까 하여 1박을 신청했습니다. 덕분에 저녁기도와 아침 성무일도-노래로 진행-로 하루를 끝내고 시작하는 첫 경험을 했습니다. 5년 전 명퇴하시고 진해에서 봉사하시는 선배님을 우연히 만나는 기쁨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기쁘고 행복한 시간은 염철호 신부님의 이틀간의 강의였습니다. 구약의 흐름을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시고 공부의 흐름을 잡아주셨습니다.

신부님의 파견 미사로 1박 2일의 여정은 끝났지만 그날 받은 축복은 가슴속 깊이 남아있습니다. 수녀님들의 따뜻한 미소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은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나의 것이다.”(이사 43,1ㄴ) 파견 미사 영성체 선물 말씀입니다.



✉ 평가자가 학생에게

†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비처럼, 땅을 적시는 봄비처럼 오시리라.”(호세 6,3)

주님 안에서 사랑하올 헬레나 자매님께

그간 안녕하셨는지요? 답안 가득 새 학기를 시작하는 설렘과 싱그러움을 느낄 수 있어 좋았습니다. 특히 7월 연수회를 다녀오시고 매우 기뻐하시는 자매님의 모습이 그려져 더욱 기쁩니다.

성경통독 피정을 하다가 구약성경에서 선물받은 말씀입니다. 겨우내 숨을 죽이고 다시 그 엄청난 생명력을 꽃피우기 위해 기다리는 세상 만물에게 봄비는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요. 하느님께서는 언제나 어김없이 그렇게 우리에게 오시나 봅니다. 다만 기다림이 필요한 것도 사실인 듯해요. 봄비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자매님의 마음을 조금씩 축축이 적셔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만끽하시길 축원합니다.

학생이 평가자에게

참으로 신앙인의 삶은 신비하기만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사도처럼 육체의 노동, 피곤함, 많은 우여곡절 안에서도 주님과 함께 머물며 주님의 일을 하면서 얻는 큰 기쁨과 감사와 평화는 그 누구도 줄 수 없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은총입니다.

하루를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마음을 모아 영성체하며 시작할 때 몸은 약간 피곤해도 주님이 주시는 달콤함에 맛 들이게 되어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주님을 더 찾게 됩니다. 참 좋으신 주님, 제게 주님께로 향하는 마음을 심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로 영성을 공부하며, 저희 집 가훈처럼 늘 주님께 감사하고 기도하며 기쁨 안에서 살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평가자가 학생에게

† 찬미 예수님

좋은 계절 성모님의 달에 말씀 안에서 기쁨과 감사의 삶으로 찬미드리는 자매님! 성가정 이루시며 가정 안에서 또 이웃과 공동체 안에서 모범적인 신앙인으로 살아가시는 모습이 엿보입니다.

파티마 성모님 발현 100주년을 맞은 뜻깊은 5월, 성모성월과 맞물려 더욱 감회가 새롭습니다. 가정의 달이기도 한 5월에 주님과 함께 계신 성모님의 전구로 더욱 기쁨 가득한 나날 되소서. 수고하셨습니다.

너와 내가 만나는 곳, 연 수 회

〈구약입문 2학기 연수회〉

2017년 1월 14일 박형순 바오로 신부님(인천교구 원당동성당)께서 '예언서'를 중심으로 2학기 교재내용을 총정리해 주셨습니다. 열정적인 신부님의 강의와 열성적인 학생들의 질문으로 강의실 분위기는 시종일관 활발한 분위기였습니다. 항암치료를 끝내고 힘든 가운데서도 참석해 주신 분, 지방에서 비행기를 타고 오신 분, 새벽 3시에 출발해서 오신 거창 학생분들 덕분에 다들 감동의 마음으로 함께한 연수회였습니다.



<신약입문 2학기 연수회>



2017년 1월 7일 남재현 티모테오 신부님(가톨릭관동대)께서 '4복음서와 묵시록'을 주제로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입문 학생들과의 첫 만남이라 교재와 문제집을 미리 보시고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강의를 준비해 주신 덕분에 다양한 연령층의 학생들이 편안하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성경공부를 하는 학생이 성경을 모르고, 성경을 신앙으로 살아 내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 하시며 성경에 맛 들이도록 해주셨습니다. 연수회는 조용한 분위기로 시작되었으나 어느새 친교를 나누는 분위기로 바뀌어 갔습니다. 2학기 총정리와 더불어 신앙의 소중함을 알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성바로 신학영성 수료연수회〉



2017년 2월 18일 '초대교회의 공동체 생활에서 배우는 신앙인의 삶'을 주제로 변종찬 마태오 신부님(서울 가톨릭대)께서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초대교회 신자들의 삶과 교부들의 가르침을 통해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순교의 삶, 하느님과 일치한 삶으로 이끌어 주신 강의였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시청각통신성서교육원의 모든 성경공부 프로그램을 마무리하는 이번 연수회에 감사의 마음으로 참석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14년 만에 8년 공부를 마친 분을 비롯해, 이번에는 꼭 수료를 하겠다는 일념으로 공동체 수녀님들의 배려로 시간을 허락받아 과제를 끝까지 하시고 연수회에 참석하신 수녀님도 계셨습니다. 이러한 학생들의 열심한 노고가 하느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예뻐까 생각하게 한 연수회였습니다.

〈구약중급 연수회〉



2017년 7월 8일 '룻과 함께하는 역사서 기행'을 주제로 이진수 스테파노 신부님(부산 가톨릭대)께서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연수회 전날 중부지방에 폭우가 쏟아질 것이라는 기상청의 예보에 잔뜩 긴장을 했었는데 거제도과 부산, 진주를 비롯한 여러 지방에서 오시는 거의 모든 분들이 빠짐없이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룻기를 중심으로 역사서 전체를 바라보도록 이끌어 주신 신부님의 강의에 학생들은 "새롭다, 신선하다"는 반응을 보이며 다음 과정에서는 더 열심히 공부하겠다는 의지를 불태웠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연수회를 위해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신약중급 연수회〉



2017년 9월 2일 박병규 요한 보스코 신부님(대구대교구 성서사도직)의 강의로 89명의 학생이 참석한 가운데 신약중급 연수회가 있었습니다. 「테마로 읽는 요한계 문헌」이라는 타이틀 안에서 요한복음에 나타난 ‘믿음과 사랑’이라는 주제로 강의가 진행되었습니다. 강의에서 신부님은 ‘사랑이란 원래의 자기 자신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는 자기의 자리를 떠나 타인에게로 나아가는 것으로 진행되며, 예수님의 육화를 사는 것이다. 이로써 진정한 믿음을 지닌 신앙인이 된다’는 점을 강조하셨습니다. 새벽 1시에 친자매들과 함께 기차를 타고 울산에서 오셨다는 학생 등 연수회를 위해 이른 아침부터 지방에서 오신 학생들의 열의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구약입문 1학기 연수회〉



2017년 7월 15일~16일 성경공부를 시작한 신입생들의 첫 연수회가 마리스타 교육관에서 1박 2일 동안 있었습니다. '오경'을 주제로 염철호 요한 신부님(부산 가톨릭대)께서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이번에도 장대비가 쏟아졌지만 제주도과 중국, 또 여러 지방에서 오시는 학생분들 거의가 참석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학생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친밀함을 느끼며 서로의 어려움들을 나누었고 특히 숙식을 한 학생들은 둘째 날 아침식사 후 삼삼오오 모여 절두산 성지로 산책을 나가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말씀에 대한 학생들의 열정이 지속될 수 있도록 기도드리며 연수회를 마쳤습니다.

〈신약입문 1학기 연수회〉



2017년 7월 29일 최종훈 토마스 신부님(광주대교구 성서사도직)께서 '사도행전과 바오로서간'을 주제로 신약입문 1학기를 총정리하시며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성경 구성을 비롯해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바오로 사도의 삶과 연결한 신앙과 열정을 다루어 주셨고, 성경 안에서 주제어와 축을 설명해 주셔서 학생들로 하여금 전체를 바라보되 중심어를 통해 하나님의 손길을 알아차리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신부님의 질문에 여기저기서 손을 들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학생들의 불타는 학구열 속에서 연수회가 진행되었습니다. 학생들은 "명확하게 말씀이 들어왔다. 신선하다"는 표현과 함께 어느 때보다 하나 되었던 시간이었다고 하시며 다음 연수회를 기약하셨습니다.

〈성바로 신학영성 연수회〉



2017년 9월 23일 염철호 요한 신부님(부산 가톨릭대)께서 코린토 1서, 테살로니카 1서, 로마서 안에 나타난 바오로의 영성을 주제로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연수회에는 모두 77 명이 참석했습니다. 휴가를 이용해 일본에서 오신 분도 있었고, 미국에서 오라버니의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들어오셨다가 연수회에 오신 분도 있었습니다. 이러닝으로만 공부하다가 지금은 우편 과정으로 바오로 신학영성을 공부하신다는 자매님은 '좀 더 성경과 교재에 집중해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감사하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참석하신 모든 분의 열정과 충실한 모습에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못다 한 교육원 이야기

● 2017년 장학생 현황

교육원 학생들의 후원금과 연수회 미사 때 봉헌한 봉헌금은 올해도 역시 성경 공부를 할 수 없는 어려운 처지의 이웃과 전국 교도소의 장기수 재소자를 위한 장학금으로 소중하게 사용되었습니다.

“성경공부가 너무 신나고 재미있습니다! 제게도 이런 기쁨을 맛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느 장학생의 짧지만 진심이 담긴 인사가 떠오릅니다.

말씀의 전파를 위해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고 후원해주신 모든 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구분	재소자 장학생	일반 장학생	계
인원	32	5	37



● **통신성서교육원 홈페이지 개편**

통신성서교육원 홈페이지가 학생들이 좀 더 편리하고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동안 많은 준비를 한 끝에 개편되어, 2017년 2월에 새롭게 오픈되었습니다.

해당 학습방법으로 바로 접근이 용이하도록 각 파트별로(우편, 이러닝, 새로운) 세분화하였고, 글씨 크기도 커지고 교육원 관련 일정이 배너로 공지되는 등 여러 면이 달라졌습니다. 그동안 홈페이지 작업을 위해 함께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 **이러닝(e-Learning) 성경공부 전 과정(6년) 모바일학습 개설**

홈페이지 개편과 더불어 학생들이 더욱 다양하고 편리한 방법으로 성경을 공부할 수 있도록 2017년 3월에 모바일학습을 개설하였습니다. 그동안 이러닝 성경 공부는 PC를 통해서만 수강이 가능했는데 이제는 모바일(핸드폰, 아이패드)을 이용해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강의를 들을 수 있고 공지사항, 묻고 답하기 등 통신성서교육원의 주요 서비스도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2017년 교육원 교재 작업 상황**

1) 신약성경 입문과정(2학년 1학기) 교재

성바오로딸수도회 편역으로 신약성경 입문과정 1학기 교재가 개정되어 2018년부터 사용됩니다.

2) 신약성경 중급과정(6학년 1학기) 교재

부산교구 염철호 요한 신부님께서 6학년 1학기 바오로서간 교재를 집필해 주셨고 2018년부터 사용됩니다.



주님을 찬미합니다.

한국 정읍에 있는 아들이 수료증을 중국에 있는 저에게 보내주어 흥분된 심정을 억제하며 받아보았습니다. 자격이 모자람을 너무 잘 알면서도 8년 과정의 마침표인 수료증이 하느님을 경외하는 저의 마음속에 무한한 빛을 주는 것만 같아서 잠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원장 수녀님을 비롯한 선생님들께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말씀을 공부할 것을 다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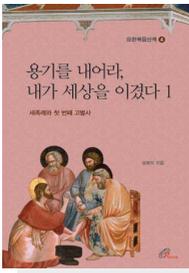
수료 연수회에 몹시 참가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중국에서 병원생활을 하는 저이기에 하느님께 기도로서 2월 18일 연수회에 참가했습니다. 그래도 마음은 흐뭇했습니다. 하느님께 자녀의 자세로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이 행복했기 때문입니다.

한국 국적 취득과 동시에 중국 국적을 포기한 그때부터 모든 경제 지원이 끊어졌습니다. 몇몇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열심히 일하면서 새 생활을 창조하려 했으나 병마의 장난으로 노동능력을 상실하여 질병과 가난 속을 헤매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통신성서교육원에서의 말씀공부로 하느님을 신뢰합니다. 그 신뢰로 저는 독립운동가의 후손이지만 나라의 도움 받기를 마침내 단념했습니다. 적응된 중국의 저소비 경제생활과 그곳의 여러 친지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음이 말씀을 공부하는 힘이라 알고 있습니다. 실로 희망을 하느님께 두고 살아가는 저는 행복하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랬기에 부족한 저에게 통신성서교육원의 수료증을 안겨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영원한 생명의 길에서 동요함 없이 걸어가는 보잘것없는 한 학생을 고무해 주시는 원장 수녀님과 선생님들에게 뜨거운 감사의 경례를 보내옵니다.

원장 수녀님과 선생님들의 건강을 내내 빕니다.

중국에서 학생 이해연(李海燕) 안나 올림

공부에 도움이 될 매체를 소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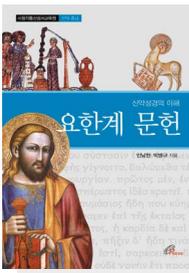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1(요한복음산책 4)

송봉모 신부 | 바오로딸

요한복음산책 시리즈 넷째 책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는 예수님의 최후만찬과 그분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주신 마지막 말씀(고별사와 고별 기도)에 대한 내용이다.

이번에 발간한 그 첫째 권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1」은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일과 첫 번째 고별사가 나오는 요한복음 13장부터 14장까지이다. 다음에 나올 둘째 권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2」는 두 번째 고별사와 세 번째 고별사 그리고 예수님의 고별 기도로서 15장부터 17장까지이다. 그리고 18장부터 21장까지 다루게 될 다섯째 책을 끝으로 송봉모 신부의 요한복음산책 총서는 마무리된다.



신약성경의 이해-요한계 문헌

민남현 수녀, 박병규 신부 | 바오로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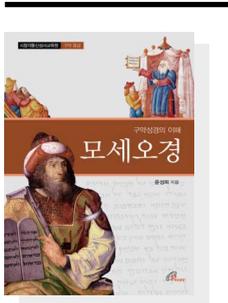
요한복음, 요한 1·2·3서, 요한묵시록 각 권의 전체적인 흐름을 제시하고 주요 본문들의 성경적·신학적 의미를 고찰하면서 독자의 마음에 하느님 말씀의 메시지가 생생하게 전달되도록 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시편 42-89편(거룩한 독서를 위한 구약성경 주해 23-2)

전봉순 수녀 | 바오로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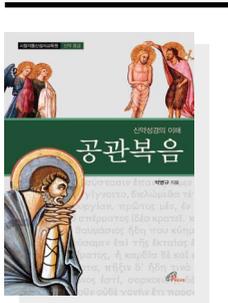
하느님 백성의 기도이며, 그리스도교회의 기도인 시편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잘 모르는 우리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준다. 또한 이 책은 시편으로 거룩한 독서를 하고자 하는 이들이 궁금해할 만한 내용을 깊이 있고도 알기 쉽게 설명해 놓았다.



구약성경의 이해-모세오경

윤성희 | 바오로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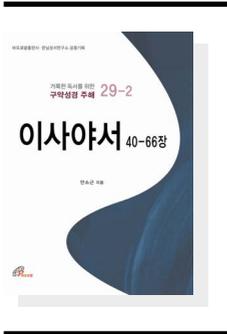
모세오경에 대한 깊이 있고 폭넓은 안내. 각 부분에 대한 성서적이고 신학적인, 그리고 영성적인 해석이 있어서 말씀을 더욱 깊이 있게 구체적으로 받아들이게 해주고 새로운 깨달음을 준다.



신약성경의 이해-공관복음

박병규 신부 | 바오로딸

공관복음 각 권이 가지는 고유하고 특징적인 이야기의 흐름을 서술하고, 그 흐름 안에서 가치와 사상을 발견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복음서들이 편집하고 구성한 이야기들의 연결고리를 따라 물 흐르듯 읽어나가면서 복음서들이 제안한 읽기의 전략과 전망을 살펴보는 것이 이 책의 주안점이다.



이사야서 40-66장(거룩한 독서를 위한 구약성경 주해 29-2)

안소근 수녀 | 바오로딸

대부분의 성경 번역본에서 예언서들 가운데 첫째로 나오는 이사야서는 분량도 방대하고 신학적으로도 성경의 다른 책들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신약성경의 여러 중요한 부분에서 이사야서를 인용하고 있으므로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의 관계를 다루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간결한 문장으로 핵심을 정확히 짚어주고, 신학적·영성적 주석을 겸비한 거룩한 독서 길잡이로 손색이 없다.



허영엽 신부의 성경산책

허영엽 신부, 임의준 신부 | 바오로딸

[서울주보]에 2년(2015-2016년) 동안 연재한 허영엽 신부의 '성경산책' 코너의 글 모음. 매 주일 주보 한 면 분량으로 그날 주제에 맞게 성경 관련 지식을 설명해 주고, 구약과 신약에 걸쳐 인물에 연관된 이야기와 역사적 배경 등을 쉽고 재미있게 풀어준다. 독자가 직접 제시된 성경 구절을 찾아 읽고 괄호 안에 정답을 쓰는 형식으로 부담 없이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다.



강우일 주교와 함께 희망의 길을 걷다

강우일 주교 | 바오로딸

지난 3-4년간 신문이나 잡지 등에 발표된 강우일 주교의 강론이나 강의, 심포지엄의 주제 발표 글을 모아 엮은 책이다. 제주교구장으로 살아온 지난 10년을 돌아보며 정리한 글도 새로 실었다. 제주도 4·3 사건과 한반도 평화 문제, 핵발전소, 생태 문제, 세월호 등에 대한 한 사목자의 진심에서 우러난 소리를 듣는다.

발행 : 2017년 11월 30일
펴낸데 : 성바오로딸수도회 시청각통신성서교육원
01166 서울 강북구 오현로7길 34
등록 제7-123호 1994. 3. 30
전화 : 02)944-0819~0824 FAX 987-5275
이메일 : uus@pauline.or.kr
홈페이지 : <http://uus.pauline.or.kr>
카페 : <http://cafe.daum.net/junim510>

이 책은 성바오로딸수도회 시청각통신성서교육원 회지이며 비매품입니다.



아버지, 이 사람들이 모두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요한 17,21)